

10-3-2013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 프로그램**

Young Ju Yang 양영주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양영주,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3.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BIBLICAL WORLDVIEW FORMATION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written by

**YOUNG JU YA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ong Hun Joo

  
Jin Ki Hwang

October 3, 2013

**A BIBLICAL WORLDVIEW FORMATION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JU YANG**

OCTOBER 2013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 프로그램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주 종 훈 교수

양 영 주

2013년 10월



## Abstract

A Biblical Worldview Formation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Young Ju Yang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rlogical Semina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lay small group leaders have a very important role as they share ministry with vocational ministers. However, small group leaders need to establish their faith on a consistent biblical paradigm and examine their behavior and inner worldview to bring them into alignment with the biblical worldview. Therefore, influential church members need a worldview application program for obeying biblical truth and applying it in their heart. In addition, Christians in this postmodern age need discernment regarding other worldviews, to have ready answers about what we believe for others with different worldviews so that we do not compromise the truth.

This thesis presents a biblical worldview formation program for building up a sound person in Christ, for lay ministry small group leaders to establish their understanding about God, humanity, and the universe and to examine themselves through the Biblical worldview. As a result, the small group leader can build up a small group comprised of wholesome Christians who follow the truth, renew their minds, and not to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paper introduces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discusses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s and small group leaders, as well as defining a small group and its biblical background. The chapter also examines the principles behind small group ministry, its role in spiritual growth and life transformation, and the recruitment, training, and worldview of group leaders.

Chapter 3 observes the impact that a non-Biblical, secular worldview has on small groups and the church. It examines the biblical worldview, including Creation, the Fall, and Redemption of mankind, and, in contrast, the secular worldview that the small group must overcome.

Chapter 4 analyzes discipleship training and the two-pronged nurturing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small group leader training program at Sarang Community church and PSH Community Church,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the education ministry. The analysis focuses especially on areas of emphasis and places for improvement in the leadership training. Chapter 5 takes this analysis and goes on to describe an eight-week biblical worldview establishment program that elevates the authority of the Bible, promotes a creationist-oriented, salvation-oriented lifestyle, and deals with secular worldviews.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and concludes this thesis with the hope that it will aid the ministry of current and future small group leaders. It aims for leaders to establish a firm Biblical worldview, to examine their inner person and identify its mixture with a secular worldview, and to attain biblical discernment in order to build healthy small groups and healthy churches.

Theological Mentors: Jong Hun Joo, PhD  
Jin Ki Hwang, PhD

## 감사의 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목회자의 성품과 성도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아버님 고 양현수 목사님, 새벽마다 무릎으로 학업과 사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신 어머니님 전용금 권사님, 인생의 든든한 멘토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장형 양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와 격려로 용기주신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 주현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격려해준 민홍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A사랑의교회를 알게 된 것은 제 목회인생의 복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의 열정과 차세대 양성만이 다음세대의 희망임을 외치셨고,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오늘도 철인처럼 앞으로 전진하시는 김기섭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화론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큰 장애물임을 안타까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워가자는 목회철학에 동의하여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격려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 된 사랑하는 아내 노휘성, 학업과 사역으로 돌아주지도 못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아빠만 있으면 그렇게도 행복해 하는 큰아들 데이빗 일환과, 둘째 데니엘 민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랜드캐년과 요세미티를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LA창조과학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 최우성 박사님, 자기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해주신 주혁로목사님, 정승룡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논문의 풍성함을 더 해준 LA우리교회 니콜라스 리 목사님과 한승범 전도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학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논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주종훈 교수님, 대학원을 이끌어 가시며 언제나 바쁜 업무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배려해주시고, 살피주신 황진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양영주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	3
제 2 장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의 세계관 .....	5
제 1 절 소그룹의 이해와 훈련 .....	5
1. 소그룹의 정의 .....	5
2. 소그룹의 기능 .....	7
3.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	13
4. 소그룹과 훈련 .....	19
제 2 절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 .....	23
1. 소그룹 리더의 발굴 .....	23
2. 소그룹 리더의 역할 .....	25
3. 소그룹 리더의 자질 .....	27
4. 소그룹 리더의 영성훈련 .....	31
제 3 절 세계관과 소그룹 리더 .....	35
1. 세계관의 정의 .....	36
2. 소그룹 리더의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 .....	39
제 3 장 성경적 세계관 .....	41
제 1 절 성경적 세계관의 정의와 기본구조 .....	41
1. 창조 .....	44
2. 타락 .....	48
3. 구속 .....	52
제 2 절 성경적 세계관과 소그룹 사역 .....	56

1. 성경적 세계관과 개인의 성숙: 바른 신앙 형성, 온전한 예배자 .....	59
2.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공부 인도 : 진리로의 안내자 .....	61
3. 성경적 세계관과 섬김 : 그리스도의 본을 보임 .....	63
제 3 절 세속적 세계관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	64
1. 교회안의 세속주의 .....	64
2. 소그룹에서 극복해야할 세속적 세계관들 .....	69
제 4 장 두날개 양육시스템과 제자훈련 분석 및 평가 .....	80
제 1 절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훈련 분석 .....	80
1. 두날개 양육시스템 .....	80
2.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강점 .....	82
3.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비평적 평가 .....	85
제 2 절 제자훈련 모델의 훈련 분석 .....	88
1. 제자훈련 모델 .....	88
2. 제자훈련 교회의 강점 .....	89
3. 제자훈련 모델의 비평적 평가 .....	91
제 3 절 소그룹 리더 훈련의 한계점 .....	94
1. 성경의 체계적 훈련 부재 .....	95
2. 확고한 창조신앙의 부족 .....	97
3.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대응 부재 .....	99
제 5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 .....	101
제 1 절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	101
1. 필요성과 목표 .....	101
2. 프로그램의 구성 .....	103
제 2 절 성경적 세계관 8주 프로그램의 운영 .....	105
제 3 절 성경적 세계관 8주 프로그램의 실제 .....	107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27
제 1 절 요약 .....	127
제 2 절 연구결과의 기대와 제언 .....	129
 부록 .....	 131
 참고 문헌 .....	 200
 Vita .....	 207

## 표 목 차

<표 1> .....	57
<표 2> .....	81
<표 3> .....	104, 105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1세기 교회는 새롭게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회자 중심의 카리스마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양적성장위주에서 개인의 질적 성숙으로 변하고 있다. 21세기의 교육, 지식, 정보사회는 사회, 문화에서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평신도 사역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사회에서 목회자가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목회철학을 공유하며 교회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소그룹 리더는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한다.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선별하고, 훈련함으로써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등 정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소그룹이 건강해 지고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소그룹이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데 만약 소그룹 리더가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구하는 바와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의 정립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며, 그에 합당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내면적 바탕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에서 세계관 정립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관은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그리고 세계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참으로 실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것은 개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실재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성숙한 소그룹 리더가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세계관이 때로는 비밀관적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일관된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세계관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소그룹 리더 교육내용은 대부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행동변화에 대한 결단과 열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면적 행동 변화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언행의 변화는 어렵다.

이 논문은 예비 소그룹 리더와 또한 치열한 삶의 현장가운데서 목장(다락방)이나 구역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기존 소그룹 리더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며, 무분별하게 혼합된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성경의 진리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5장의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은 세속적 세계관과 혼재되어 있는 리더의 속사람을 점검하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진리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도록 도와준다. 각 과의 도입에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과 소그룹 토의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며, 견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평신도 리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양육 교육과정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 사명, 선교, 헌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삶, 구원의 은혜, 성령과 동행하는 삶 및 교회생활에 대한 훈련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여 세우고 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실재의 근본적 구성에 관한 완성된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인간 및 피조세계에 관한 근본적 관점은 개인의 세계관의 바탕을 이루므로 구속과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육 및 훈련 과정에 추가하여 하나님과 인간 및 피조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소그룹 리더의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관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정하는 신념체계이다. 개인은 세계관에 따

라 실재의 근본적 구성(하나님, 인간, 우주, 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영적성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는 무엇을 향해 흘러가는지 등에 관한 각자의 대답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성경은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 영화로 이어지는 구속사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실재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성경적 삶에 동의하고 따르는 평신도 소그룹 리더가 세워질 때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진리에 기초한 삶과 교회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나타낼 수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먼저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할 세계관을 살펴본 후,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소그룹 리더의 기초를 놓고, 문헌을 통해 제자훈련과 두 날개 양육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및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제자훈련과 두 날개 양육시스템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연구 범위는 두 날개 양육시스템의 훈련 프로그램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제 분석하여 훈련 진행시 핵심 요소와 훈련자의 성숙에 기여하는 요소, 소그룹 리더 훈련의 한계점과 그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성경적 세계관 확립 8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활용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과 개요에 따라, 전개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범위를 다룬다. 2장에서는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의 중요성을 다룬다.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 소그룹 사역의 원리, 소그룹을 통한 신앙 형성 및 삶의 변화, 소그룹 리더의 발굴, 훈련, 리더에게 있어서 세계관을 점검한다. 3장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다룬다. 성경적 세계관이 소그룹 사역에 미치는

영향과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속적 세계관이 소그룹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그룹에서 극복해야 할 세속적 세계관을 점검한다. 4장에서는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제자훈련과 두 날개 양육시스템의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여 교육의 핵심을 산출하고, 특히 제자훈련 중심의 리더훈련에서 강조 되는 부분과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소그룹 리더훈련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창조신앙과 구속사적 관점의 삶을 살며, 세속적 세계관에 대처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주 훈련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는다.

## 제 2 장

###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의 세계관

이번 장에서는 소그룹의 이해와 필요성, 소그룹 리더와 훈련, 그리고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이웃과의 담장이 높아지고 개인주의로 인하여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넘쳐나면서 교제와 사랑과 공동체의 깊은 연합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삭막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초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을 통한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 소그룹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위로 받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인간의 깊은 요구를 채워 줄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은 상호 의존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제 1 절 소그룹의 이해와 훈련

#####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은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소그룹은 창조 세계의 요구이자 인간 문화의 필요이다.<sup>1)</sup> 소그룹은 문화를 넘고, 세대를 넘어, 더 나아가 초자연적인 인류 공동체의 일반적 형태이다.<sup>2)</sup> 소그룹들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보여

---

1)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16.

주는 축소판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실제로 반영하게 된다. 소그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인간의 제도를 투사하는 기본 무대가 된다. 크고 작은 인간의 모든 모임은 비인간적인 구조를 철저히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적 관계를 밝히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긴장 가운데 놓여 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소그룹은 그들의 근원과 목적을 성찰하여야 한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회상을 하는 것은 곧 인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그룹의 존재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3)</sup>

소그룹이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통일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이다. 예수님께서도 수 천 명의 무리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sup>4)</sup>

소그룹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며 공유할 수 있다. 소그룹은 여러 가지 의미 깊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일대일 관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성숙하며 변화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는 기도의 삶을 보여 주셨고, 기도를 이루어 내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그룹은 동일 집단의 그룹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집단적인 행위를 그룹 차원에서 살펴보면, 소그룹은 동질성을 가진 그룹을 의미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하는데 교회 안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볼 때 소그룹이란 우연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없다.

소그룹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성도들의 작은 모임을 말한다. 이들은 공동의

2)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

3)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7.

4) 마가복음 3장 14절.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룹이다. 소그룹은 그 중에서 선별된 리더가 인도하되 리더는 영적성장의 환경을 주도면밀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sup>5)</sup>

존 캐스텔(John L. Casteel)은 소그룹을 “기독교 신앙과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소명을 어떻게 잘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작은 무리들”이라고 정의한다.<sup>6)</sup> 또한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소그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그룹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한 소그룹은 삶을 변화시키며 지속적이고 유동적이며 개인의 변화와 그룹 전체의 변화가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소그룹의 장점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며,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안으로는 소그룹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밖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며, 앞으로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sup>7)</sup>

이상 살펴보았듯이 소그룹은 구성원들의 결합된 연합을 통하여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개개인의 모임으로,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소그룹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동질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갖는다.

## 2. 소그룹의 기능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에 대한 비전의 공유는 교회의 사역을 실제로 변화시킬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게 한다. 교회 내에서 시행되는 소그룹은 좁게는 개인의

5)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Leading Life: Changing Small Group)*,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6.

6) John L. Casteel, ed., *Spiritual Renewal through Personal Groups*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7), 19.

7)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So People Want to Come Back)*, NCD 출판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13.

욕구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야 하고, 넓게는 교회 전체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교회는 전반적인 목표와 연관된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소그룹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과 공동체를 성장케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하셨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계속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sup>8)</sup>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제자들로 성숙해 가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소그룹을 통해 어떻게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기능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가. 양육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양육되었는가를 말해준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 서로 떡을 떼, 서로 사귀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소그룹 양육의 첫째 요소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관계로 말미암은 특권과 책임들을 가지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이 증진된다.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교회의 머리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몰입해 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며 우리 편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일이 시작된다.

8) 요한복음 14장 25-26절, 15장 1-11절.

둘째는 떡을 떼는 일이다. 초대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던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그룹에서는 교제를 위한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를 그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여 성찬식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그룹원들끼리 한 곳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셋째는 서로 섬기는 일이다.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의 섬김과,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소유가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 베풀어졌다. 에베소서를 보면 소그룹들은 서로를 세워 주는 일과 봉사의 일을 했다(엡 4:1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지에 달려있다. 또한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그룹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넷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이다. 예수님은 말씀과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믿을 수 있게 하였다(요 17:20). 오늘날 우리는 이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한다.<sup>9)</sup>

#### 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 뿐 아니라 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한 소그룹이 예배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배에 있

9)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the Dynamics of Good Group Life)*,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5), 101-107.



어서 우리가 갖는 목적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그 분을 그 공동체적 활동이나 중심에 모셔야 한다.

예배는 공동체적 교제·전도와 선교·양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양육을 할 수 있고 전도와 봉사하기 전에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는 요체가 된다.<sup>10)</sup>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감지하며, 경험할 수 있는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예배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며, 위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그룹의 리더로서 이런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의 리더는 그룹원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독창성이나 다양성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소그룹에서 예배에 낭송할 시들을 쓰기도 하고, 잘 알려진 찬송가나 복음 성가에 새로운 가사들을 만들어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곡들을 새로 써보게 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

정성구 교수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고귀한 예배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겸손한 예배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인간은 겸손하게 서야 한다. 둘째는 합심한 예배이다. 모인 무리가 한 마음 한 뜻된 예배이다. 셋째는 영적 예배이다.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 (요 4:23). 넷째는 자발적인 예배이다. 인간의 속박이나 외식과는 떠난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예배이다. 다섯째는 아름다운 예배인데, 이것은 예배 처소의 아름다움이나 인간 보기에 화려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내용이 성경적이며 형식과 순서가 적절하고 질서대로 수행되는 예배이다. 여섯째로는 즐거운 예배이다. 집단 예배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sup>11)</sup>

10)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22.

11)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8), 167-169.

신앙 성장에 있어 최대의 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있다(요 4:23-24).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나아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가 있다. 소그룹 활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을 때 그 생동하는 능력은 세상으로 번져간다.

#### 다. 공동체적 교제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만남과 나눔을 의미한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지속적인 소그룹 활동에 참여할 때 서로의 인격을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친근히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성숙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공동체적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에서 함께 변화되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과감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각 사람은 자기 자아의 껍질들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자기 발견과 상호 관계는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5)고 하셨다. 가족이란 단순히 맺어진 관계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서로 깊이 개입되는 것, 즉 인격적 개입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서로의 삶에 역동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서로 알아야 한다. 둘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한다. 셋째, 각 개인의 필요

12)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25.

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 다섯째,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서로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서로 힘을 북돋아 줌으로써 서로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에게 주신 것이다.<sup>13)</sup>

#### 라. 선교

소그룹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체 의식, 양육, 예배를 통한 믿음의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건강한 소그룹으로 성장하려면 이와 같은 요소와 더불어 선교라는 측면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놀라운 모범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의 선교는 소그룹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온 맘으로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며 영적인 결실을 위해 일들을 분담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그룹은 복음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벧후 1:3)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 혹은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소그룹의 선교적인 사명은 그 소그룹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땅 끝까지 미쳐야 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선교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소그룹의 활동에 있어서도 선교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적인 투자와 영적 은사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 활동이 소그룹

13)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37.

활동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남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sup>14)</sup>

이상과 같이 소그룹은 양육과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다. 우리는 여기서 소그룹에 있는 양육과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선교가 하나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배는 공동체적 교제, 전도와 선교, 양육과 섬김에 각각 관련되어 있다.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양육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섬김이 드러나게 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소그룹의 공동체적 교제나, 양육, 예배 등의 요소는 선교라는 요소에 동력을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구성 요소인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가 함께 이루어 질 때 그 소그룹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 3.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소그룹일지라도 성경적이지 못하면 변질 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소그룹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에 대하여 문화를 넘고, 세대를 넘어, 더 나아가 초자연적인 인류 공동체의 일반적 형태라고 말한다.

인간을 그룹으로 모이게 한 부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ontological, 존재론적),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teleological, 목적론적) 사역이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바로 그 속성과 목적에서 잉태된 것이다. 존재이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지음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성숙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sup>15)</sup>

성경에 “소그룹”(small group)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소그룹

14)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57.

1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

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설계하셨다.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의 기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 하셨다(창 1:26).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각기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함께 협력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소그룹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구약에서의 소그룹은 주로 가족 공동체, 부족, 지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Neal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가정에서 소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여 그룹으로 이어지고, 그룹이 발전하여 지파로, 지파나 그룹이 발전하여 군대 등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sup>16)</sup>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영원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언약을 맺으신 것도 가족그룹을 통해서였다(창 9:1).<sup>17)</sup>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여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 뜻을 성취하셨다(창 17:2).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 두 아들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통치하며 인도케 하셨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을 따라서 열 두 지파로 나누어 졌다(창 49). 열 두 지파를 통해 구약의 소그룹 모형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열 두 지파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복을 내려 주셨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 시대의 소그룹이 나온다.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충고해 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출 18:13-27). 모세는 홀로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다. 모세의 역할은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하여 훈련

16) Neal F. McBride,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How to Have Great Small-Group Meetings: Dozens of Ideas You can Use Right Now)*, 네비게이트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트, 2001), 15.

17)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IVF 자료개발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16.

시키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에게 큰 짐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를 주셨고 그들이 함께 은사와 기술, 그리고 통찰력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원하셨다.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상 1:20). 사무엘상 8장이 보여주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때였다. 이때 그들의 신앙은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정치제도인 인간 왕의 통치를 사모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 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무엘은 라마 나뭇에 선지학교를 세웠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해 선별된 제자들을 뽑아 말씀으로 훈련하였다(삼상 19:20).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변 강대국인 애굽과 앓수르의 위협이 있었다.<sup>18)</sup> 유대와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신앙은 형식과 위선에 빠졌으며 도덕적, 영적 타락이 만연했다(사 1:3).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부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모아 훈련하였다(사 8:16).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와 함께한 훈련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본문은 엘리사가 훈련반다 빗만 남기고 죽은 훈련생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 독이 든 국을 가루에 풀어서 독을 없애고 먹게 하는 기적, 보리떡 이십 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백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열왕기하 6장은 생도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져서 건져 올린 기사가 있다. 이것을 볼 때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훈련받기 위해 일종의 소그룹 형태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그룹의 구약 성서적인 기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를 비롯한 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18) B.C. 722 앓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 7:18-10:4). B.C. 586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왕하 25:1-26).

### 나. 예수님 시대의 소그룹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눅 6:13). 존 맬리슨(John Mallinson)은 “예수님의 사역이 소그룹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열 두 명의 제자의 친밀한 관계가 소그룹 사역이었다”고 말한다.<sup>19)</sup>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소그룹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집중하셨다(막 3:14).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열둘로 구성된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더 집중적으로 사랑하셨고 훈련하셨는데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는 현장(막 5:37), 변화산 사건(마 17:1; 막 9:2; 눅 9:28),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소수를 구분하시되 그중에서도 선택하신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 두 제자 명단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누가 기록했든지 항상 세 개의 더 작은 그룹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소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두 번째 소그룹은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이며, 세 번째 소그룹은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유다”와 같다. 중간에 순서가 바뀔지라도 항상 세 소그룹의 머리는 변함없이 “베드로, 빌립, 야고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 두 명의 제자도 네 명씩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시고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20)</sup>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임을 보여주셨다(요 2:11; 막 4:39).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병의 원인까지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막 2:5; 마9:27).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훈련시키셨다(막 5:22; 눅 7:11; 요 11:38).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공유하셨다. 이렇게 훈련된 제자들은 마침내 순교까지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

19) John Mallinson, *Growing Christians in Small Groups* (Sydney: Scripture Union, 1988), 4.

20) 이성희, *미래목회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20.

예수님의 소그룹을 통하여 훈련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삶과 사역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로버트 콜먼(Robert Coleman)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분과 함께 소그룹 공동체를 이룬 열 두 명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콜먼은 소그룹 운동을 제자의 선별, 동화, 성결, 부여, 증명, 파송, 감독, 재생산 등 8단계로 설명한다.<sup>21)</sup>

맥 브라이드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소그룹의 모본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그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마 4:18-22). 둘째, 예수님은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사역에 모두 활동적으로 임하셨다. 셋째, 무리들에게 대한 사역은 소그룹 사역으로 나아갔으며, 또한 소그룹 사역에서 시작하여 무리들에게 대한 사역으로 발전하였다. 넷째,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그룹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 다섯째, 소그룹 인도자로서 예수님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여섯째, 영적인 지식과 태도와 양식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을 활용하셨다.<sup>22)</sup>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조직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은 기도로 시작된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열 두 명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소그룹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셨다.

#### 다. 초대교회의 소그룹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성전이었고, 그들은 돌로 지어진 건물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성전은 정결법에 따라 장소나 사람들 간에 엄격한 구별을 짓는 폐쇄된 장소였다. 성전은 여인들, 부정한 이방인들, 고자들,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초대교회는 점차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21)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104.

22)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Small Groups)*,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97), 18.



다.<sup>23)</sup>

오순절 성령강림은 초대교회를 다시 모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자들은 성령강림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소그룹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복음을 전했을 때 삼 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갑작스러운 초대교회의 성장은 더 이상 대그룹의 모임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게 하였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두 개의 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대모임과 가정 단위의 소모임이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은 성전과 가정이었음을 말한다(행 2:46). 초대교회 소그룹 공동체는 기도와 찬미, 식사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성전과 집에서 행했다. 누가는 가정집을 기도회의 장소(행 12:12), 교제를 위한 모임(행 21:7), 성찬식(행 2:46), 기도와 예배, 철야집회 장소(행 20:7), 복음을 듣기 위한 계획된 집회 장소(행 10:22)로 보았다.

초대교회시대에는 가정모임과 같은 매우 작지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그룹이 선교사역의 중추 역할을 감당했다. 루디아는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했고(행 16:13), 야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했다(행 17:9).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 2년 동안 머물면서 가정교회를 설립했다(행 28:30).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바울과 소수의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였다(롬 16:5).

아리스도볼로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10), 나깃수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11),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형제들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10),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15),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와 함께 모이는 교회(롬 16:5-10),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모이는 교회(롬 16:12-13)를 볼 수 있으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들 가운데 주의 만찬(막 14:12-26),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요 20:14-29),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사건(행 2:1-13)들은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바울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 바울의 문안인사를

23) 이한수, *예수 바울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467.

보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였다. 후에 이 소그룹 모임은 로마제국의 박해 시대에도 카타콤 안에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빌레몬의 집도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몬 1:2). 초대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성도의 유기적인 연합이 가능했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 4. 소그룹과 훈련

소그룹 훈련은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사도적인 상호 훈련에 힘써야 한다. 소그룹 사역의 훈련은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진다.

##### 가. 공동체 훈련 원리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였듯,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기독교 공동체는 만남을 통해 인간 실존의 변화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 속에 항상 참여하시며 계시의 통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만날 때 자기 정체성이 조명되어 복음의 빛에 자신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가 된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이스노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의 변화되고 성숙된 관계를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 변화되고 성숙된 습관과 관계는 그들을 위해 더욱 큰 사회 안에서 마찬가지로의 성숙된 습관과 관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소그룹이 다 함께 성장하면, 그 구성원들은 복음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 그룹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의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듯이,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의로움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듯이,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의로움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된다.<sup>25)</sup>

2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39.

2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88.

공동체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는 곳마다 인간 공동체를 세우셨다. 세상을 향해 관계적이며 인간 공동체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친교인 코이노니아(Koinonia)는 성령이 교회에 주신 은사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은 친절한 언행만 교류하는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생각과 일, 감정, 고통, 그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하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sup>26)</sup>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빌 2:1)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의 사귄다는 수직적 차원과 성령을 통한 신자간의 사귄다는 수평적 차원을 말한다. 두 차원이 이해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갖는 사귄다.<sup>27)</sup> 예수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사귄다는 신자들 서로간의 사귄드를 연결하는 도구이며 기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우리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행하라”(빌 3:17)고 하셨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사람의 모본이었고,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삶과 성례전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그룹 훈련과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도식 훈련을 행했다. 또한 사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을 하면서 소그룹을 통해 인간화해를 위한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sup>28)</sup>

사도들은 사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주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여러 도시에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쳤다. 영적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바른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은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경험하게 하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다.

26)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20.

27)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107.

28)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0.

### 나. 소그룹 훈련과 환경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는 곳마다 인간 공동체를 세웠듯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sup>29)</sup> 이처럼 소그룹에서의 훈련은 평신도를 불러 모아 그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만들어주어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 리더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의미 있는 관계(일대일을 포함하여)는 소그룹의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가 꼭 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소그룹 자체가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قم이 없이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가장 깊이 체험할 것이다. 이 사랑은 혁신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의도적으로 이루어 내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일 뿐 성공적인 소그룹은 아니다.<sup>30)</sup>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이 세상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열 두 제자들을 위하여 사셨다. 그는 열 두 제자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로 이끌어 영원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열 두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 했던 열 두 명의 소그룹은 왕성하여져서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사역하는 수백, 수천의 소그룹들로 발전하였다.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훈련의 사명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명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데려다 제자도의 방법론을 소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현실 세상 속으로 동행하시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맞닥뜨리게 되는 실제 위기를 경험하게 하셨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직접적인 희생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직면하게 하셨다. 열 두 제자의 그룹은 현실 세상을 실험실로 한 실험이었던 것이다. 열 두 제자의 훈련은 신학적이고 실존적이며 교회적인 신명훈련소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장이며 새로운 행동 양식을 실행하고 서로를 도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sup>31)</sup> 예수님은 소그룹

29)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9.

30) 옥한흠,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0.

이 무너진 인간성을 추스르고 변화된 삶을 훈련하며 영원한 비전을 갖게 만드는 이상적인 무대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함께 모이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된다.

#### 다. 소그룹 훈련과 치료요소

소그룹은 상호 기도와 고백이 용서와 치유로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들 내부에 존재하는 고통과 상처를 고려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내적 고통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상처에 대해 더욱 개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sup>32)</sup> 용서와 치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교류하게 함으로써, 상호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준다.

소그룹에서는 그 분위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육한흠은 이러한 요인들을 ‘치료 요소’라고 부르는데,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 첫째, ‘일반화’라는 요소이다. 이것은 작은 모임에 나와 서로 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평소에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 배를 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간 상호 관계 학습’이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자신의 개성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그룹 애착심’이다. 자기가 소속한 모임을 무척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모임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애착심은 더 강해진다. 그룹 애착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모임은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임에서 배운 것은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달라진다. 그룹의 리더가 한 말은 누구의 말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 가지

31)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76-279.

32)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16.

주의할 것은 너무 지나친 애착심은 교회의 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모방'이다. 이것은 작은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의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좋은 점을 가진 형제(자매)를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의 자세, 신앙생활, 습관, 심지어 개성까지 닮으려 든다. 특히 좋은 리더가 인도하는 모임에서는 모두가 인도자를 닮아 가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섯째, '카타르시스'이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치료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감정을 확 풀어놓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평온을 찾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그룹 모임은 감정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덮어두었던 감정적인 것들을 털어놓는 일이 흔하다. 감정을 풀고 나면 누구든지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sup>33)</sup> 소그룹은 관계와 사랑, 그리고 존경을 경험할 수 있다.

## 제 2 절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

### 1. 소그룹 리더의 발굴

리더들의 수준은 소그룹 사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비전이 있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리더는 자신의 소그룹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며,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인도한다. 경건한 리더는 진정한 관계를 맺어 가도록 돕고, 진리와 삶이 만나는 소그룹을 세울 것이다. 소그룹 사역의 미래는 리더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정과 평판과 기대는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특징이다. 어떤 것에 가장 큰 애정을 쏟느냐는 무척중요하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대는 섬김에 대한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 가. 열정

리더가 소그룹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더욱 그분처럼 되려는 열정이다. 소그룹 리더의 신앙과 삶은 그룹원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33) 옥한흠,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17-19.

그들을 깊은 신앙생활로 인도한다. 리더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리더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없는 리더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도울 수 없다.

하나님, 사람, 진리,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애정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 선상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리더들, 혹은 잠재적인 리더들을 파악할 수 있다.<sup>34)</sup>

#### 나. 평판

평판은 그 사람이 리더십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된다. 반드시 리더를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역자, 교사, 그룹의 멤버등 다양한 사람들의 평판을 수용해야 한다. 그 사람의 성품, 신뢰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그의 잠재적 리더십을 평가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유,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리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책임자가 아니었을 때 그 사람을 물려나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 기대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에 대한 기대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의 정회원으로 헌신하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평생 배우는 자로 살려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소그룹 리더의 길을 가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십과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 권위아래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이 공동의 목표와 영적 성장을

34)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A Place Where Nobody Stands Alone)*,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97.

항해 나아가도록 불들어 줄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굳건한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리더의 모습은 그룹 안에서 또한 신뢰받지 못할 수 있다. 소그룹을 이끄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로 가득 찬, 끊임없고 힘든 모험이다. 여러 기술 가운데서도 리더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미래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일생에 걸친 배움과 기대는 필수적이다.<sup>35)</sup>

리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타고난 자질을 개발함과 동시에 영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질을 르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순결한 생활, 겸손한 마음,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한다.<sup>36)</sup>

소그룹 리더를 선정할 때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어야 하며, 섬김과 사역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하며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움과 성숙, 은사를 개발하려는 의지, 사역에의 적용,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것 등을 통해 섬김과 사역에서의 적극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윤리적인 표준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하며 민감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하며, 개방적이고 기꺼이 상처를 감수하려고 해야 하며,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사역에서 다른 이들을 기꺼이 돕고자 해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sup>37)</sup>

## 2. 소그룹 리더의 역할

대부분의 교회에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책임지고 돌볼

35)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99.

36) LeRoy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영적 지도력의 성서적인 원리 (*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What the Bible Says About Leadership*),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3), 43-44.

37)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47.



영적인 부모는 적다. 그러나 누구든지 배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듯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봉사했다(살전 2:7).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대일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세 살짜리는 열 살짜리와는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 필요들 역시 지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훈련에 의하여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다.

제자 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일에는 사랑과 훈련으로 치러야 할 값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파고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예탁해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 교회가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달려갈 만큼 크나큰 특권이다. 바울은 이 점에 관하여 그가 훈련시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살전 2:20)에서 말하고 있다.<sup>38)</sup>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의 몇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리더의 역할은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비전은 리더십의 재료이다. 비전은 노력의 배후에 숨은 원동력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둘째, 리더는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격려자이셨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23)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교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의 대가이시다. 소그룹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서 그들도 좋은 격려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특히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적당한 때에 칭찬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셋째, 리더는 함께해주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하며”(막 3:14)라고 하셨다. 리더는 그룹원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회

38) 옥한흠,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29.

로애락(喜怒哀樂)을 나눌 때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사역에 더 큰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

넷째, 리더는 다른 사람의 갈망, 말하지 못하는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소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요 9:7)고 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전도를 할 때 전도대상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평소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다리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39)</sup>

월터 헨릭슨(Walter A. Henricksen)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 “당신 자신의 필요와 약점과 경험을 나누라. 그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취미활동도 함께하라.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둘 사이의 장벽은 무너진다”<sup>40)</sup>고 말했다. 이것을 소그룹에 적용시키면 그룹 활동 시에 그룹원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또한 그룹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그룹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다섯째, 리더는 기술보다 태도를 개발시켜야 한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책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리더의 태도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가장 바람직한 리더는 장소에 따라 장단점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 3. 소그룹 리더의 자질

유능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잘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어떤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리더가 끌어낼 수 있는 지식, 기술, 활동의 범주는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FAT는 신실한(Faithful), 여유가 있

39) 전도이론에서는 이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한다.

40) Walter A. Henrick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네비게이토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0), 120-121.

는(Available),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 리더에게 FAT가 있다면 하나님은 리더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사용하신다.<sup>41)</sup>

#### 가. 신실한(Faithful)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세주로 모신 크리스천 리더는 이미 소그룹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신실함은 곧 성장하는 삶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은 규칙적인 영성생활 곧 기도,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성경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고, 깨닫는 사실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sup>42)</sup>

신실한 군사나 운동선수, 농부처럼 리더로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목표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켜서 우리 앞에 있는 과업을 달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필요가 있다(딤후 2:15).<sup>43)</sup>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은 리더에게 필히 요구되는 자질로 신실함과 정직성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주신 지도 역량으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적성(Giftedness)이고, 둘째는 인격(Character)으로 이 진실성은 인격의 중심부이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역으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한다.<sup>44)</sup>

무디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성격이다”는 말을 했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리더를 믿고 따를 수 없게 되고 결국 리더는 역동적인 그룹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신뢰는 하루하루 시간을 거듭할수록 쌓이는 것이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리더는 삶에서 본을 보여야하고, 무엇보다도 언행일치가 중요하다.

41) Pat J. Sikora,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Small Group Bible Studies)*,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3), 51.

42)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174.

43) Sikora,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52.

44) Robert Clinton, *영적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6), 60.

리더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나, 남을 헐뜯을 때나, 정보를 독점하거나, 가식적인 행동을 할 경우 등이다. 사람이 지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신뢰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지도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리더에게 있어서 진실함은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나 구성원들에게 진실해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8-9). 이는 주 안에서 빛 된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여야 함을 말씀한다. 또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롬 9:1)고 하였다. 다윗은 밋세바 사건이 있는 후 나단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진실함을 보여주었다(시 51).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리더는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한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꺾고 맹세하거나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습니다”(고후 1:18, 공동번역). 이와 같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리더는 구성원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며,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있어서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나. 여유가 있는(available) 리더

리더에게 있어야할 4가지의 여유 중 첫째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이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가졌다고 해도 소그룹을 위해 시간적 헌신을 할 만한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소그룹을 돕는 일이 된다.<sup>46)</sup>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리더에게도 적용된다. 리더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 인생의 때를 고려해야 하며,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여유와 안정감이 있는

45) John C. Maxwell,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99.

46)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175.

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리더는 유머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룹에서 리더는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유머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합당한 유머는 경직되기 쉬운 소그룹 모임을 원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리더의 유머는 구성원들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그룹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적당한 유머는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셋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리더는 분명한 계획과 안건, 그리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그룹을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종종 일은 기대한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창조적인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것이다. 소그룹 참석자들 사이에서의 상호행동, 그들의 의미 있는 표정, 속삭임, 비언어적 행동, 상호간의 연결과 교류 등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하여 도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로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융통성이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하는 것이다.

넷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리더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소그룹 멤버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돌볼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비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리더가 자비로 멤버들을 대할 때 그들은 리더를 통해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의 품은 생명이요, 은혜요, 회복인 것이다.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가기에 앞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한다. 사람들은 리더가 진실 되고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기 원한다.

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 리더

리더로써 기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리더로서 남다른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우쭐대고 있는가? 자신 보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전 1:26-31).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리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해야 하며 성령의 은밀하고 미세한 음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리더는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 리더에게는 그룹 구성원들이나 그룹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리더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한발 뒤에서 본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보게 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내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구성원을 바라보고 그의 상황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요소들을 제공해 주며, 화초를 가꾸듯이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열매를 맺기 전에는 그 나무가 어떤지 평가할 수 없다. 열매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듯이(마 7:16-18) 사람도 단시간 내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 인내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보이는 것이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후 3:15). 이러한 리더의 인내심이 그룹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4. 소그룹 리더의 영성훈련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삶의 현장을 찾아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귀기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다.<sup>47)</sup> 영성훈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로써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인격성이 있다. 영성훈련은 인격적인 삶을 훈련하는 것이므로, 인간 품성의 수양과 변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은 맹목적 행

47) 오성준,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224.

동주의가 아닌 지적훈련, 정서적 훈련, 평가적 훈련의 연속성 속에서 통합되어진 구체적 실체를 말한다.<sup>48)</sup>

영성훈련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character of Jesus)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리더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한 점검과 훈련은 소그룹을 이끄는 데 본이 되어야 할 덕목이다.

#### 가. 기도의 영성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영성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영적성장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주체이시며, 동시에 성령은 객체이시다. 그는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자신을 객체화하신 주체자이시다. 주객의 관계는 초월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 지는 것이다.<sup>49)</sup>

모든 영적리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교회의 소그룹리더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역에는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민감함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리더는 일에 쫓길 수 있다. 그러나 일 때문에 기도생활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리더가 무릎을 꿇을수록 그룹은 더욱 성숙되어져 가고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간다.

스티븐 A. 매키아(Stephen A. Macchia)는 그의 책에서 분주함은 사탄이 주는 공격무기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탄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의 공격과 속임수에 걸려들었다 싶으면 활동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과밀로 몰아넣어 삼키려하는 사탄의 교활한 활동에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sup>50)</sup>라고 하였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셨다. 하루의 일과를 살펴볼 때도 많은 무리를

48) Bradley Hansen, *Christian Spiritual and Theology* (New York: Dialogue 21, 1982), 207.

49) Donald G. Bloesch, *기도의 신학 (The Struggle of Prayer)*, 오성춘, 권승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45.

50)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122.

위해서 교훈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주한 삶을 사셨다. 그러나 그는 새벽미명에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고(막 1:35) 많은 무리를 피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마 26:36-46).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리더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생활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리더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리더 자신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 대한 기도<sup>51)</sup>를 함으로써 자신이나 그룹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은 구성원들에게 관심으로 표출된다. 이런 관심이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룹 속에 나타나므로 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준다.

#### 나. 말씀의 영성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리더나 그룹을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며, 리더의 삶은 변화하게 된다. 리더의 삶의 변화는 곧 그룹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17)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히 4:12)이라고 했다.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삶은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진행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 까지 하는 것이다. 말씀은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리더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겨야

51)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한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살아가고 구성원들에게 암송되어진 말씀을 사용한다면 리더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그룹의 활동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룹이 진행 되어질 것이다.

#### 다. 전도 훈련

소그룹 리더로 택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리더는 소그룹을 위하여 전도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리더는 전도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성경 말씀의 무장,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sup>52)</sup>

리더에게 영적인 무장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이라”(요 3:34)로 나타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 하니라”(행 5:42)에서와 같이 전도하는 신앙이었다.

리더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 생활의 개발과 기도의 무장이 필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기도하였듯이(눅 6:12), 전도에 임하는 리더는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sup>53)</sup>

전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진리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던 것이 마음속으로만 내재되어 있지 않고 외부적으로 표출되면서 진리에 대하여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이 넘치게 된다. 리더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리더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다. 이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행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한 줄기로써 건강한 리더에게 꼭 필요한 영성훈련의 덕목

52) 임택진, *로뎀 구역장* (서울: 소망사, 1981), 33.

53) L. R.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45.

이다.

지금까지 소그룹 리더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리더의 기도, 말씀, 전도를 위한 영성훈련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고의 틀을 성경적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3 절 세계관과 소그룹 리더

소그룹 리더는 목회자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한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책을 병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돌보고 이끄는 소그룹의 구성원들 역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보낸다.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대립을 느끼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거룩하며, 성숙한 말을 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느끼는 혹은 느끼지도 못하는 관점의 대립이 있다. 교회가 소그룹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소그룹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첨예하게 만나는 영적 최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성경은 엄연히 우주와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 목적을 가르친다. 성경은 한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고 더 나아가 그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답을 제시한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 곧 실재 전체에 관한 진리”<sup>54)</sup>이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대립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소그룹 환경이야말로 성도의 세속화 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변화의 장으로 삼

54) Nancy R. Pearcey, *완전한 진리 (Total Truth)*, 홍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6), 39, 122.

을 수 있다. 소그룹의 리더는 예배와 기도 및 교회 봉사 등 교회 내적 영역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삶의 문제들과 가정, 직업, 취미활동 등 여타 교회 외적 모든 영역에서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속이 구분되지 않는 삶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숙된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속적 관점이 신앙생활에 적당히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와 삶에서 세속적 관점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에게 일관되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1. 세계관의 정의

오늘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사고의 틀 속에서 세상을 본다. 인터넷의 정보, 뉴스, 책, 영화뿐만 아니라 신문, 만화, 대중가요, 텔레비전 등 미디어나 통신 기술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세상을 열어주는 창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본다.

신국원은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며, 세계 인식의 통일성은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으며 경험된 세계의 다양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창문, 즉 세계관이 다양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sup>55)</sup>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열어준다. 그것은 세계를 경험하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특이한 방식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세계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안목의 수준이다. 한 사회와 문화 역시 독특한 사조와 비전의 생활 방식을 공유한다. 그것은 그 기초에 동일한 지배적인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점식은 “우리는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서’(though) 혹은 ‘가지고’(with)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sup>56)</sup>고 표현했다.

세계관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관’이란 말이 기독교 세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의 많은 개념들과 신학의 여러 용어들은 고대 세계와 그리스·로마 문화의 산물이다.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철학

55)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18-20.

56) 안점식, *세계관과 종교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2008), 22.

자 딜타이(Wilhelm Dilthey)가 학술용어로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보는 관점(perspective)으로 사용하였다.<sup>57)</sup> 그런데,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 안에서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형성되어진다. 이는 세계관이 특정한 문화 속에 전제된 관념이나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을 하나의 결단이라고 정의한다.

세계관이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재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sup>58)</sup>

제임스 사이어는 자신의 함축적인 정의를 통해 세계관의 4가지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계관은 하나의 결단(commitment)이라는 것이다. 세계관의 본질은 인간 자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단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지향성 혹은 영적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이어에게 있어서 세계관은 또한 마음의 문제이다. 세계관은 각 사람의 조종실에 해당하는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일련의 전제로 표현된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의 세계관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둔 이야기로 표현된다. 자연주의는 빅뱅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진화, 은하의 형성, 태양과 유성들, 지구에서 생명의 출현, 우주의 쇠퇴에 따른 생명의 소멸 등을 줄거리로 삼는 으뜸 이야기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은 창조, 타락, 구속, 영화로 구성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애를 이 으뜸 이야기에 속한 자그마한 대목으로 여긴다. 이 작은 이야기들의 의미는 으뜸 이야기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의미의 일부는 명제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셋째로 세계관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결단을 표현하는 전제들

57)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정*, 40.

58) James W.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서울: IVP, 2007), 23.

이 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사물의 진면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의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르며, 또한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비 일관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이어는 세계관은 우리가 몸담을 수 있는 토대라고 한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을 깊이 성찰하고 또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sup>59)</sup>

이상의 세계관에 대한 정의와 성격을 살펴볼 때,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초로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기초는 인간의 행동, 생활양식 및 문화를 지배함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각자가 갖는 세계관은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성향으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재들에 대한 기원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담은 삶의 토대가 되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형성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관의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관은 사건과 쟁점들, 우리 문명의 구조와 우리 시대를 평가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경중을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을 하고, 그 정보를 내면화하거나 언행으로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며,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관은 우리의 논해나 논점 뿐 아니라 우리가 내려야 할 모든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up>60)</sup>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재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우리 모든 경험을 하나의 것으로 통합시켜준다. 또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주며 고무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분별케 하는 역할을 도와준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탐구해보는 것은 의도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세

59)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22-26.

60) Albert M.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홍병룡 역 (서울: IVP, 2011), 29.

계관의 작동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2. 소그룹 리더의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

밀러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열매를 결정짓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 또한 줄기와 가지를 살찌게 한다. 결국 뿌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 맺혀지는 열매이다”<sup>61)</sup>라고 말했다. 열매를 통해 우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세계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관(worldview)을 말할 때 흔히 이것을 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 안경 렌즈가 파란색이면 파란 세상으로 보이고, 노란색이면 노란 세상으로 보임에도 이 렌즈 자체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 렌즈에 따라 상당히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그룹에는 이처럼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므로 소그룹리더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형성된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문화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인식과 지식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처방해주신 안경을 끼길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안경을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61) Darrow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Kingdom of God)*,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2), 72.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살고 행동하려면, 우리의 삶과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 세계관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을 알면 자연히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그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sup>62)</sup>

세계관의 성격과 기능을 숙고해 볼 때, 그 요소들은 성경이 우리 삶에 계시하는 핵심 사항들과 같은 것을 다룬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출발된 존재로서 어떠한 영적인 방향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으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것 외에 우리 삶에 대한 다른 토대와 실제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공하는 시도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 이러한 민감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이에 소그룹 리더 자신이 성경적으로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바다로 데리고 갈 것인지 산으로 인도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구성원의 세계관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로 작용하는지 감지해내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안내할 수 있다. 요컨대, 구성원들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파악함으로써 그 필요를 말씀에 근거하여 채워주려면 리더 자신이 먼저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한다.

---

62)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16.

## 제 3 장

### 성경적 세계관

본 장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소그룹 사역에 중요한 지를 살펴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교회안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극복되어야 할 세속적 세계관들을 구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성경적 세계관의 정의와 기본구조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고”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일찍이 프란시스 웨퍼는 이러한 현상을 진리의 개념 자체가 분열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다시 낸시 피어시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sup>63)</sup>

#### 포스트모더니즘

주관적, 특정 집단에 관련됨

#### 모더니즘

객관적, 보편적으로 타당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벽은 성경의 진리를 공적인 자리에서 논할 수 없도록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과학과 이성의 산물은 공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반면, 종교는 사적인 신념 또는 가치의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재들을 해석하고, 삶의 현장에

63) Pearcey, *완전한 진리*, 45-47.



적용하는 원리로서 제시하려 할 때, 이를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어떤 신념을 가진 자들의 주관적 생각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러한 세속화는 학문, 정치, 교육, 문화 전반에 나타나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사유화한 상태로 제한하는 경향이 잠재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뚜렷한 모더니즘의 산물이다. 그것의 뿌리는 17세기의 과학혁명에서 찾을 수 있고, 계몽주의와 함께 절정을 이루었다. 인간 이성을 진리를 결정하는 궁극적 중심으로 삼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접근만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즉, 이성이 계시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공적인 영역을 장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은 주관적이고 전설적인 영역으로 간주 되었다.<sup>64)</sup>

인간 이성에 대한 철저한 숭배가 보편화 되면서 계시에 의한 진리인 성경의 권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모더니즘 속에서 실재(reality)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적인 신앙은 줄곧 공격을 받아왔으며, 무신론적 사상들이 교묘히 섞여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왔다. 이미 시대는 과학적 이성이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였지만, 모더니즘의 잔재인 인본주의, 물질주의(자연주의), 합리주의는 크리스천의 삶 속에 질게 녹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특별한 계기를 통해 드러내고 수술할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부패한 이성이 성경보다 우위를 점하는 세속적 삶을 쉽게 청산할 수 없다.

세계 대전과 핵무기의 공포 등으로 인해 인간 이성에 대한 참혹한 절망은 모더니즘의 서거를 가져왔다. 모더니즘의 반동적 개념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이고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를 인간 사회의 산물로 여긴다. 이로 인해 현 시대는 점점 더 상대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는데, 이는 한 집단의 실재(reality)에 대한 인식이 옳고 다른 집단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오버만과 돈 존슨은 성경적 세계관 교육과 관련한 그들의 책에서 현 시대에서 한 집단이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제 남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집단의 가치관과 윤

64) Christian Overman and Don Johnson, *진리와 하나 된 교육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23.

리를 “관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이다.<sup>65)</sup>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불변하고 지속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 세대의 지성 속에 통합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문화 전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 세대의 지성 속에 통합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문화 전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 원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이 세계관이 모든 실재(reality)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 주어야 할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현재가 그 때이다.<sup>66)</sup>

비단 다음 세대만의 문제이겠는가? 이미 1960년대에 이러한 풍조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는 문화 속에 뿌렸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년들은 진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사상과 윤리 문제를 어떻게 세상에 외쳐야 하며, 사람들이 헛된 종교나 철학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속적 세계관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부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분별력의 문제이며,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크리스천을 만들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 세계관적 가르침을 진지하게 감당해야 한다.

김무현은 “성경적 세계관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전제하고, 성경적 세계관은 전적으로 초월적 창조주와 그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초점이다”라고 했다.<sup>67)</sup>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창조, 타락, 구속의 핵심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성경은 세계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그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준다.

65) Overman and Johnson, *진리와 하나 된 교육*, 25.

66) Overman and Johnson, *진리와 하나 된 교육*, 29.

67)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서울: 말씀과 만남, 2004), 32.

## 1. 창조(創造, Creation)

성경적 세계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 창조(historical creation)를 받아들여 성경적 의미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sup>68)</sup>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는 만물이 스스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또한 만물은 의존적이며,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역동적인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섭리와 은총으로 현재도 유지, 운행되고 있다.<sup>69)</sup>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창조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증언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는 성경에 나타난 명백하고 일관된 가르침이다.<sup>70)</sup>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작동시키는 법칙들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는 현재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성경은 창조가 선재된 물질이 없는 상태인 무(ex nihilo)로부터 초자연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다. 창조 사건 이후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등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다. 창세기 1-2장 전반에 나타나는 창조의 초자연성과 급작성은 시편 33장 6-9절, 시편 148장 1-6절, 이사야 40장 21-26절, 히브리서 11장 3절 등에서 계속 확인된다.

창조가 초자연적이란 사실은 인간이 이를 오직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 어느 인간도 그 자리에 있어 이를 보지 못하였고, 설사 거기 있어서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그 사건의 의미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68)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27.

69) Brian. J Walsh and J. Richard Middleton, *그리스도인의 비전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황영철 역 (서울: IVP, 1987), 61.

70) John MacAr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창세기 1-3장을 통해 본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The Battle for the Beginning)*, 이십주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29.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3-4).<sup>71)</sup>

따라서 근대 과학자들이 기원의 주제에 대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말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격자로서 증언한 내용이다. 성경이 우주의 기원을 다룰 때, 과학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추측뿐이다. 과학은 창세기 기록을 부정하게 하는 어떤 반증도 입증하지 못했다. 반면, 창세기 기록은 과학의 수수께끼들에 해답을 제시한다.<sup>72)</sup>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sup>73)</sup>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각기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 발휘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은 태초의 창조 때나 창조 세계 역사의 매순간이나 변함이 없다. 성경적인 창조 개념을 숙고할 때 우리는 잠시라도 자신의 세계를 창출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면, 창조라는 말을 ‘창조주의 주권적인 행위와 창조 질서의 상호 관계’라고 정의해야 한다.<sup>74)</sup>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계속해서 만물을 불드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신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신들의 실수나 장난에 의해서가 아니고, 물질의 우연적 조합에 의한 맹목적인 대폭발의 결과도 아니며, 창조주가 창세전부터 세운 계획에 따라 창조하였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목적을 가진 창조는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역사를 끝없는 순환이나 윤회로 인식했던 고대 그리스나 불교의 사관과는 달리 기독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을 실현하는 터전으로 보는 것이다.<sup>75)</sup>

창조 신앙은 창세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적인 회의론자들 뿐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조차도 창조 기사를 상징, 시, 풍유, 신화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강영안은 그의 사도신경 강해에서 창조 기사(창 1:1-2:3)가 구조적으

71) John C. Whitcomb, *성경적 창조론 (The Early Earth)*,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6.

72) MacA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27.

73)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41.

74)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43.

75)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히 13:8).

로 놀랍도록 치밀하고 사용된 언어도 매우 절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한 주전 537년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리라고 하면서, 창조 주간에 대해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기술하는 것은 성경 기자가 각각의 날에 무엇을 지으셨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국을 향해, 창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서술한다.<sup>76)</sup> 다시 말해, 모세가 창조 기사를 기록했으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존 맥아더는 창세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방식은 신약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만일 창세기 서두에 사용된 언어가 비유로 해석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면, 우리는 신약에서도 창세기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약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세기 기록에 대한 창조자 자신의 설명이 되며, 창세기를 인용한 신약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들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2-20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원죄 교리는 역사적 인물로서 아담과 그의 타락 기사에 대한 창세기 기록의 문자적인 해석을 전제하고 있다.<sup>77)</sup> 또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를 읽을 때 아담에 대해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암시하게 된다.

신약을 통한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한 내적 증거는 예수님의 창조 기사 인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존 휘트콤은 마가복음 10장 6절 “인간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창세기 인용을 통해 만약 지구의 창조와 인류의 창조 사이에 수 십 억년의 기간이 흘렀다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될 것이며,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11장 50절,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4장 3절과 9장 26절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78)</sup>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

76)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서울: IVF, 2007), 224.

77) MacAr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27-28.

78) Whitcomb, *성경적 창조론*, 39.

창조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며, 이는 구약 전체 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 그 역사성이 계속 확인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성은 구속사의 출발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15:22, 45).

사실 신약이 창세기를 인용할 때(막 13:19; 요 1:3; 행 4:24, 14:5; 고후 4:6; 골 1:16; 히 1:2, 10; 계 4:11, 10:6, 14:7), 그것은 과거의 완성된 사건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서 언급하는 것이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진화 과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사 65:17). 새 창조에 대한 사실상의 모델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이다(롬 8:21; 계 21:1,5).<sup>79)</sup>

창조의 진리는 창조주의 능력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선포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오늘의 문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남녀 관계나 성,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을 제시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 창조의 진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지 상식이나 지배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진리가 보여 주는 내용에 주목하고 이를 통하여 사안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창조 세계는 단지 정제된 존재가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성까지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펼쳐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처럼 창조진리에는 독특한 역사관과 문화관이 들어 있다. 또한 성경의 처음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에 나오는 세계가 매우 흡사하다. 계시록은 창세기가 쓰인 지 수천 년 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로 쓰였다. 모세와 요한은 그들의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일 것을 알지 못했다.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쳐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논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의 시작과 마침은 흡사 고딕 성당의 좌우편처럼 같은 모양으로 완벽한 상칭(相稱)을 이룬다. 둘 다 같은 곳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sup>80)</sup>

이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79) MacA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29.

80)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경*, 58-60.

창조 과정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준다. 현실의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등 여러 면을 바라볼 때, 성경의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경이 되어야 한다.

## 2. 타락(墮落, Fall)

모리스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의 창조의 일을 마쳤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심히 좋았고(창 1:31), 무질서, 고통, 고난, 죄, 죽음이 없었다. 우주적 평화와 조화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충만했다”고 말했다.<sup>81)</sup>

신국원도 “창조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 삶을 보는 바른 관점 형성에 필수적이며, 그러나 그것만 알고 타락에 대한 내용을 간과한다면 낙관론에 젖을 수 있다. 지금의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며, 타락 이후의 세계는 첫 창조 세계와 연속성뿐 아니라 불연속성도 가진다. 현실은 문제와 비정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악으로 물든 비극적인 곳”이라 했다.<sup>82)</sup>

세상에서는 죄와 악의 근원을 흔히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는다. 구조적 결함이란 세상과 인간성이 본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과 팔자소관, 부모와 사회를 탓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세상이 악한 것이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라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보상받아야 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알버트 월터스는 이 세상에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조와 방향”(structure and direc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구조’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방식이다. ‘방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를 말한다. 세상이 죄악에 빠진 것은 구조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성경은 악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죄와 악은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다. 악은 방향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로는, 악이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sup>83)</sup> 타락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임을 말한 것이다.<sup>84)</sup>

81) Henry M. Morris, *창세기의 대 사건들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희숙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62.

82)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90.

무신론(atheism)은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비관론적 해답에 크게 기초하고 있다. 이원론(二元論)의 철학은 우주 안에 선의 원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의 영원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물론 이같은 해답들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히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그의 계시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악의 근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85)</sup>

신국원은 성경에서 인간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깨뜨린 일을 통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말한다(창 3장; 롬 5:12).

본래 선하던 세상이 악과 고통에 빠진 것은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이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며, 타락은 인간의 종교적 반역 때문에 나타났다. 인간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생긴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타락은 문화 명령의 기초를 이루는 종교적 언약을 바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됨<sup>86)</sup>을 말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렸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본래 있던 악이 싹튼 것이 아니다. 타락은 인간이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취한 데서 비롯되었다.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리고 결심한 것이다. 타락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신에게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타락은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이다.<sup>87)</sup>

타락은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인격 간의 최대의 악은 신뢰를 깨뜨려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오용하여 이 관계를 깨뜨렸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

83)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91.

84)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38.

85) Morris, *창세기의 대 사건들*, 63.

86)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92.

87)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95.



었다.<sup>88)</sup>

인류가 죄로 물든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다. 신문이 이것을 매일 말하고, 아침 뉴스에도 등장하며, 역사에도 기록됐다. 우리가 아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더욱이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우리의 절망적인 부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일부가 양심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처지에 이르렀는가? 창세기 3장은 간명하게 대답한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의 죄가 전 인류를 더럽혔고, 육신의 후손들은 빠짐없이 죄를 사랑하고 참된 의를 경멸하는 본성을 물려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난다.

모리스는 로마서 5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의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망과 심판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들어왔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원죄를 물려받았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더럽히는 죄악 된 마음, 다시 말해 비천하고 배반을 일삼는 부패하고 파멸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sup>89)</sup>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7-8).

사람들은 인간 타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한다.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에덴동산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만드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선악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두 언약, 즉 창조의 언약과 종교적 언약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표지였다. 선악과에 대한 금지로 표현된 종교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순종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범할 것이다. 선악과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대해 의지적으로 기꺼이 복종할 것인지를 보이는 기준이다.<sup>90)</sup>

88)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정*, 96.

89) MacA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273.

90)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정*, 98.

선악과가 에덴 생활의 중심(창 3:3)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이 나무는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알고 지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시판과도 같았다. 선악과는 종교 언약의 가시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율법’과 성격이 같다.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계명이다. 율법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을 행동에 옮겼다. 욕심은 죄악의 뿌리다. 그것을 통해 들어온 타락은 인격의 일부에서만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각적, 인식론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전인격적인 행위다.<sup>91)</sup>

월터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일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대재난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며, 인류 전체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경고를 무시한 아담의 실패에 연루되어 있다. 죄의 영향은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친다. 창조된 사물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sup>92)</sup>

맥아더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피조물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롬 8:20) 상태인데, 이는 원래 계획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피조물은 죄로 훼손되고 더럽혀져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에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썩음, 퇴보, 죽음을 포함한 죄의 부패한 영향에 묶여 있다. 모든 피조물이 현재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롬 8:22)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모두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결과”임을 설명했다.<sup>93)</sup>

죄는 인간사의 영역을 넘어 비인간적인 세계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성경 두 곳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타락 직후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토양 자체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 농사가 어렵게 되고 말았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로마서 8장 19-22절 말씀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허무함(허망함, 공허함, 무의미

91)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경*, 98.

92)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93-94.

93) MacAthur, *우주와 인간의 시작*, 273.

함)에 굴복했는데 이는 ‘굴복하게 하는 이’의 의지에 의해서(즉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sup>94)</sup>

타락의 결과들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왜곡의 실상은 아마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신성모독, 그 외의 다른 많은 악덕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분명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인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타락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이 바로 인간의 상황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이다.<sup>95)</sup>

월터스는 “성경에 모든 종류의 악(질병이든 죽음이든, 비도덕이든 부적응이든)이 인간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에 대하여 그분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무효로 돌릴 만한 힘은 없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인간성이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라고 했다.<sup>96)</sup>

이는 창조의 영구적인 선함, 즉 죄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 창조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살되지 않는다. 타락이 지상에 속한 창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죄는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기생충이라는 사실, 죄가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사물을 더럽게 만들어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땅의’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울부짖게 되었음을 말한다.

### 3. 구속(救贖, Redemption)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창조계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성경은 타락으로 인한 악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약속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94)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97.

95)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96.

96)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98-112.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최초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먼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창 12:2-3)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구속을 가져 올 역사적 배경을 마련하셨다.

인간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와 죽음이 필요하다. 고대에는 우상숭배자들이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기도 했고, 구약에서 보면 죄사함을 위해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한 قيم은 살인으로 갚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피를 흘리는 것이라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엄청난 가치를 두신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시는데, 이 동물이 아담과 하와 대신 피를 흘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한다. 선한 사람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대언하게 하셨던 선지자들도 죄를 지었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참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들과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종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받는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시켜주는 구절이다. 예수님은 로마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군중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한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을 극복하신 것이 된다. 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류의 적인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악한 상태의 세상을 구하신 것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구원은 구속, 화해, 새롭게 함, 그리고 거듭남 등으로 성경에 표현되어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다시 새롭게 만들다,’ ‘죽음에 떨어진 후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다’를 의미함으로써 창조계의 삶의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죄와 허물로 죽은”(엡 2:10)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7)</sup>

성경에서 구원을 묘사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모두 본래의 선한 상태 또는 선한 상황으로의 회복을 함축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구속(redemption)은 ‘공짜로 사다,’ 문자적으로는 ‘다시 사오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유평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어떤 자유인이 납치되어 몸값이 붙은 채 갇혀있다. 어떤 사람이 그 포로를 위해

97)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29.

몸값을 치르고, 그에게 본래의 자유를 ‘도로 사 준다.’ 구속의 핵심은 죄인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에게 이전에 향유했던 자유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sup>98)</sup>

월터스는 “구속이란 창조 세계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 넣는 것이다”라고 했다.<sup>99)</sup>

신국원에 의하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이다(고후 5:17-18). 아담이 깨뜨린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속은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구속은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새 언약”에 기초한다(렘 31:31-34; 고전 11:25; 히6:13). 그 언약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히 8:8-13, 9:15, 10:20, 12:24), 이 일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이미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깨뜨린 언약을 지키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셨다. 아울러 문화 명령도 바로 수행할 능력도 회복하셨다. 구속은 에덴동산으로의 복귀나 단순한 창조의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행보를 회복하는 것이다.<sup>100)</sup>

신국원은 ‘구속이란, 타락으로 죄악 가운데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사죄(赦罪), 즉 죄 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갚아 주신 것이고(롬 4:25; 딤후 2:14; 엡 2:10), 적극적으로는 의롭게 된 새사람으로 지음 받는 것’이라고 했다.<sup>101)</sup>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의 고발과 양심의 죄책에 시달린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이 저주에서 속함 받는 것이다(갈 3:13).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가 아직도 그 기세가 등등하나 하나님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그 죄를 꾸짖고, 극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다. 원칙적으로 의와 악에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98)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116.

99)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118.

100)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39.

101)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40.

다. 그리하여 이제는 죄악의 권세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sup>102)</sup>

신국원은 “구속은 새로운 삶의 질서요 소명이며 새로운 비전의 회복이다. 구속의 적용은 또한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sup>103)</sup>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눈을 열어 비전을 가지게 하는 세계관 본연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확신 있는 비전일수록 반드시 시민적 성숙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확신에는 차 있으나 독단과 편협성에 빠져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대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지만 다원주의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앙이 무례함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열려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바른 성도이다.<sup>104)</sup>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개인을 성숙시키며, 말씀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 제 2 절 성경적 세계관과 소그룹 사역

바나 리서치의 설립자인 조지 바나는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는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귀로 들어갔다 다른 한 귀로 빠져나갈 뿐이다. 진리를 걸어놓을 지적(知的) 걸이못(peg)이 마음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머물지 않는다. 진리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sup>105)</sup> 라고 말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 밖에서의 삶

102)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41-144.

103)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48.

104)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96.

105) Charles Colson and Nancy Pearcey, *How Now Shall We Live?* (Wheaton, IL: Tyndale House, 1999), ix, quoted in Overman and Johnson, *진리와 하나 된 교육*, 46.

에 뚜렷한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사역은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언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적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전략적 삶을 위한 훈련」(strategic Life Training)의 저자 아담 피콕(Adam Peacock)과 마크 윌슨(Mark Wilson)은 세계관의 발달 과정을 알아냈는데, 다음과 같은 4 단계를 거치게 된다.<sup>106)</sup>

1 단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단계
2 단계	특정한 세계관에 사로잡히는 단계
3 단계	세계관과 삶의 모든 부분이 관련되는 통합의 단계
4 단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단계

표1 세계관의 발달 과정

교회가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려 할 때, 세계관의 발달 단계에 적용하여 보면 4단계, 즉 모든 관계와 환경 및 일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웃과 문화 속에서 끼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세계관 발달 단계가 나타내는 놀라운 시사점은 그렇게 복음과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개인의 내면세계가 반드시 주변과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음을 통해 시작되고(1단계), 이어 스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며(2단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성경과 관련짓는 통합을 거쳐(3단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4단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세계관적인 변화를 의식

106) Overman and Johnson, *진리와 하나 된 교육*, 49-50.



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는 설득력 있는 좋은 본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과연 성경적이며, 성경에 복종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함으로써 성경에 삶을 통합시키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이 일상의 삶, 내면적 갈등, 관점의 차이 등을 표면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소그룹 사역 현장이다. 자신의 생각과 실패와 충돌 그리고 성경적 삶의 은총을 드러내면서 비일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자신의 내면과 언행 및 사회 현상들을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관점으로의 조정 작업을 반복하면서 성경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자원하는 순종이 이뤄지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이다.

소그룹 리더는 목회자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한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책을 병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돌보고 이끄는 소그룹의 구성원들 역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보낸다.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대립을 느끼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거룩하며, 성숙한 말을 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느끼는 혹은 느끼지도 못하는 관점의 대립이 있다. 교회가 소그룹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소그룹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첨예하게 만나는 영적 최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성경은 엄연히 우주와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 목적을 가르친다. 성경은 한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고 더 나아가 그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답을 제시한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 곧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sup>107)</sup>이다.

107) Pearcey, *완전한 진리*, 39, 122.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대립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소그룹 환경이야말로 성도의 세속화 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변화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 소그룹의 리더는 예배와 기도 및 교회 봉사 등 교회 내적 영역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삶의 문제들과 가정, 직업, 취미활동 등 여타 교회 외적 모든 영역에서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속이 구분되지 않는 삶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숙된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속적 관점이 신앙생활에 적당히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와 삶에서 세속적 관점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에게 일관되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sup>108)</sup>

#### 1. 성경적 세계관과 개인의 성숙 : 바른 신앙 형성,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창조물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창조물 밖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피조물 안에 계시는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코람데오(Coram Deo: Before the face of God)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듯이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라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 주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했다. 이것이 100년 전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세계관이었다.<sup>109)</sup>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코람데오라는 뜻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

108) 본 논문의 58페이지 “소그룹 리더는”으로 시작되는 단락에서부터 현재 단락까지는 본 논문의 제 2장 3절 “세계관과 소그룹리더” (35-36)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임.

109)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55.

스천의 삶이다. 그러나 소그룹은 리더와 구성원들이 바른 신앙 형성과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훈련하고, 생각의 틀을 전환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가 맺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떼어 내기 위해 수고한다. 하지만 그 떼어낸 자리에서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나무의 뿌리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세계관, 즉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말이나 행동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각은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시간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생각은 수평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 1세기 도마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로 갔고,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졌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자 복음을 들고 많은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끊임없이 지구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둘째, 생각은 시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을 봤으니까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다양한 지식과 습관 및 행동양식이 전달된다. 가정교육과 이를 확대한 학교교육, 한 민족의 전통,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한 사회에 전수되어지는 삶의 규범과 양식들은 모두 시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전달되는 통로들이다. 구약은 생각의 시간적 계승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핵심요소로 제시한다. 신명기 6장 4-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세대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명령하셨다.

셋째, 생각은 문화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전달된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생각이 계속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산다. 생각은 항상 어떤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는 철학자나 사상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문화가 변화하고 가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또한, 문화

는 새로운 가치나 스타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전달된다. 이들은 그림이나 노래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한다.<sup>110)</sup>

소그룹은 수평적, 시간적, 수직적 생각의 한계와 관점을 성경으로 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다. 소그룹 리더의 이러한 통찰은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어느 곳,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코람테오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이끌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짐으로 개인에게 오는 유익은 바른 신앙의 형성과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영적 성숙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다음세대를 위해 그릇을 키우고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소그룹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갈 때 답을 찾게 될 것이다.

## 2.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공부 인도 : 진리로의 안내자

소그룹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일 것이다. 소그룹에 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 되어야 한다. 소그룹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에 대한 기준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공유한다는 것이다.

신국원은 니고데모를 통해 복음의 안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그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의 주검에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위기가 닥치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다.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

110)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76.

다. 이를 위해 다시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sup>111)</sup>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은 죄로 인해 자기의 의식과 논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안목을 고치며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 소그룹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신국원은 “존 칼빈(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목이며,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도 성경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아야(look at)할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통해 보아야(look through)할 책, 즉 안경이다”라고 했다.<sup>112)</sup>

월터스는 성경에 의한 세계관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세계관은 성경적일 때만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다른 모든 것(여론, 교육, 자녀양육, 대중매체 등 세계관 형성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강력한 문화적 요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이러한 요인들은 성경이 가지는 최상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공공연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와 신학, 개인적인 도덕의 영역 즉 문화와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역에만 제한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압력은 그 자체가 세속적인 세계관의 열매이며,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해야 한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대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은 바로 성경이다.<sup>113)</sup>

성경의 가르침은 노동, 사회집단, 교육과 같은 소위 세속적 문제들도 포함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범주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비종교적이라고 가정되는 이런 영역들은 서

111)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13-16.

112)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43.

113)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31-32.

구의 세속화된 세계관에 정복되고 말 것이다.<sup>114)</sup>

### 3. 성경적 세계관과 섬김 : 그리스도의 본을 보임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세계관은 보통 우리의 잠재 의식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오랫동안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소그룹 리더 교육이 성령을 따르는 삶, 충성된 삶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한 사람의 진정한 언행은 변하기 어렵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삶의 양식을 수정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는 삼년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라고 덧붙이셨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자처하셨고 허리를 구부려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다.<sup>115)</sup>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밑에서부터 위로 작용한다. 리더는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룹을 인도하게 된다. 리더로서 시간과 에너지와 수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룹 멤버들이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보상되고 제공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sup>116)</sup>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는 멤버들을 섬길 기회가 있다. 한밤중에 갑작스레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해 줄 수 도

114)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34.

115) Sikora,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59.

116) 빌립보서 2장 6-8절.

있고, 비록 하고 싶진 않지만 멤버의 아이를 봐줄 수도 있다. 시간이 없는데도 긴급 기도를 위해 모여야 할 때도 있다. 서로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기 때문에 멤버들은 성숙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sup>117)</sup>

### 제 3 절 세속적 세계관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 1. 교회안의 세속주의

세속주의(世俗主義, secularism)는 기구나 관습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관한 것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대해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이다.<sup>118)</sup>

중세시대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인간사(人間事)를 알보고 신과 내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휴머니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속주의가 나타났으며 이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와 자기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각지 시작했다. 세속주의 운동은 근대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왔으며, 보통 반(反)그리스도교적이거나 반종교적 성향을 띤 것으로 받아들여졌다.<sup>119)</sup>

현대 세속주의의 뿌리는 19세기와 20세기 유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속주의는 보이는 것의 실재를 궁극적인 물질로 보고 자연의 일치와 보이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교적으로 세속주의는 범신교 인데 그 교리는 신을 우주의 힘과 법에 동등시 한다. 모든 것이 신이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물질주의자인데 물질이 단 하나 혹은 기본적인 실체라는 교리이다. 그리고 현상들이 물질의 나타나는 것으로써 설명될 수

117) Sikora, 소그를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60.

118) 위키백과, “세속주의,” n.p. [cited 5 May 2012]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86%8D%EC%A3%BC%EC%9D%98>.

119) 한국브리태니커, “세속주의,” n.p. [cited 5 May 2012] Online: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1328a](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1328a).

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물질이다.<sup>120)</sup>

세속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지적인 종(種)의 동물로 본다. 인간은 하나의 기계, 복잡한 우주 속에서 톱니바퀴의 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과 자연 간에는 진정한 차이가 없다. 그러한 체계 안에서 종의 생존이 목적이다. 인간의 가치는 기능적인 조건하에서 세워진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원을 소모하는 입과 위로서 본다. 죽음은 인간 생존의 끝이다. 세속주의에서 역사는 판단기준도 목적의식도 없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는 모래시계로 상징되는 것일 뿐이다. 시간도 우주처럼 하나의 기계적 기능이다. 물질주의자들에게 시간의 초점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한 현재이다.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자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의 지도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도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 뒤처지지 말고 세련된 신앙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독교 가치체계를 정립해 나갔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반면 세상적인 것을 거부한 기독교인들도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은 너무나 완강하게 세상을 거부하고 성경의 근본만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의 복음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근본주의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근본이 정확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헬라적 영지주의로 치우쳐버렸다. 이렇다보니,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었고, 심지어 이성적이지 못한 신앙이 존경을 받게 되었다. 믿음, 신앙, 윤리, 헌신, 경배, 복음주의는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인식된 반면 이성, 과학, 사업, 경제, 법, 정치, 예술, 사회사업과 같은 현실 세계의 모든 활동은 저급하고 불경스러우며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다.<sup>121)</sup>

#### 가. 성경의 권위 약화

성경이 “모든 영역”에서 무오하다는 믿음,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치하던 점이었다. 이 믿음은 1900년부터 1930년대 사이에 자유주의가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과 신학교들을 침식할 때까지도 미국 내에

120)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1), 146.

121)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59.



서 유지되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친 후 많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전통적인 카톨릭의 성경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메이첸은 1930년대의 상황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입장으로 부분적으로는 진리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짓이 아니라 전부가 진리이며 축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는 성경은 “전체가 진리”라는 것과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역사적 원칙에서 이탈하는 것임을 말했다. 또한 칼 헨리(Carl Henry)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입장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의 반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견해였으며, 사도들의 견해였으며, 교부들의 견해였으며, 또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임을 말했다.<sup>122)</sup> 문제는 1970년대 자유주의자들이 교단들의 실무진과 신학교들을 점령한 것에서 초래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며 그를 알려 준다. 이 매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대면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sup>123)</sup>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infallibility)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다르게 창조된 것은 영적인 존재(창 2:7)로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계획들을 기록하여 놓으셨다. 이 세상과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육체적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절대적 윤리 기준은 과연 존재하며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인

122) James M. Boice, *성경의 무오설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20.

123) Alister E.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A Passion for Truth: the Intellectual Coherence of Evangelicalism)*, 김선일 역 (서울: IVP, 2001), 60.

본주의적 관점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다.<sup>124)</sup>

세상의 가치 체계에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근본적인 진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의견,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최고의 사상가에게서 나온 최고의 생각만을 모아 놓은 책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류한 말씀으로, 신앙과 실천에 있어 유일한 법칙이다.<sup>125)</sup>

#### 나. 십자가의 의미 상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이해하고 만다. 물론, 이 말일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 돌아가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만을 원하는 경향이 최근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이처럼 기독교가 협소한 범위의 종교 생활로 전락해 가고 있고 개인화되고 있다.<sup>126)</sup>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신앙을 항상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의 전체적인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윤리적인 뜻과 구원의 방식을 성경에 기록하신 계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가장 뚜렷이 목격할 수 있는 확대경을 갖지 못한다. 십자가 밑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찬란히 빛나는 곳에 서는 일이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곳에 서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에 서는 일은 어렵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적, 도덕적, 종교적인 자기교만을 굴복시키는 회생을 감수해야 한다.

십자가 밑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의 원천인 자아의 무죄성을 믿는 우리의 신념을 뉘우친다는 것이요, 도리어 자아의 타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 선다는 것

124)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94.

125) John MacArthur,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Why Believe the Bible?)*, 유자화 역 (고양: NCD, 2008), 9.

126)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62.

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추방한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높인다는 뜻이다. 십자가 밑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상습적인 자기 몰두가 고질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내리기 쉬운 낙관적인 평가보다 타락한 인생에 대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십자가 밑은 아무나 쉽게 설수 없는 곳이며, 여기에 서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드물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sup>127)</sup>

#### 다. 예배의 감격 상실

웹버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에서 뿌리내릴 때와 흡사하며, 초대교회 당시처럼 오늘날도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고, 점성술, 신비요법, 사탄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몰입하고, 무언가 소속감을 느끼기 원하는 현대인들은 뉴에이지 운동에 빠져들고, 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사탄의 힘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한다.<sup>128)</sup>

그 결과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비적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다. 만물은 상호 관련이 있고, 인간끼리는 더욱 관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들은 참여(participation)를 요구하고, 공동체 지향적(community-oriented)이고,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이며, 가시적인 것(visual)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sup>129)</sup>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포착해서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계몽주의적 관점이란 ‘세계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며, 세계는 이성적 탐구와 연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이다. 인간은 세상의 미래를 꾸며 나갈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인간이 만드는 선택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이성,’ ‘증거,’ ‘과학’인데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고 현대 서구 사상

127) David F. Wells, *윤리 실종: 세속화된 복음주의를 구하라 (Losing Our Virtue: Why the Church Must Recover Its Moral Vision)*,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9.

128) Robert E. Web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Blended Worship)*, 김세광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31.

129) Web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41.

을 주도해 온 자연주의를 묘사하는 말들이다. 기독교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도전에 대해서 계몽주의적 도구인 이성, 증거, 과학을 사용하여 대응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반초자연주의(antismatural)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 신화적인 부분들을 걷어 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으며, 이성주의적 사고와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 새롭게 틀을 만들었다.<sup>130)</sup>

자유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메시아적 희망의 성취, 세상과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의 피조물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본받고 닮아야 할 신사이며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적 속성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일 뿐이었다.

자유주의적 예배는 이런 반초자연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했다. 찬송, 성경, 기도, 설교, 성만찬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회중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예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중은 교회를 떠났다. 오늘날도 자유주의적 전통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배할 대상이 없어진다면 복음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sup>131)</sup>

갱신한 예배는 성경적 예배이다.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참여적 예배이다. 갱신적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에 스며들고 있는 새로운 역동적 세계관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회중의 매일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혁시키시는 힘을 포함한다.<sup>132)</sup>

## 2. 소그룹에서 극복해야 할 세속적 세계관들

### 가. 이신론(理神論, Deism)

이신론은 전통적 기독교에서 제시한 섭리, 예지, 의지, 운명에 대해 장황한 논쟁을 하던 이들이 신학과 철학의 혼란한 논쟁을 벗어나 어떤 지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욕구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성적 신이기에 그가 만든

130) Web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34.

131) Web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35.

132) Webber,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47.

우주도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라는 근거에서 우주의 형태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연구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상(image)을 질서 정연한 거대한 기계로 보았고, 이는 더 많은 탐구와 발견을 자극하였고 근대 과학을 탄생시켰다. 우주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이러한 방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동일한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도 적용되었다.<sup>133)</sup>

이런 세계관에 깊은 인상을 받은 17세기 신학자, 철학자들은 우주를 하나의 기계로 보려고 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지배와 지속적인 돌보심을 부정하는 사고다. 어느 소설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땅 위에서 조용히 살겠나이다”라는 식의 태도다.<sup>134)</sup>

이들의 우주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하여 제1원인인 초월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나 그 이후 스스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버려두셨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곧 태초에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시계태엽만 감아 놓고 뒷집 지고 보고만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재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한 인격도 아니시고, 인간사의 주권자도 아니시며, 섭리자도 아니라고 전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간과 분리시키고 인간은 소외된 존재로서 간주한다. 곧, 이신론은 초월적 신만을 인정하였을 뿐 그의 임재와 내재성을 부인함으로써 인해 인간에게 엄청난 고독감을 안겨 주게 되었다.

인간론에 있어서도 인간은 비록 인격체이지만, 우주라는 기계 중의 하나인 부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자기 결정력을 잃게 되고 인간의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석하였고, 윤리에 관해서는 우주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창조 시 정해졌기 때문에 역사는 직선적이고 재조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sup>135)</sup>

이신론의 문제는 윤리 면에서 타락하지 않은 정상적인 우주를 가정하여 우주의 자연적인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여 윤리의 독특한 내용은 설 땅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죄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만든 것으로 매우 심각한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133)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65.

134)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정*, 64.

135)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77.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재조정에 대해 단혀진 오직 법칙대로만 운행되는 결정론적 세계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키고, 인간의 인격과 존재의 중요성을 매우 삭감시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신국원은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의 주관자는 창조주 자신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주며,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는 바른 삶의 태도를 부여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즐기나 주무시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님을 깨우치는 설교의 단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6일 간 창조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다. 안식하셨을 뿐이다.<sup>136)</sup>

이신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법칙과 정교함의 이치를 너무 미화하고 신격화한 나머지 일반 계시만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한 철저히 경험론을 숭배하는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를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보는 안경을 통해 절대 표준화 시키고, 윤리개념을 사라지게 만듦으로 인해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에게 정직하지 못하며 일관성이 없는 개념임이 드러났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이신론은 주요 세계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나 이신론적 사고는 아직 전재를 남기고 있으며,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중간 발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 물리적 세계의 정교성, 무한한 변수들에 의해 유지되는 우주의 법칙들, 생물계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 등을 보면서 이러한 우주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막연한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매우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관점은 이신론의 안경을 쓴 예라고 할 수 있다.

#### 나.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

김무현은 이신론(理神論)은 유신론(有神論)과 자연주의(自然主義)라는 두 개의 큰

136)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경*, 64-65.

대륙을 연결하는 점이지대(漸移地帶)에 불과하지만, 자연주의는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또는 인격은 없지만 우주의 암시적 유지자로 보는 반면 자연주의에서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적 가치가 없는 이론적 실재로만 생각한다. 자연주의는 초월자를 배격하는 인본주의의 필연적 동반자로 본다.<sup>137)</sup>

자연주의는 첫째, 존재의 본질에 대해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에서 본질의 중심 요소가 하나님에서 우주로 옮겨가게 되었고, 실재는 화학과 물리학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 낼 수 있는 불변의 '법칙률'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주를 보는 관점에서 이신론과 유사한 사상 체계를 가지지만, 이신론과는 달리 사건의 발생순서와 그들의 의존관계 및 사물의 존재 양식 등이 고정 불변의 필연적 단계가 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고, 불확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셋째, 인간과 인격에 관해서는 인간은 하나의 복잡한 '기계'이고, 인격이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상호 관계라고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이해력은 순수한 신비가 아니고 기계의 복잡성에서 유래한 결과로 본다.

넷째, 죽음은 인격과 개체성의 완전한 소멸로 간주하며, 전인격이란 사회적, 물리적 상황 안에서 활동하는 생물학적 유기체의 작용이며, 인간의 존재란 사망 시에 소멸한다는 생각을 하여 인간을 덧없는 존재로써 규정한다.

다섯째, 역사는 인과율에 의해 연결된 사건의 직선적 연속이며, 전체적 목적성은 없다고 전제한다. 유신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천히 의도하신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목적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자연주의는 그 과정이 자율적이어서 단지 역사는 인간이 계속 존재할 때까지만 '지속'할 뿐이고 만일 인류가 소멸하면 자연의 역사만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sup>138)</sup>

자연주의 사상이 과학적 연구 방식과 교육 및 사회 분야에 아직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주의는 정직하고도 객관적이라는 인상과 함께 일관성이 있는 학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진화론'을 들 수 있다.

137)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78.

138)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79.

테로우는 다윈이 이것을 기초해서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론'임을 말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윈 이론을 배우고 있다. 이 이론이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세속적인 세계관이 유럽, 미국, 남미 그리고 한국에까지 확산되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믿고, 학술이나 예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신학교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잃게 만들었다.<sup>139)</sup>

하지만 지금은 자연주의 내부에도 서로간의 불일치를 노출하고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또한 것처럼 불분명한 기원 즉 진화의 기원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인간 스스로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야기 시키게 되어, 결국 허무주의와 진리의 상대주의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낳게 되었다.<sup>140)</sup>

#### 다.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

허무주의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감정으로써 모든 가치에 대한 부정이며, 자연주의의 필연적 산물인 극단의 무의미 상태이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이성의 힘을 과신하고 자연주의 혹은 과학주의가 낙관적 진보주의 및 테크노피아(technopia)를 외쳐왔지만 그 허상이 드러나면서 회의적이고 허무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현시대 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욱이 신의 존재를 전제한다 할지라도 이신론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우주 밖에서 태엽만 감아 놓고 뒷짐지고 있는 신이라면 곧 숙명론이나 회의주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연주의 사고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이성의 결과는 확신할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고, 우주의 폐쇄적 성질은 하나의 제한으로 느껴졌으며, 죽음이 소멸이라는 관념은 심리적 불안을 야기했고, 자연의 최고 산물로써 인간의 지위는 우주로부터 소외나 우주와의 연합으로 간주되었다.<sup>141)</sup>

인식론에 있어서 인간이 비인격적인 힘의 결과로 존재한다면, 즉 물질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작용한다면, 물질이 의식적 존재로 하여금 정확한 관찰과 옳은 전제에

139) Miller, *하나님 나라 가치*, 57.

140)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0.

141)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1.



기초한 참된 인식이나 논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되고, 도덕론에 있어서도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란 단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도덕적 당위를 느끼게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윤리의 최고 가치를 인간 생존의 유지에 둠으로써 윤리적 상대주의를 초래케 하였고, 절대적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연주의의 인간론과 인식론, 도덕론은 절대적 가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간에게 극도의 의미 상실을 안겨다 줌으로써 자연히 허무주의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과학주의 및 낙관적 진보주의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허무, 죽음, 무, 무의미, 절망 등이 지배하게 되며 어떠한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대주의로 귀결됨에 그 반성경적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허무주의는 결국 현시대 정신인 포스트모더니즘을 태동시켰다.<sup>142)</sup>

#### 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를 등에 업고 그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했던 모더니즘은 그 이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죄성 때문에 엄청난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이성과 노력만으로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없다는 혹독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더니즘, 과학주의, 이성주의의 낙관적 출발은 점점 회의적으로 결말이 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진리의 상대주의 및 허무주의, 회의주의적 성향이 강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현시대 정신을 산출하게 되었다.<sup>143)</sup>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성과 정해진 확실성 혹은 기반을 배제한 문화적 감성을 담은 그 무엇으로 이해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환영하며, 모든 인간 사고의 근본적인 '상황'(situatedness)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을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적 전체화에 맞선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sup>144)</sup>

142)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2.

143)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68.

144)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20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여러 가지 새로운 사고방식들을 한데 뭉뚱그려 놓은 것이다. 근대주의가 붕괴하고 이성적인 인간의 오만함을 강타한 것은 틀림없이 경축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결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낳은 두 쌍둥이가 있으니 하나는 도처에 만연해 있는 ‘진리 거절’과 다른 하나는 ‘회의주의 절대 환영’이라는 악동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멸한다.<sup>145)</sup>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면 “제 눈의 안경”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미(beauty)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옳고 그른 것은 또는 아름답거나 추한 것은 관찰하는 바로 그 사람의 보는 관점(perspective)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한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도덕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거부하고 그것의 상대성을 내세운다.<sup>146)</sup>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가 고정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독특하고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상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덕성과 죄책감을 인간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헛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를 늘 의심하는 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주의자들이다. 특히 그들은 진리를 명백한 명제적인 용어로 설명하기를 꺼려한다.<sup>147)</sup>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진리이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다(답후 2:13).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분의 인격과 의지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 인간의 마음과 의지와 지성은 모두가 믿음의 행위에서 동의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저 세상의 불신앙을 가장 최근 상황에 맞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미심쩍은 모호함-그것의 핵심 가치는 그 순수한 본질-을 순화한 회의주의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덕스럽거나 진짜로 겸손한 모습은 찾

145) John MacArthur, *진리전쟁: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진리를 가려내는 싸움 (The Truth War: Fighting for Certainty in an Age of Deception)*,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42.

146)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69.

147) MacArthur, *진리전쟁*, 43.

아볼 수 없다. 단순한 신적 계시에 대한 자만심 높은 반역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에 관해 망설인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한 자신감과 아주 대조적이다(엡 3:12). 복음 메시지란, 예수가 주이시며 그분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나아가 그분의 대사들로서 복음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라는 명령 또한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대사들이라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sup>14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철저한 상대주의적 입장은 성경의 절대성과 충돌한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므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며 교회를 공격했다. 이것이 모더니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진리를 주장할 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오. 당신은 틀렸소”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그건 당신의 진리지요. 나의 진리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진리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지난 40년 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주류 교회는 영적인 쇠퇴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sup>149)</sup>

크리스천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며, 관계에 있어서는 수용적, 포용적이어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적,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이 창조주께서 주신 절대적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여 영생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마. 뉴에이지

안점식은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지학회’(神智學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지학(Theosophy)은 희랍어의 ‘신’(theos)과 ‘지혜’(sophia)의 합성어이다. 신지학회는 독일계 러시아인 블라

148) MacAthur, *진리전쟁*, 56-57.

149)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89.

밋스키(H.P. Blavatsky 1831-1891)부인이 올cott(H.S. Olcott)대령 등과 함께 1875년 미국의 뉴욕에서 창립했다. 신지학회의 3대 회장인 앨리스 베일리(Alice Bailey 1880-1949)는 뉴에이지 운동의 실질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녀는 영국 출신의 여자 영매(靈媒)였는데, 그가 신접(神接)하여 받은 내용들이 비밀 원리로서 많은 문서에 남아 있고, 오늘날까지도 뉴에이지 운동의 지침이 되고 있다. 신지학은 윤회, 카르마 등 인도 사상의 핵심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에테르, 진동, 초능력, 영혼의 진화 등 인도 사상에 속하는 관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지학에서는 윤회와 환생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점차로 순수해져 간다는 영혼진화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지학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다시 동물 등으로 환생하는 퇴화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영혼의 진화가 늦어진다고 주장한다. 신지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끝에는 신(神)이 있다. 인간은 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멘탈체를 획득함으로써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sup>150)</sup>

뉴에이지 운동의 세계관은 범신론적 동일철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범아일여’(梵我一如)<sup>151)</sup>사상은 동일철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철학의 특징은 현상계의 차별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만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동일철학에서는 인간이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전 우주 안에서 모든 다른 존재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혹은 우주와 동일화되는 것이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뉴에이지 사상에서도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 혹은 원리가 세계의 모든 사물에 편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고, 또 현상계의 다양함을 동일화시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 편재한 궁극적 실재가 곧 신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바로 범신론이 된다. 뉴에이지 사상은 동일철학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에, 불교의 ‘공’(空)이나 장자의 ‘천균’(天均)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립하는 사물들의 대립성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뉴에이지 사상에는 선악의 구별도 없으며 ‘죄’라는 관념도 없다. 뉴에이지 사상은 ‘죄’라는 개념 대신 ‘무지’(無知)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죄 문제의 해결 없이도 구원

150) 안점식, *세계관과 영적전쟁*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1), 199-200.

151) 인도 우파니샤드(Upanisad)의 중심 사상으로, 우주의 중심 생명인 범(梵)과 개인의 중심 생명인 아(我)의 본체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사상.

이 가능하다.

뉴에이지 사상에 있어서 구원은 '인간이 곧 신'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카르마와 윤회, 인과응보와 같은 자연주의적 인과율의 개념을 철저히 지지한다. 이러한 도덕적 인과율 사상은 곧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거기에는 대속이나 은혜의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뉴에이지 사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엄격한 인과율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을 부정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도덕적(道德的) 행위나 수행적(修行的) 행위에 의한 구원일 뿐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모든 분야에서 '통일'과 '통합'을 추구한다.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하나'라는 신조 아래 종교의 통합을 꿈꾸고 있으며, 동양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상들을 포용하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반성경적 메시지이다. 인간이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우주의 궁극적 실재와 합일시켰을 때 곧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소우주로서 대우주의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 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시대를 '물병좌(Aquarius)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점성술에서 말하는 황도(黃道)12궁의 이름에서 빌려 온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에게 신적 잠재력이 내재해 있으며 이 잠재된 초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은 윤회 사상에 입각하여 소위 심령술과 신점술을 행하며 심지어 사단 숭배도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사상은 UFO나 우주인설도 수용하고 있다.<sup>152)</sup>

현대 사회는 무신론(진화론)과 인본주의(사람들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음)와 진리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대정신을 이루고 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진화론적 세계관, 세속주의, 배금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및 타락된 윤리의식들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시되어 우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주의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삭감해 버리고, 인간 그 자신의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

152) 안점식, *세계관과 영적전쟁*, 200-202.

만심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과학(자연)주의는 초월자의 창조 및 주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인본주의와 항상 보조를 같이 해 왔다.<sup>153)</sup>

전통적 기독교는 현실 문제와 사회문제 그리고 학문과 문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였기 때문에 진화론과 인본주의적 정신 및 학문에 이 영역의 많은 부분을 내어 주었다. 이러한 세속화된 세계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전인격과 전생활의 영역이 예수님을 향하여 놓여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갖고, 성경적으로 조망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소그룹의 리더는 과학, 문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전 생활과 사고의 틀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세상과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그 빛 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을 통한 확고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된다.

---

153)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70-71.

## 제 4 장

## 두날개 양육시스템과 제자훈련의 분석 및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그룹 리더는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속적 관점이 신앙생활에 적당히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와 삶에서 세속적 관점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보편적인 양육프로그램은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과 풍성한 교회의 두날개 양육 시스템이다.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과 풍성한 교회의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비교해 보고, 특히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의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보완하여, 세속주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맡겨진 소그룹 멤버들을 세워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훈련 분석

## 1. 두날개 양육시스템(D12)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에 의해서 개발된 양육시스템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번식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유기적 세포조직 시스템(organic cellular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목회자가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12제자를 세우는 이른바 G12<sup>154)</sup>와 같은 포맷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직

154)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G-12 이야기에서 G-12모델은 셀그룹 번식에 초점을 맞춘다. G-12소그룹 모델은 콜롬비아의 ICM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자르 카스테야노스목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G-12란 “12명의 양육시스템”(Government of 12 System)을 가리킨다. G-12소그룹의 목표는 12명의 리더훈련그룹에서 훈련과정에 있는 12명이 각각 12개의

업을 가진 평신도들이 12명의 셀리더를 세우기란 힘들기 때문에 4명씩 세워 나가도록 했다. 이것은 랄프 네이버의 G4모델과 같은 포맷이다. 그래서 김성곤목사는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D12.4버전”이라 한다.<sup>155)</sup>



표 2 두날개양육시스템

김성곤은 두날개 양육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길,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6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전도이다. 성경적인 소그룹 전도전략인 열린모임은 3-4명이 팀을 이루어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가는 성경적인 소그룹 침투방법이다. 이것은 주님(마 28:18-20)과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행 16:4)이었으며,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대안이다. 전도소그룹 열린모임은 12주로 진행되며 개인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팀전도이며 각 직장, 대학 병원, 가정에서 관계를 맺어 전도하는 소그룹 전도법으로 마지막 시대 탁월한 전도 전략이다.

2단계 정착이다.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도우미를 새가족섬김이라 하며,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3주간 이루어지며, 4주째는 새가족반에서 담임목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이 소개된다.

3단계 양육이다. 양육반은 총12주 과정으로 내면의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하는 1일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통해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양육의 기쁨에는 구원의 확

셀그룹을 개척하여 인도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155) 김성곤, *독수리처럼 날다* (서울: 두날개, 2007), 164.



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묵상의 시간등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성령세계(충만)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양육과정이다.

4단계 제자훈련이다. 제자대학은 거듭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군사로 길러내는 신앙의 사관학교이다. 제자훈련은 제자대학 1학기를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제자로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이며 제자대학 1학기 과정을 마치면 열린모임 인도자로 세워진다.

5단계 군사훈련이다. 군사훈련은 자신의 신분이 군사임을 자각하는 시간이다. 군사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다. 군사의 제 일되는 원칙은 순종이다. 아니 순종을 넘어선 복종이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군사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다. 부르신 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부르신 자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러한 강력한 군사를 통하여 세계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2학기 과정에서는 군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린 모임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6단계 재생산훈련이다. 제자대학 3학기 재생산훈련은 재생산 사역자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셀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그룹이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역을 훈련 받고 가정, 직장, 캠퍼스 등 각 삶의 현장으로 파송 받아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사역과 삶을 살도록 하는, 바로 재생산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sup>156)</sup>

## 2.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강점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산 풍성한 교회가 역사나 교회규모에 비해서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풍성한교회의 두날개 컨퍼런스에 참여한 교회가 36개국 14,000여 교회에 이르고 일 년 동안 여

156)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두날개, 2011), 77-84.

섯 차례에 걸친 집중훈련에 참여하여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국내외 5,500여 교회에 이른다. 한국교회의 수가 5만 교회로 추산할 때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적용하는 교회가 10퍼센트가 넘는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운동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것은 교회 성장에서 열매보다는 뿌리에, 양보다는 질에, 성장보다는 건강에 관심을 두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는 성장 본질에 대한 도전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발견과 강력한 영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확실한 비전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다.<sup>157)</sup>

#### 가. 탁월한 영적리더십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소그룹의 여러 유형 가운데 강점들을 택하여 한국교회 현장에 잘 적용한 성공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날개 시스템에 김성곤 목사라는 열정적인 복음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성곤牧사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의 확신은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현장에서 경험한 기사와 표적들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막 16:17-18; 눅 10:17) 21세기 사역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과정에서 대부분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의 성품이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속에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헌신케 하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영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157)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핸드북 카드* (서울: 두날개, 2010), 7-9.

#### 나. 공유되는 목회철학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체 전체가 모두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사역철학을 확실하게 공유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고전 1:10)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양육시스템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도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로버트 콜만은 *주님의 전도계획*에서, “예수님이 제자훈련에 성공하신 것은 명강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58)</sup> 목회자가 상명하복의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적인 돌봄 사역을 했을 때 따르는 자들은 헌신자로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소그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이 증명되는 곳마다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의 간증이 많이 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 소그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복음만큼 열전도율이 높은 것은 없다. 복음은 가장 탁월한 열전도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롬 1:16)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이동간에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1세기의 뜨거운 복음이 21세기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전달될 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게 된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파워는 결국 말씀의 파워이다.

158)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90.

### 라. 전도 소그룹을 통한 영적 재생산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열린 모임과 같은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것은 재생산이다. 두날개 양육체계의 마지막 과정이 재생산훈련과정이다. 풍성한교회에서는 날마다 전도하고, 12주마다 열린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전도를 실시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이비어교회」를 소개한 유성준 교수는 “훈련 없는 제자는 없다”고 말했다.<sup>159)</sup> 풍성한 교회에서도 이에 못지않다. 김성곤 목사는 열린모임에 열매 없는 리더들은 “암세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초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sup>160)</sup>

### 3.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비평적 평가

두날개 양육시스템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양육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려면 더욱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두날개 양육모델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가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사역하는 좋은 모델이지만 역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곧 비전과 사명이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과 행사는 이 목적에 의해 기획되어야 한다.

### 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건강한 평가 작업의 필요

두날개 양육시스템으로 세워진 풍성한교회는 자연적교회성장(NCD) 평가사상 최고점을 받은 교회로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수식어가 따라왔다. NCD의 공신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평가결과는 언제나 평가방법에 달려있다. 과연 다른 평가기준으로 평가해도 풍성한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가 나올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의 평가로 교회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 분석하여 질적 특성이나 성장요인을 찾아서

159)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2005), 53.

160)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73.

적용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학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네 가지 속성을 언급해야 한다. 주후 325년 니케아공회에서 작성한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고백했다.<sup>161)</sup>

니케아신경은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고백한 것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 이 네가지 속성을 말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야 하고,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있어야 하고, 지역이나 구성원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세상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이 네가지 토대위에 세워져야 한다.<sup>162)</sup>

마찬가지로 두날개 양육시스템도 사명선언문과 8대 핵심가치를 세워 놓고 있다. 이 8대 핵심가치는 NCD의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과 동일하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8대 핵심가치는 필요 중심적 전도,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나되는 교제, 전인적인 셀가족 모임, 열정적인 영성, 2만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은사 중심적 사역, 세계비전 2천선교이다.<sup>163)</sup>

#### 나. 복잡한 양육시스템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양육훈련과정이 복잡하지 않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양육훈련 과정은 전도-정착-양육-제자훈련-군사훈련-재생산훈련의 여섯 단계의 과정이다. 세렌티피티 소그룹모델의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나, 새들백 교회의 네 단계 양육시스템에 비교할 때 양육훈련 과정이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인위적인 시스템에 항상 불편해한다. 복잡한 시스템은 시스템

161)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Arius)이단을 정죄한 니케아 공회(Council of Nicaea)에서 작성되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5년 니케아에서 공회를 개최하여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니케아신경을 작성한 것이다.

162)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75.

163)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핸드북 카드*, 12.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두날개 양육체계는 여섯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6단계에는 각각 수양회, 각종 세미나, 제자대학, 중보기도학교와 같은 다양한 하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수님의 소그룹에는 외형적인 일관된 양육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소그룹은 겉보기로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았다. 훈련을 위한 시간 장소도 항상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소위 “열려진”제자 훈련이었다. 예수님의 소그룹은 양육훈련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었다고 할 때, 작금의 소그룹은 대부분이 “훈련 소그룹”의 개념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양육훈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많은 훈련기간과 더 많은 훈련내용이 필요하다고 강박관념에 가까운 생각을 하기 쉽다. 능력의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을 직접 3년씩이나 훈련하셨는데 스승 되신 예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배웠다고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훈련무용론이 아니라 더 단순화하고 더 슬림화하고 “삶을 나누는 훈련”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말이다.<sup>164)</sup>

#### 다. 영적 재생산에 고정시키는 양육시스템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목표를 영적재생산에 고정시킨다. 이 모델은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과정을 거쳐서 리더로 세워지고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양육 훈련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소그룹사역의 일차목표는 소그룹이 교제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은 양육과 훈련이고, 그 다음은 소그룹이 섬김과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마지막 양육훈련단계는 재생산이다. 재생산은 소그룹의 백미요 결론과도 같다. 역동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영적 재생산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다단계의 양육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초기단계 성도들에게 영적 재생산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 강권해야할 일이지만 영

16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77.

적 재생산이 없는 교인은 교회에 “암세포”와 같은 존재라고 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 전도생활에 조금 미흡해도 다른 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sup>165)</sup>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양육시스템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날개를 달지 못할”수도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역을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 꼭 두날개 양육시스템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임상을 거쳐 정립한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분명 가시적인 변화를 목말라하는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1세기의 역동적인 복음을 21세기에서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은 것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1세기와 같은 복음전도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sup>166)</sup>

## 제 2 절 제자훈련 모델의 훈련 분석

### 1. 제자훈련 모델

제자훈련의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대위임령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자훈련은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을 때 까지 훈련시킨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훈련과정이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모델에서 지도자는 하나의 멘토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재탄생시켜 지도자의

165)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78.

166)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80.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다. 제자훈련 소그룹은 아주 헌신된 자들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를 만들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167)</sup>

## 2. 제자훈련 교회의 강점

사랑의교회는 옥함흠 목사가 1978년 강남구에 은평교회를 개척한 이후 1981년 은평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개명하여 제자훈련을 중심한 교회로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 사랑의 교회의 3대 설립목적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 정했다. 옥함흠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1984년 출간된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 사역의 결정체로서 그간 선교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제자훈련을 교회현실에 접목시켜 한국교회에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목회모형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 가. 평신도를 깨워 사역자로 세움

제자훈련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잠들어있던 평신도들을 깨워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빌 헐(Bill Hull)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 준 것이라면, 두 번째의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 있던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했다.<sup>168)</sup> 제자훈련은 빌 헐이 말한 바와 같이 혁신적인 목회리더십이다. 제자훈련 소그룹모형은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고, 훈련된 그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탁월한 목회 리더십 모델이다.

제자훈련을 평가할 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자훈련이라는 소그룹모형이 1990년대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되어가면서 교회성장의 대안으로 소개된 소그룹모형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교회의 본질로서 한국교회에서 개발된 평신도리더십 훈련사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사역은 하나의

167)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00.

168) 옥함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37.



프로그램이 아니라 분명한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역인 것이다.<sup>169)</sup>

#### 나. 목표는 한 사람의 변화

제자훈련사역은 소그룹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소그룹의 핵심가치라고 말하는 생산과 같은 기능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한 사람의 변화에 소그룹의 목표를 둔다는 점이 강점이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8)라는 말씀은 한사람의 가치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제자훈련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불가사리 이야기”를 소개한다.

한 나그네가 해변 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 어떤 젊은이가 모래 위에서 무엇인가를 집어서 바닷물 속에 던져 넣는 모습을 보았다.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모래 위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starfish)떼가 파도에 밀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채 뜨거운 태양아래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불가사리를 한 마리 씩 연신 바닷물 속에 던져 넣고 있었던 것이다.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다. “여기에는 수천의 불가사리 떼가 있는데 언제 이 많은 불가사리 떼를 다 물속에 넣어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다. 젊은이가 미소를 머금은 채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집어 바닷물 속에 던지면서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속에 던지는 이 불가사리는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수천마리의 불가사리 떼가 작열하는 태양아래 백사장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씩이라도 바닷물 속에 던져 넣어준 그 젊은이의 행동이 분명 옳은 것이다. 우리가 단번에 세상의 사람을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일이 중요하다.<sup>170)</sup>

예수님께서 열둘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간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하셔서 파송하신 것처럼 소그룹인도자로 파송하기 까지 삶을 같이 나누는 제자훈련과정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을 양육 훈련해 낼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제자로 사역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169)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03.

170)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04.

끼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전략도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셨다. 제자훈련모델은 소수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 3. 제자훈련 모델의 비평적 평가

한국교회에서 선교단체의 전유물과 같았던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 정착되어 대형교회로 성장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사역은 한국교회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건강한 사역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한국교회에 끼치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양극화현상에 대한 경계심

사랑의교회 제자훈련모델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의 모델교회인 사랑의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소위 기를 펴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할 정도라 한다. 그만큼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지만,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제자 훈련 시스템에서도 교회가 제자훈련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보이지 않게 이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20 혹은 30 퍼센트의 창조적인 소수의 평신도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소위 “엘리트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 안에 또 다른 모습의 양극화를 낳게 된다. 물론 사랑의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을 구비하고 있겠지만 제자훈련사역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나. 이해와 공감의 우선되는 소그룹

제자훈련모델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소그룹모델이지만, 완전한 소그룹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부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사

역에 소위 “성령사역”을 병행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혹은 제자훈련사역과 함께 셀모텔이나 알파코스과 같은 다른 소그룹 모델을 병행하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차제에 제자훈련모델을 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수정보완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자훈련과 함께 개교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소그룹모델들을 소개하고 지침을 제시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소그룹은 한 마디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다. 즉, 소그룹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소그룹은 루터의 말대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 역시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sup>156)</sup> 건강한 소그룹은 사무적인 일을 실행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적인 일만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는 곳이다. 대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을 쉽게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가 있다. 소그룹은 작은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정한 영혼 돌봄의 사역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그룹은 그곳에 속한 멤버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는 곳이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소그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꼭 물질적인 해결이 아닐지라도 소그룹에서 어려움을 겪는 멤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는 것만 해도 그에게 소그룹은 늘 고마운 곳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sup>157)</sup>

#### 다. 정립되어야 할 교회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인 유기체인 공동체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가톨릭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따라 ‘하나됨, 거룩함, 가톨릭성, 사도성’을 말했다. 곧 교회는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적인 조건에서

156)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25.

157)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26.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 교회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에서 찾았다. 한스 쾅(Hans Kung)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성령의 집이라고 말했다.<sup>173)</sup>

제자훈련에서 중요시 하는 것이 교회론이다.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도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훈련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모순되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광륜은 선교 단체에서 이루어진 제자훈련의 부정적 측면 중 첫 번째가 “한 개인이 한 개인을 훈련할 경우 ‘내 사람,’ ‘내 팀’이라는 의식이 강해져서 타인과 타 그룹과의 협조가 잘 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74)</sup> 이것이 선교 단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옥한흠 목사는 분파 형성의 가능성과 공중 예배를 등한히 여길 위험성을 지적했다.<sup>175)</sup>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One Holy Catholic Apostolic) 보통 이 네 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훈련모델 교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싶다. 제자훈련으로 성장하고, 훈련 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특수한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가 주의 피 값으로 세워졌다면 어떠한 교회라도 다같이 “보편적인 교회”이다.<sup>176)</sup>

제자훈련은 훈련된 소수가 대중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제자들도 섬김을 다하는 자로 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섬기려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신성종 목사는 교회가 변해야 할 모습을 여덟 가지로 요약했다.<sup>177)</sup>

첫째, 모으는 교회에서 흠어지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 소단위 가정 중심, 직장 중심의 교회로 변화하여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 교회가 먼저 베푸는 일에 본을

173) Hans Kung, *교회 (Die Kirche)*,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28.

174) 김광륜, “학원 선교를 위한 지도력 개발,” *기독교 사상*, 1983년 3월호, 164.

17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5), 310.

176)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07.

177) 신성종, “변혁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회와 신학*, 1994년 9월호, 299.

보여야 한다.

셋째, 목사 활동 중심의 단세포적인 교회, 권위적인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 교회, 섬기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 교회는 평신도 운동을 통해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넷째, 고백적 신앙에서 생활 중심이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 문화가 창조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문화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목사부터 변해야 한다.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고 강조한다.

일곱째, 선교 정책이 변해야 한다. 자기 과시적 선교를 지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치유 목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하고, 가난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 여덟 가지 내용은 교회론에 대해 부족하거나 무관심했던 제자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케 하는 일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떻게 섬길까?”라는 생각 보다는 “이제 누구를 가르칠까?”라는 생각이 앞서 간다면 그것은 변질된 제자훈련 모델이 될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는”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기보다, 사람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섬기는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소그룹 리더 훈련의 한계점

두날개 양육시스템이나, 제자훈련 모델이 추구하는 훈련목표가 있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열매 중심적, 결과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훈련 과정 중에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빈약한 부분은 바로 소그룹 리더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그룹 리더와 관련해서 보충되어야 할 성경의 체계적 훈련, 창조신앙과 구속사적 관점, 세속적 세계관의 대응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러한 주제들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그룹 사역 즉, 두날개 양육시스템과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들에서 많은 부분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소그룹 리더 양육 시스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무엇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시가 필요하다.

성경적 세계관을 소그룹 사역에 접목시킴에 있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교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충성된 신자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방향은 예배를 포함한 교회 안의 사역들과 복음 증거에 집중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의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 유신론적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자에게 복음과 교회생활 및 성령 충만한 삶을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 유신론적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화적 풍토에서 교육받지 못했다. 특별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적 세계관과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한 교육과 문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수많은 해석체계의 파편들을 표면화 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통전적인 핵심 교리들을 바탕으로 훈련을 시킬지라도 여러 렌즈를 바꿔 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 1. 성경의 체계적 훈련 부재

우리의 삶이 주의 영과 악한 영의 전쟁터이듯이 학교,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 안도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전쟁터이다.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가 창조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관을 제시해 나가지 못할 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헛된 철학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성경

적 가치관과 세속적 대중적 가치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불변하는 성경과 시대를 따라 바뀌는 가치관, 이러한 대조는 신앙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문제들이다.

#### 가. 성경에 대한 확실성 부족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참 계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나, 가치의 절대적 준거점이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이 범람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진화론은 불신 과학자들의 상상 속에서 정립된 허구로 가득한 과학적 가설, 추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그 영향력을 펴고 있다. 한편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진화론의 영향력을 간과한 채 “창조와 진화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책이니만큼 기원에 관한 논쟁이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는 중요하다. 소그룹 리더의 성경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를 알려 주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언약으로 갈라디아에 성도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그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another gospel)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였고, 그 ”다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외에 세상의 철학들과 타협한 다른 것들을 크리스천들의 신앙에 첨가 및 변개를 해왔다.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리더가 깨우치도록 도와야 하겠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과 성경이 삶에 우선되는 권위를 갖는 데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 나. 인간 위주의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성경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도 이미 예외는 아니다. 동성 연애, 음란 문화, 낙태, 안락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들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등장은 아마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중세의 타락한 교권의 남용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이 표출되면서 과학과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인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주의 존재와 계시를 부정하고 자연주의에 기초한 인간 이성의 바벨탑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 한 '인간 위주의 생각'이 인간 자체와 피조세계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다르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관과 사상의 흐름이 중세를 거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확고한 창조신앙의 부족

현대는 참으로 도전의 시대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기독교를 멀리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동성연애, 필요하면 아무 때나 행하는 낙태, 정권에 대한 불복종, 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 이혼, 나체주의, 호색 문화 및 영화, 무법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전세계에 팽배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려면 사람들이 비판적이 되고, 복음에 대하여 문을 닫는 것일까?

유물론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이라는 기초 자체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메시지이다. 창조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재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sup>178)</sup> 교회는 소그룹 리더에게 확고한 창조신앙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든든한 뿌리가 바로 창조신앙이기 때문이다. 소그룹 리더에게 완전한 창조,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는 완전한 창조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 것도 없는 무(無)로부터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다. 사람과 동물은 모두 채식을 했고,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온화했으며, 영양분이 많이 담긴 이상적인 지하수가 있었고, 어디서든 폭풍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sup>179)</sup>

둘째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계에서 더 이상 살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우위에 두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쟁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처음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다.

다윈(Charles Darwin)은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투쟁을 “자연선택”이라 부르면서 창조주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론을 내놓았다. 진화론자들은 유전현상 내에서의 우연한 변화, 즉 돌연변이 현상을 자신들의 학설에 덧붙였다. 그렇지만 죽음과 우연은 결코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못하며,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질병, 결함, 죽음, 쇠퇴 등만을 가져올 뿐이다. 인류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지구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계를 멸망시키고 방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 홍수로 인해 세계 도처로 운반되어 쌓여진 암석층에 매몰된 수십억 사체의 화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다.<sup>180)</sup>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을 우위에 놓는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온 세계가 다시

178) Kenneth A. Ham,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The Lie Evolution)*, 정동수, 유상수 역 (서울: 두루마리, 1999), 16.

179) Ham,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51.

180) Ham,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52.

한 번 폭력, 부패, 죽음 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이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기록하지 못한 이 세상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멸이 없을 것이다.<sup>181)</sup>

### 3.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대응 부재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르는 기독교는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 윤리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기권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단 두 가지 사회관만이 있을 뿐이며, 이것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하고 있다.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영적 대 전쟁”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전쟁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sup>182)</sup>

크리스천 안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오해가 팽배하다. 성경적 세계관은 철학적 담론에 불과하며 지적 유희를 즐기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그 자체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신앙인의 삶 그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한 개인의 전 사고 체계와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83)</sup> 창조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계시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 세계관, 윤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신앙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신앙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며 흔들릴 수 없는 기초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181) Ham,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53.

182) Ham,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26.

183) 김무현,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9.

성경적 세계관의 확립의 토대위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그룹 리더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에서는 소그룹리더가 가져야 할 성경적 통찰을 정리하고자 한다.

## 제 5 장

### 소그룹 리더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구성을 다룸으로써 각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 또한 성경적 세계관 8주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을 기술한다.

#### 제 1 절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 1. 필요성과 목표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은 우리가 몸담을 수 있는 토대로서 작용하는데, 명쾌하게 표현되는 이야기의 형태보다 우리가 보이는 언행을 통해 드러나며,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는 것에 주목했다.<sup>184)</sup>

머릿속에서 정리된 입장 표명의 형식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세계관이 감춰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 방식을 깊이 성찰하고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영적 지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민족적 전통, 사회적 분위기, 가문의 습관, 시대에 흐르고 있는 여러 사상들 그리고 개인적 경험과 편견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독특한 일련의 전제들과 근본적인 지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성경과 전통 기독교 유신론에 비추어 직면해보지 않는 한 자신이 가진 신앙의 동기과 내용 및 목적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자칫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성경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이원론적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 삶의 한

184)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25.

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속적 관점에 물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구체적인 내용을 삶과 말로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교회의 무능력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라(딤후 4:7)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전인격과 전생활의 영역이 예수님을 향하여 놓여진다는 말이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갖고, 성경적으로 조망되는 삶을 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문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전 생활과 사교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감과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세상과 자신의 활동 분야에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만 할 것이다.<sup>185)</sup>

싸이어는 세계관은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이 되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에 대하여 둘째, 외부의 실재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에 대하여 셋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넷째,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다섯째, 지식이 가능한 까닭에 대하여 여섯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곱째,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실질적이며 이성적으로 타당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sup>186)</sup>

즉, 오직 성경만이 삶과 사상과 피조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온전한 세계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경의 진리를 통해 모든 실재와 인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근본적 지향성과 토대가 우리의 행위로 분명히 연결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신 32:47)고 하였고, 잠언을 통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강조하셨다. 이에 성경적 세계관 훈련은 진리의 터와 기둥(딤후 3:15)인 교회가 말씀의 교훈에 굳게 세워지도록 하고, 그리스도인 각자 마음의 근원을 말씀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진리의 터 위에서 훈련된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

185)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73.

186)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26-27.

는 인생의 목적과 복음을 증거 하는 내적 동기를 충만하게 하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교회의 소그룹 리더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여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섬길 때, 성경이 교훈하는 바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본이 되게 할 것이다. 더불어 교회 밖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순결한 진리를 지키면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토대를 세울 것이다.

## 2. 프로그램의 구성

성경적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은 8주 과정으로,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일대일 양육과정을 마치고, 제자훈련에 들어가지 전의 예비 리더들이다. 그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의 차이점을 분별하는 리더를 필요로 하며, 리더는 반드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철저한 신앙고백을 가져야 한다. 리더가 가르침과 과제 부여 및 과제 점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훈련자 각자의 세계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깊이 있고 적극적인 토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각 과는 ‘마음을 여는 글’로 시작하여 구성원들이 평소 각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 포스트’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함께 생각하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관점을 직면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 각 주제와 관련된 의문들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토의와 적용’ 문제로 마치게 된다.

구성에 있어 핵심은 성경의 66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인류의 참된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그 속에서 죄인 된 자신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 분의 유일한 계시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의 방향과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깨닫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8가지 주제를 선별하였는데, 각 과의 주제와 목표는 아래와 같다.

과	주 제	목 표
1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성경적 세계관의 구성인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경,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inerrancy)임을 고백할 수 있다.
3	창조와 진화 : 두 세계관의 싸움	진화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경적 창조만이 만물의 시작에 대한 참된 설명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고백할 수 있다.
4	타락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피조세계가 그로 인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부패의 상태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
5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인가?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으로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임을 바라볼 수 있다.
6	역사적인 일곱 개의 C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주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일곱 개의 C사건이란, 창조(Creation), 타락(Corruption), 대격변(Catastrophe), 혼란(Confusion), 그리스도(Christ), 십자가(Cross), 성취(Consummation)를 말한다.
7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무의미와 공허, 경쟁

	예수 그리스도	과 불안, 미움과 다툼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8	포스트모더니즘 부수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 창조주가 계시며, 창조주가 계시하여 주신 참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성경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아무리 현대의 사회와 문화가 다원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지라도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터임을 고백할 수 있다.

표 3 프로그램의 8가지 주제

## 제 2 절 성경적 세계관 8주 프로그램의 운영

이 프로그램은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개념을 1과로 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창조에서는 2과 성경,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3과 창조와 진화 : 두 세계관의 싸움을 다룬다. 타락에서는 4과 타락, 5과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인가?를 다룬다. 구속에서는 6과 역사적인 7개의 C사건들, 7과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극복해야 할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의 차이점을 분별하는 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는 담임목회자가 어려울 경우, 담임목회자와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장로 및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인도자는 반드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철저한 신앙고백을 가져야 한다. 매 과를 진행함에 앞서 인도자는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행 매뉴얼을 참고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인도자는 가르침과 과제 부여 및 과제 점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자 개개인의 세계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훈련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인도한다.

또한, 인도자의 진행에 있어 핵심은 진리를 먼저 입고, 그 다음 비성경적인 관점



을 벗는 것으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비성경적 또는 반성경적인 사상과 각자의 편견들을 먼저 다루다보면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 포스트'에 주어진 성경구절들을 충분히 예습해오고, 또 함께 읽어야 하며, 그 의미를 잘 깨닫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성경적인 토대를 먼저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함께 생각하기'와 '토의와 적용'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세계관을 벗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매 과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과의 목표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뼈대가 되는 주제를 말해준다.

둘째, 찬양이다. 주제에 맞게 2곡을 실었다. 선곡은 소그룹의 상황이나 인도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셋째, 마음을 여는 글이다. 과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 목회자, 과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함께 읽고, 잠시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한다.

넷째, 성경 포스트다. 이곳은 목표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을 찾아서 읽는 곳이다. 각 구절이 교훈하는 바를 짧은 어구로 정리하는 노트를 마련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인도자는 매주 1-2절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준다.

다섯째, 함께 생각하기이다. 인도자는 위의 질문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훈련생들의 세계관, 신앙의 갈등, 사회적 문제, 심리적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나눔 속에서 좋은 관점들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눔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인도자의 지속적인 견인이 필요하다.

여섯째, 토의 및 적용이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며 사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인도자는 2-3명씩 나누어서 소그룹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한다.

일곱째, 부록이다. 이곳에는 함께 생각하기와 토의 및 적용에 대한 답안을 기술해 놓았다. 인도자는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 사용하면 된다.

### 제 3 절 성경적 세계관 8주 프로그램의 실제

#### 1.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목표: 성경적 세계관의 구성인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찬양: 창조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 ● 마음을 여는 글

\* 세속적 구조 틀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속적 역사와 일치하는 세계관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신이 사람은 단지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낙태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세기가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두 명의 남자 또는 두명의 여자)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론에 기초하여 성경의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도덕성에 관한 말씀도 재해석하려 할 것이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하나의 전쟁이 있어 왔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11:3).

(캔 햄, <http://www.creation.or.kr/library>)

\* 한 사람의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그의 매일의 결정과 행동을 조정하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하고 믿는 것들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안경의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Charles Colson-

#### ● 성경 포스트

\*골로새서 1장 16절 /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로마서 1장 18-32절 / 타락으로 인한 죄들

(롬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6-11절 /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빌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 함께 생각하기

1. 모든 세계관 성립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2.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3.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4. 로마서 1장 18-32절을 정독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 1) 무엇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 2)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 3) 무엇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고 섬긴다고 했습니까?
  - 4)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주신 근원적 명령은 무엇입니까?(창1:28; 고후 10:5). 구속의 의미를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시키는 것과, 삶의 현장과 문화의 구속에 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 ● 토의 및 적용

1. 성경적 세계관 정립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배, 사랑, 사용의 대상을 구분해 봅시다.
3.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보다 풍부하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 2. 성경,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목표: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inerrancy)임을 고백할 수 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 ● 마음을 여는 글

\* 사람들은 누구나 지구라는 별에 갇혀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끝없는 우주에 에워싸여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궁극적인 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고하신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쓴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의 고안물인 종교가 생겨났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 성경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이 친히 공식적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중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우리의 본분과 그 권리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중략).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백 퍼센트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남겨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와 같은 성경의 권위를 “오직 성경”(Sola Scripture)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레잇 앤더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가*, 25-26)

### ● 성경 포스트

\*신명기 18장 15-22절 /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

(신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

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복음 24장 44-47절, 요한복음 5장 39, 46-47절 / 성경의 핵심

(눅 24:44-45)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17절 /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두 가지 목적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마태복음 5장 17-18절 /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 / 선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 ● 함께 생각하기

1. 성경의 정경 66권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록되고 채택되었습니까?
2. 전체 성경의 참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 성경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4.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5.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네 가지는 무엇인가?

● 토의 및 적용

1. 성경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2.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 3. 창조와 진화 : 두 세계관의 싸움

목표: 진화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경적 창조만이 만물의 시작에 대한 참된

설명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고백할 수 있다.

찬양: 창조의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 마음을 여는 글

\* 성경은 창조주에 의한 창조의 흔적들을 피조된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직접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40:26).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어오면 항상 그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하셨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 오늘날 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화학 교과서책인 <Lehninger Biochemistry>에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실려 있다. 즉 1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시행착오, 즉 진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저절로 생긴다면 몇 년이 걸릴까? 그것은 적어도 1050년은 걸릴 것이며 따라서 단백질은 무작위적 시행착오 과정으로써는 독특한 자기만이 갖는 입체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진화는 45억년 이내에 일어나야 하는데 간단한 단백질 하나가 생겨나는데 1050년이 걸린다면 지구의 나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45억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는 45억년보다 훨씬 젊다는 데 더욱 공감하고 있다.(중략) 그런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도 단백질이 저절로 됐다고 우기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중략) 직경 1cm도 안 되는 종이 두 장이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다. 이 두 종이를 떼는 게 바로 믿음이다. 과학적인 힘으론 할 수가 없다.

나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종이를 떼고 나면 지름길이 있음을 쉽게,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종배, *신비한 인체 창조섭리*, 48-52)

### ● 성경 포스트

\*창세기1-2장, 출애굽기 20장 11절 / 무로부터의 창조, 옛세 동안 창조 완성하심

\*이사야 55장 8-9절 /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사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 /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 3절 /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 함께 생각하기

1.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인가?
2. 어떻게 사람들은 진화란 가설을 사실인양 믿게 되었을까?
3. 붕괴되는 진화론
4.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시 우주를 어떻게 펴시었다고 (stretching out heavens, expanding universe)증거 합니까?

1) 이사야 42장 5절

2) 예레미야 10장 12절

3) 스가랴 12장 1절

5.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읽으십시오.



-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엔 무엇이 존재하였습니까?
- 2)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물질(지구를 포함하여)을 지으신 후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3) 창세기 1장 26-27절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나열해 보세요.
- 4) 누가복음 3장 38절(NIV)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6. 자연주의의 산물은 진화론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기독교 유신론)은 어떻게 다릅니까?
7. 사도행전 17장 16-34절에 나타난 바울의 이방인(헬라인)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증거 합니까?(24-26절).

● 토의 및 적용

1. 진화론적 세계관이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합니까?
2. 어느 입장이 보다 성경적인가?
3. 보이는 물질세계에 집착하거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 타락 : 죽음과 부패의 법칙 아래

목표: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피조세계가 그로 인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부패의 상태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주께서 주신 동산에

#### ● 마음을 여는 글

\*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만약 생명나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이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우리에게겐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도 더욱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 생명나무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고마워진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아픔, 피로움, 절망, 다툼, 공포……결국에 도달하는 죽음까지,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이 좋았던 그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생명나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만, 노아홍수콘서트, 134)

#### ● 성경 포스트

\*창세기 3장 1-24절 /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저주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18-19)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 아담의 범죄 결과

\*로마서 8장 20-22절 / 허무한 데 굴복하며 고통하는 피조세계

\*이사야 59장 1-8절 / 죄의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에스겔 28장 11-19절, 이사야 14장 12-15절, 고린도후서 11장 3, 14절, 창세기 3장 :1, 4-5절 / 사탄의 정채와 전략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7장 18절, 8장 7-8절, 에베소서 2장 1-3절, 마태복음 5장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 시편 49편 7절, 51편 5절, 143편 2절, 잠언 20장 9절, 전도서 7장 20절, 예레미야 17장 9-10절 / 범죄한 인간의 상태

\*요한복음 3장 3-7절, 8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 거듭남이 필요함

\*에베소서 1장 4절, 마태복음 8장 29절 / 구속의 예정과 사탄의 멸망

\*사도행전 3장 19절, 시편 32편 1, 5절, 이사야 43장 25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 죄인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

### ● 함께 생각하기

1. 창세기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 인간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 한 후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나?
2.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에 대한 어긋남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성경(롬5:12, 고전15:22)은 세상에 죽음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4. 성경(롬8:20-22)은 피조세계가 허무함과 썩어짐의 법칙 아래 놓여있다고 말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원래 계획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무능력함을 뜻함. 땅이 저주를 받아 썩음, 퇴보, 죽음을 포함한 죄의 부패한 영향에 묶여 있는 것. 이 모두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결과다.
5. 이사야 59장 1-8절을 읽고, 죄의 결과를 나열해 보시오.
6.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 범죄 한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 토론 및 적용

1. 인류가 죄로 물든 증거가 역사와 사회 및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2.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남아 있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3.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 5.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인가?

목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으로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임을 바라볼 수 있다.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 ● 마음을 여는 글

\* 창세기 7장 6절에 의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했습니다. 므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969세)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죽으면 심판』입니다. 창세기 5장 25-29절을 근거로 한다면 므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정확히 600세였습니다. 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후 782년 즉, 총969년을 살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므로  $782-182=600$ , 즉 노아가 600세에 므두셀라가 죽었고 바로 그 때 홍수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히 성취됩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늘 신경 써야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새 "왕"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더 낫냐?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슈를 놓고 얻은 인류의 결론은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지력, 재력, 가문, 심지어 외모까지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중략)노아가 살던 시대의 특징은 한 마디로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힘센 장부가 왕 노릇하던 시대 성격은 패피하고 강포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창6:5)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악한 체질이 되어 항상 악한 것을 지향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상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참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이에실, 어! 성경이 읽히네, 63, 64)

● 성경 포스트

\*창세기 6-9장 정독하기

\*시편 104편 6, 8절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  
고 골짜기는 내려 갔나이다”

\*누가복음 17장 26-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 노  
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  
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 함께 생각하기

1.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입니까? 국부적 입니까?
2. 노아 홍수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 방주에 동물들을 얼마나 실을 수 있었습니까?
4. 노아가 그 동물들을 어떻게 다 찾아서 방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5. 공룡도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
6.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어떤 사건으로 취급하셨으며,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 토의 및 적용

1.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
2. 화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해주는가?
3. 성경에 기록된 자세한 홍수 심판 기사 외에도 세계 대부분의 민족은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 6. 역사적인 일곱 개의 C 사건들

목표: 성경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주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 ● 마음을 여는 글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 문화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계속 공격해 왔다. 결과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은 성경은 단지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이라고 배워왔다. 결국 이러한 성경에 대한 제한적인 관점은, 공룡, 화석, 죽음, 고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와 관련된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들이 우리 주위에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중 매체와 교육시스템이 진화와 기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전 우주에 대한 참다운 역사를 알려주며, 오직 성경의 역사의 조명 안에서만 우리는 현재에 대한 증거를 해석할 수 있고, 죽음과 고통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의 문제들에 대한 참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

### ● 성경 포스트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 ● 함께 생각하기

1.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창조(Creation)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 타락(Corruption)이란 무엇입니까?
4. 대격변(Catastrophe)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5. 혼란(Confusion)은 왜 생겼습니까?
6. 그리스도(Christ)는 어떤 분이신가?
7. 십자가(Cross)란 무엇인가?
8. 성취(Consummation)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토의 및 적용

1.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일곱 개의 C사건들(7 C's of History)”을 말할 수 있다.
2. 성경을 통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 7.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

목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무의미와 공허, 경쟁과 불안, 미움과 다툼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너는 내 아들이라

### ● 마음을 여는 글

\*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인한 사망이 없었다면 둘째 아담의 그 죄를 위한 구속 또한 의미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5:21-22) 약속하셨다.

### ● 성경 포스트

\*레위기 4장 27-31절, 히브리서 9장 22절 / 대속의 피

\*창세기 3장 21절 / 첫 희생 - 가죽옷을 입혀주심

\*이사야 43장 1-7, 25절, 44장 24절 / 창조주와 구속자가 되심

\*마태복음 1장 21절 /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에베소서 1장 7절 /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음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히브리서 10장 11-14절 /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벧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골로새서 1장 20-22절 /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효력)

\*누가복음 24장 46-47절,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 회개

\*갈라디아서 2장 16절 /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6장 23절 / 영생을 선물로 주심

\*디도서 3장 5-7절 / 성령을 부어주심

### ● 함께 생각하기

1. 구속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속의 은총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3. 구속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이사야 43장 1-7, 25절, 44장 24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의 은혜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집니까?

### ● 토의 및 적용

1.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2.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절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4. 대속과 관련된 성구를 가지고 고백 나누기.

## 8. 포스트모더니즘 부수기

목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 창조주가 계시며, 창조주가 계시하여 주신 참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성경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아무리 현대의 사회와 문화가 다원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지라도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터임을 고백할 수 있다.

찬양: 왕이신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

### ● 마음을 여는 글

\*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를 등에 업고 그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했던 모더니즘은 그 이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죄성 때문에 엄청난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이성과 노력만으로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없다는 혹독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더니즘/과학주의/이성주의의 낙관적 출발은 점점 회의적으로 결말이 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진리의 상대주의 및 허무주의/회의주의적 성향이 강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현시대 정신을 산출하게 됩니다.

\* 다원적인 사회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 대중의 조소와 심지어는 공공연한 적대감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범죄가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진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반지성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진리는 중요하다. 복음주의 운동은 개인적인 경험을 성경의 권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해 왔지만, 여전히 진리는 중요하다. 진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보다 훨씬 중요하며, 우리의 개인적이 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레이 프리차드, 믿음의 여정, 121, 122)

### ● 성경 포스트

\*이사야 5장 21절 / 인간의 무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골로새서 2장 8절 / 거짓에 대한 분별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8-9절 /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4장 12절 / 유일한 구원의 방법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1장 1-29절 / 거짓 신들에 도전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9-10절, 잠언 14장 12절, 잠언 20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21, 25절 / 사람의 미련함, 부패함

### ● 함께 생각하기

1.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2.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3. 포스트모더니즘의 4가지 대표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4.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이사야 41장 1-29절에서 하나님은 참 신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구원관이나 진리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6.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지혜에 대해 어떠하다고 표현하십니까?

● 토의 및 적용

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포스트크리스천
2. 포스트모더니즘 - 소견에 옳은 대로?
3. 다원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동성애와 음란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신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 자연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 허무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8. 뉴에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제 1 절 요약

21세기는 교육, 지식, 정보, 문화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목회철학을 공유하며 교회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소그룹 리더는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는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선별하고, 훈련함으로써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충실하게 성취해나갈 수 있다. 이 때, 평신도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등 정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소그룹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세계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참으로 실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것은 개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실재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에서 세계관 정립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숙한 소그룹 리더가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계획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반드시 점검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때로는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일관된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계관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기존 소그룹 리더 교육내용은 대부분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의 삶 등을 다루면서 행동변화에 대한 결단과 열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삶의 변화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언행의 변화가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갖는 성도일수록 성경의 진리에 있는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내면의 방향성을 정립시킬 수 있는 세계관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 및 가치의 상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다른 세계관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 속에서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한층 높아졌다. 성경적 세계관 프로그램은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성경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평신도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립할 수 있다. 셋째, 평신도 소그룹 리더가 자신의 세계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진리에 기초하고, 진리를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세울 수 있다.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범위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의 중요성을 다뤘다.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 소그룹 사역의 원리, 소그룹을 통한 신앙 형성 및 삶의 변화, 소그룹 리더의 발굴, 훈련, 리더에게 있어서 세계관을 점검했다.

3장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다루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소그룹 사역에 미치는 영향과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속적 세계관이 소그룹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그룹에서 극복해야 할 세속적 세계관을 점검했다.

4장에서는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제자훈련과 두 날개 양육시스템의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여 교육의 핵심을 산출하고, 특히 제자훈련 중심의 리더 훈련에서 강조 되는 부분과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소그룹 리더 훈련 부분에서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여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창조신앙과 구속사적 관점의 삶을 살며, 세속적 세계관에 대처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주 훈련 프로그램을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었다.

## 제 2 절 연구결과의 기대와 제언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세계관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정하는 신념체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인간, 우주, 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영적성향을 갖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세계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는 무엇을 향해 흘러가는지 등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이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에 대해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이 확고히 세워져 있는 평신도 리더가 평신도 소그룹을 인도하고, 성경적 삶에 동의하고 따르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증대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돕기 위해 제자훈련과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및 평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제자훈련과 두 날개 양육시스템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비교해 보았고, 두 날개 양육시스템의 훈련 프로그램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제 분석하여 훈련 진행시 핵심 요소와 훈련자의 성숙에 기여하는 요소, 소그룹 리더 훈련의 한계점과 그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총 8주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8주로 맞추다 보니 더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되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회의 역할, 성령, 문화, 선교적인 측면들도 다룬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21세기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소그룹에 참여하게하고 소그룹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한다. 교회생활에서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하여 교육시킴과 병행하여 대중 집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의 역할과 리더 교육이 중요하다. 소그룹 사역자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각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방식이 교회마다 다르고, 교재의 부족과 훈련 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리더의 훈련 원리와 방식이 미비하고 완전한 훈련 시스템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효과적인 훈련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재편찬과 훈련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를 더욱 효과 있는 훈련방안이 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그룹 리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것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리더를 위한 실제적인 성경공부 인도법, 정기적인 소그룹 리더의 리트릿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첨가하면 더욱 좋겠다.

둘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세속적 세계관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것은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정도이지만, 실존주의, 기독교신비주의, UFO, 현대과학의 오류, 세속적 심리학 조류 등까지 다룰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이 될 것이다.

셋째, 저자는 제자훈련을 경험했고, 훈련하는 교회에서 장단점을 볼 수 있었지만, 두날개 양육시스템의 장단점은 책을 통한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수 년 동안 입증된 두 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고, 한국과 세계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길 바라며, 두 훈련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제자로써의 삶과 군사로써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 비교적 약해진 것 같은 성경의 권위와 창조신앙의 회복 및 세속적 세계관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주 프로그램을 통해 견고하고 소망이 풍성한 평신도 리더가 세워지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부 록

## 성경적 세계관 8 주 프로그램 지도서

1과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 교안

## ● 함께 생각하기

## 1. 모든 세계관 성립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문명권에 따라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고, 종교에 따라 기독교적, 힌두교적, 유교적, 불교적, 회교적, 또는 도교적 세계관을 논할 수 있고, 유신론적 세계관이나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유신론적 세계관이나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철학적 경향과 사조에 따라 관념론적, 실재론적, 유물론적, 합리주의적, 경건주의적 세계관을 말할 수도 있다. 자연 세계와 생명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창조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계관들은 다음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Where did we come from?)

둘째, 왜 이 세상에 문제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Why there exist problems, suffering, and death in this world?)

셋째,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What is the solution?)

## 2.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전제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은 전적으로 초월적 창조주와 그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

조, 타락, 구속의 핵심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점을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타락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 회복되었고 또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둘째, 세계는 시공적으로 유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속에 존재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

셋째, 세계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 일어나는 자연세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의미를 부여하시는 영역이고 또 여기에서 인간은 단순히 지상적, 육체적 존재로만 머물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삶을 영위하며 또 그 삶의 의미도 내세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 3.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 1) 창조(創造, Creation : Where did we come from?)

①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적으로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창 1:1).

②모든 물질과 생명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time and space)까지도 초월자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한다. 천지만물은 그분의 자유 의지로 무에서 유로 창조(히브리어 바라, *bara*)하신 것이 기독교적 사교의 핵심이 된다.

③성경이 생물학적이거나 지질학 등의 연구 서적과 같이 모든 상세한 과학적 세부 사항을 다 전달하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기사는 매우 함축적으로 제시된다. 성경은 비과학적(非科學的)이 아니라 초과학적(超科學的)이다.

④피조 세계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많은 창조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1:20)

⑤스스로 계신 분(I AM WHO I AM) - 출애굽기 3장 13-15절, 떨기나무 숲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Elohim: 히브리어의 셋 또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어미, 하지만 Elohim은 항상 단수 동사와 함께 쓰였음. 즉, 삼위이면 서도 하나인 삼위일체가 이름에서도 나타남).

⑥‘창조’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명제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의 선한 의지로 무(無)에서 온전하게 창조하셨다(창 1:31; 히 1:1-3).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stewardship). 창세기 1장 26-28절 참조.

셋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선하심과 사랑에 있고, 따라서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7, 21).

\*창세기의 창조와 창조주에 관한 믿음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독교적인 신관, 인간관, 자연관, 학문관, 도덕관, 결혼관, 역사관, 시간관 등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탄은 크리스천과 성경을 공격할 때, 그 기초(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것들은 저절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 2) 타락(墮落, Fall: What has gone wrong?)

①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시작된 타락은 이후의 전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간의 일그러진 관계의 시작이 되었다. 타락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총이 끊겨진 세상과 자연인의 곤고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다음의 세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락(Fall, Depravity)은 인간이 피조물인 자신의 본분을 떠나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함으로(창 3:5)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결정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다(창 3:4-5).

둘째, 타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그 영향력이 인간뿐 아니라 그의 다스림 아래 있는 전 피조 영역에도 보편적으로 임하게 된다(창 3:17-19; 롬 8:19-23).

셋째,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배도와 불신의 길을 걷고, 결국은 진리

도 잃고 궁극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탕자와 미아의 처지에 빠진 사건이다(롬 5:12).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버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전인격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지적으로는 불신앙과 교만이, 의지에서는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롬 1:28).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마음이라”고 말한다. (참고 - 롬 7:19,24, 롬1:25; 램2:13; 롬3:10)

### 3) 구속(救贖, Redemption: What is the solution?)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볼 때 다음의 의미가 있다. 즉 창조가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상호간의 간격을 말한다면, 타락이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사건이었고(창 3:5), 구속은 그에 반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요 1:14; 빌 2:6-8) 사건이었다.

구속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구속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이다(고후 5:21; 요 3:16; 골 1:22; 롬 5:18; 요 5:24).

둘째, 구속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Lordship) 영접함으로써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본분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과 삶과 세계에 관한 바른 진리를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다(요1:12, 4:17, 6:35).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의 자녀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세상의 철학과 재물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하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역사의 피안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제공한다(계 21:3-4; 롬 6:19; 고후 5:17-21).

### 4. 로마서 1장 18-32절을 정독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무엇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3) 무엇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섬긴다고 했습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4)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5.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주신 근원적 명령은 무엇입니까?(창 1:28; 고후 10:5). 그것은 문화명령이다.

구속의 의미를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시키는 것과, 삶의 현장과 문화의 구속에 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구속은 우리가 잃었던 영적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함으로써 창조 때 주신 문화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하여 준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흐려졌던 가치관과 문화가 회복되고, 학문의 기초와 방향도 새롭게 된다. 학문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요, 학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것의 결과와 목적도 바벨탑(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하는 인본주의적/과학주의적 유토피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임을 알게 하는 것이 구속으로 가능케 된다.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먼저 인간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엡 4:24; 골 3:10)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향한 본래의 문화

명령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화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막 16:15; 마 28:18-20).

### ● 토의 및 적용

1. 성경적 세계관 정립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폴 발레니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으면 세속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말해보자(술, TV, 게임.....).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보다 풍부하게 하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부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주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허용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도 은혜이다. 루이스(C.S.Lewis)는 “고통이란 변장되어진 하나님의 복”이라 했다. 우리의 어려웠던 경험들 하나 하나가 나 중에 비슷한 일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격려하며 복음을 강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전 15:58; 롬14:17).

## 2과 성경,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 교안

### ● 함께 생각하기

1. 성경의 정경 66권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록되고 채택되었습니까?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신약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에는 약 100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함) 사본(codex)들도 손상된 부분이 있는 채로 보존되어 여러 사본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오늘날의 성경 전체가 완성되었다. 1947년

아랍의 양치기 소년에 의해 쿠파 동굴에서 구약 전체가 거의 손상 없이 보존된 사해 사본(Dead-Sea scroll : copied around 200 B.C. by Essenes)이 발견됨으로 성경 전체가 특별한 문제없이 사본으로부터 잘 만들어 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신약성경은 지금까지 일부 또는 전체가 수록된 고대 헬라어 사본들이 5,000개 이상 발견되었으며 교리상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일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 예로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A.D. 100년경 사본으로 보이는 요한복음(A.D. 90년경에 기록)의 일부분이 보존된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Nestle Greek New Testament와 거의 완전히 일치함이 밝혀졌다. 원어로 된 성경(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은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됨)이 사본으로 만들어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극소량의 누락이나 주석을 위한 첨가 및 그 의미 전달이 조금 모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원본이 성령님의 인도 하에 오류 없이 만들어 졌음을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초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성경 말씀은 진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사 40:8; 마 24:35).

구약 39권은 A.D. 90년 압니아 종교회의에서(예수님 생존시에도 구약 39권은 이미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었음),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Council of Carthage)에서 (A.D.367년 아타나시우스 감독 등에 의해 신약 27권이 합본으로 편집됨) 정경으로 채택되어졌다. 40인이 넘는 저자가 1500년이나 되는 기간에 걸쳐 기록한 성경 66권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consistent)이고 내용이 서로 완벽하게 맞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정경 66권의 참 저자이시며 정경으로 채택하게 하심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참 저자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예언의 성취에 있다.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 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 전체 성경의 참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하나님께서서는 계시와 영감의 기록인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서 출애굽 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신 18:18).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신 18:18).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지만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기록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참 선지자 인가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22)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대언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나 영감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대언자들은 다만 성경 기록의 도구나 매체로 쓰였을 뿐 성경의 저자는 아니다.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성경의 참 저자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구약의 성경구절- 랍 30:1-2, 33:1-3; 출 17:14, 24:4; 겔 24:1-2; 사 30:8; 랍 1:9).

**\*\*예수님/성령님께서 말씀하심**

40명이 넘는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에서 3,000번 이상이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대언해서 적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신약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은 성령님이 성경의 참 저자임과 그로 인한 권위와 무오성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 수 있다. (히1:1-3; 요 1:1; 요일 1:1-3; 갈 1:11-12; 엡 3:3-4; 요 10:35)

마태복음 22장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시편의 육체적 저자는 다윗이지만, 참 저자는 성령님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으며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 저자인가? 한편 예레미야가 구술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르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사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20).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7).

**3. 성경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제자훈련1-4과1번 참고)**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단지 일반 책과는 달리 사람들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살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성경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과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고 은밀한 부분이다.

4.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위의 책 2번 참고)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딤후 3:15).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딤후 3:17). 17절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반절은 초신자를 성숙한 신자로 만드는 성경의 목적을 다루고 있고, 하반절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목적(봉사자와 사역자로 세우는)을 다루고 있다.

5.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네 가지는 무엇인가?(위의 책 9번 참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딤후 3:16).

‘교훈’은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이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삶과 인격의 변화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네 가지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을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억지로 고쳐준다. -때려서라도 아이에게 좀 더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

## ● 토의 및 적용

1. 성경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원대한 창조의 목적과 과정,’ ‘우리를 향하신 계획,’ ‘사랑과 권면의 메시지’등 너무도 많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 중 꼭 필요한 것만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말씀은 없다. 출애굽기에 너무도 자세히 나오는 성막의 구조 양식이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 그리고 여러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그런 내용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삶 등이 숨겨져 있다. 그 속의 보화를 캐내는 사람에게만이 그에 합당한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 119:103).

“부(wealth)와 귀(honor)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2).

## 2.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존 맥아더, 성경 이렇게 믿어라, 49).

계시와 영감은 그 의미가 다르다. 계시는 메시지이며, 영감은 그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영감은 신약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작용한 성령의 역사다.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증언했다. 하나님의 입 기운, 즉 하나님의 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영감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여준다(사 6:8; 랍 14:4, 5, 9, 5:14; 겔 3:10, 11; 갈 1:15, 16; 계 1:10, 11).

영감은 자신만의 생각과 말을 사용하는 기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각과 어휘들을 철저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단어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진리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자 결심하신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할 뿐 아니라 무오하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 30:6).

성경은 무흠하고 무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다. 신약성경 각 책들의 권위는 사도들이나 사도와 가까운 사람의 기록이라는 데서 입증되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였다(엡 2:20). 오늘날 그 기초가 다시 놓이지는 않는다. 더 이상의 사도가 존재하

지 않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계시도 없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해 성경말씀을 깨닫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사 1:2).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근심하게 한다면,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다.

성경은 영향력이 있다(히 4:12; 사 55:11; 살전 1:5).

이상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무흠하고, 무오하며, 완전하고, 권위가 있고, 충분하며, 영향력 있다.

### 3.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p116)

이 세상의 진리나 과학적 패러다임은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변해간다.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참 진리로 남는다.

욥기 26장 7절에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NIV)”와 같이 우주 공간 속에 아무런 지지도 없이 중력에 의해 떠있는 지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He sits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NIV)”와 같이 지구가 원형임을 증거하고 있다. ‘circle’이라는 말은 구상/원형을 의미하는 히브리 원어 ‘쿠그(khug=sphericity or roundness)’를 번역한 것이다. 잠언 8장 27절의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서도 같은 원어 ‘쿠그’가 ‘compass’로 번역되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것은 B.C. 700년 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지구가 구상임을 알았으며,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덩그러니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 심지어 중세의 사람들까지도 지구를 거대한 코끼리나 거북이 또는 헤라클레스 등이 받치고 있다고 이해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34-35절을 읽어 보면 예수님의 재림시 지구의 한편에서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낮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

의 제림은 순간적이며 전 지구적 사건일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 당시 어느 누구도 지구가 구상이며 자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구상에 밤과 낮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이미 열성/우성에 관한 멘탈의 법칙을 감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욥기 36장 27-28절에는 물의 순환과 강우(Hydrologic Cycle and Precipitation)에 관한 정확한 과학적 표현이 나온다.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아브라함의 부족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욥 36:27-28). 심지어 중세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구름이 어떻게 생기며 비가 왜 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비로움으로 여겨왔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B.C. 2000년 경의 욥이 어떻게 그렇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는지 경이롭기만 하다.

시편 8편 8절에는 바다의 흐름(해류)에도 길이 있다고 한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ll that swim the paths of the seas).” 이사야 43장 16절에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pathways in the seas)”라고 하였다. 바다에 해로가 있다고 처음 발견된 것은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매튜 모리(Matthew Maury)에 의해서이며 19세기 중엽쯤이었다. 하지만 시편 8편에는 이미 바다에 해류가 있다고 선포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에 관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라고 증거하였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에너지(E)와 물질의 질량(m)이  $E=mc^2$  ( $c$ :빛의 속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보이는 것들(질량)이 보이지 않는 것(에너지)으로부터 창조될 수 있음(matter can be made from energy)을 증명하였다. 이 외에도 확장되는 우주(expanding universe: 시 104:1-2; 사 42:5, 45:12)나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욥 28:25)등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과학적, 의학적 기록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까지 과학의 역사에는 3번의 큰 혁명이 있었다. 뉴턴에 의한 중력장의 발견, 맥스웰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통합,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통일장이론(unified

field theory: not completed yet)이다. 모두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다.

과학의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월더스미스(A. E. Wilder Smith)는 그의 **성경의 신뢰성(The Reliability of the Bible)**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명확하고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

### **3과 창조와 진화 : 두 세계관의 싸움 - 교안**

(참고 도서 : 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 ● 함께 생각하기

#### 1.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인가?

어떤 이론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관찰이 가능하던지 실험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진화론은 관찰이나 실험이 불가능한 하나의 과학적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중간체들을 볼 수 없을까? 이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오랜 세월동안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몇 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었다. 그러면 화석에서는 그러한 중간체(transitional form)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최근까지 2억 5천만 개 정도의 분석된 화석(catalogued fossils)들이 수집되었지만 중간체를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 참고로 시조새(archaeoptrix)는 세계적 조류 연구의 대가인 페두시아(Alan Feduccia)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진화론-화석자들도 하나의 새의 종류이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아니라했다. 또한 많은 종류의 형체를 완전히 이론(fully developed) 주로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단세포 생물로부터 천이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모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캄브리아기 폭발(Cambrian Explosion)이라 한다. 이에 대해 진화론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굴드(Stephen Gould)는 “캄브리아기에서의 생물의 돌발적 출현은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특이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난처한 사실들 때문에 진화론자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의 굴드 박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인 단속평형

(Punctuation equilibrium)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진화가 소그룹에서 너무나 빨리 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오랜 세월동안 진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평형기를 거쳐)화석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공룡이 알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새가 나왔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이미 1930년에 골드슈미트(Goldschmidt)가 『기대되는 괴수설』로 제창했었으나, 그 당시 아무 주목도 받지 못했던 논리이다. 이전에는 진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너무 한순간에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화석으로 중간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진화론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자체 모순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크리스천 중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종류의 변이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진화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종 내에서의 변이(Micro evolution, or more precisely horizontal variation or diversification)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 내에서의 변이는 실제로 잘 관찰될 수 있으며, 노아홍수 이후 자손번식(breeding)이나 유전자변이(genetic mutation or variation)에 의해서 생성된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갖는 다양화를 잘 설명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의 유전자의 변이 외에 새로운 유전자 정보가 계속 생성되는 경우는 한 번도 관찰된 것이 없다. 문제는 진화론이 수억 년 전에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서(Macro evolution)사람을 포함한 모든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대진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과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만으로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던 다윈(Darwin)의 진화론이 멘델의 유전학의 재발견에 의해 획득형질이 유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드브리스(de Vries)가 달맞이 풀에서 돌연변이에 의한 2배체를 발견하고 유전 가능함을 밝힘으로 진화론은 불사조와 같이 되살아나고, 신다윈주의(Neo-Darwinism)라는 이름으로 “진화는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남”을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느 실험에서도 한 종에서 종의 경계를 뛰어 넘어 다른 종을 만들어 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초파리와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약 11일 정도이기 때문에 방사선, X선 등을 계속 쏘아 인공돌연변이를 일으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관찰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돌연변이는 거의 모든 경우에 진화가 아니라 나빠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환경에 잘 적응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설사 유전자의 복제오류인 돌연변이가 환경적응에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능했던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가 증가하면서 더욱 복잡한 상향으로 대진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누적에 의한 진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다윈주의도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본래의 설계(original design)가 돌연변이(genetic copy error)등으로 인하여 변형된다면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진화론자들의 기대처럼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화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가 더욱 과학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행 5:38).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고 특별하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인류가 동물의 형상대로 그저 자연계의 부속품으로서 진화되었다고 한다. 사람의 행동양식을 동물의 그것에서 유추해 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의 사고틀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목적과 의미 등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증명되지 않은 것, 즉 과학의 우상을 바라보며 창조주가 없다는 것에 대해 맹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학은 생물의 진화, 지구의 진화, 우주의 진화가 패러다임으로 되어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문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조차 진화론적 사고와 그에 근거한 이론전개(social Darwinism)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2).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과학가설이 교과서에 실려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뇌되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성적장애(intellectual barrier)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117참조).

## 2. 어떻게 사람들은 진화란 가설을 사실인양 믿게 되었을까?

첫째, 타락 이후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적으로 큰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공간을 무엇인가로부터 채우려한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단지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가의 선택을 할 뿐이다.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다른 어떠한 믿음/신념으로 그 곳을 채우게 되어 있다.

둘째,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 반항적 성향을 띠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boss)이 되길 원한다. 어떠한 초월자의 간섭도 원치 않는다. 다만 절대자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칭 가장 진화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이성과 과학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결정/창조하며 그 것에 모든 성패를 건다. 진화론은 이러한 무신론자들에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추종자로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인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다윈은 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무신론자를 가능케 하였다(Darwin made it possible to be an intellectually fulfilled atheist)”라고 말함.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엡 4:18).”

셋째, 진화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결국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이 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자.

1. 타락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성향을 갖게 됨.

2. 창조주를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도 계속 영적 공백을 느낄 뿐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는 말씀처럼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며 무신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

3. 그러므로 마음속의 번민을 없애기 위해 창조주의 존재 및 창조의 필요성/당위성을 완전히 없애려 시도함.

4. 자연으로부터 핀치새의 부리(finch beaks)가 변화하는 등 종 내에서의 작은 변이를 관찰하게 됨.

5. 종 내의 작은 변이를 근거로 논리를 무한정으로 확장하여 가장 간단한 단세포 생물로부터 고등한 인간으로까지 진화했다고 추론함. 더 확장하여 무생물 원자 덩어리로부터 생물이 생겨났다고 주장함.

6. 옥스퍼드 논쟁, 스코프스 재판 등을 통하여 정론처럼 자리잡혀가며 교과서 등을 통하여 과학적 사실로서 세뇌/교육 됨.

7. 결국, 과학의 패러다임을 넘어 도그마(dogma, 흔들릴 수 없는 정설)처럼 자리잡게 됨. 과학주의에 영향을 받는 일반 대중들은 과학이 그렇다고 함으로 무조건 믿게 됨.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24:1).

### 3. 붕괴되는 진화론

미국의 지성인들을 위한 주요 잡지들 중 하나인 『American Spectators』 2001년 1월 판에는 진화론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특집호가 실렸다. 그 내용인즉, 진화론을 입증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미 전문과학자들 사이에서 부정되었거나, 부정되어 가는 추세거나, 또는 적어도 진화론을 지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이, 아직도 중,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과학 교재에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과학적 사실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적설계(Intelligence Design)를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분자 생물학의 유전자코드 연구나 정보이론(Information Technology)의 수학적 모델링 등에 의해 더욱 학문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진화론을 과연 과학적 모델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마저 일고 있다.

다음은 분자생물학자 조나단 웰스(Jonathan Wells)박사가 2000년에 출판한 *Icons of Evolution*이라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다음의 기둥들이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나방(peppered moth)의 환경에 따른 자연선택 : 생물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진화론의 권위지 『Nature』 등에서도 그 내용이 이미 근거가 희박한 주장으로서 진화의 증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권유함.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Miller의 실험 - 지금은 거의 모든 진화론 과학자들마저도 회의적임.

\*헤켈(Haeckel)의 등뱀동물의 발생과정의 유사성(pictures of similarities in early embryos) - 의학 기술과 기구의 발달로 근거없는 사실로 판명됨(Stephan Gould)를 비롯한 진화론자들도 근거 없는 사실임에 동의하고 있음).

\*시조새의 화석 - 수십억의 화석 중 유일하게 종의 변이를 보여주는 중간화석이라고 진화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음. 많은 연구가 진행된 후, 진화론자들조차 완전한 새의 화석이라고 결론 내리는 추세임.

\*Darwin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관찰했던 핀치새의 부리의 변화 -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종 내에서의 일시적 변화일 뿐, 다른 종으로 대진화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함. 환경이 바뀌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주기적인 변화(cyclic variation)도 관찰됨.

\*말의 진화에 관한 화석 - 특별한 근거 없이 작성된 것.

\*초파리의 유전자 돌연변이(genetic mutation) - 거의 모든 경우 해로운 방향으로, 극히 작은 확률로 기존 유전자의 변이가 환경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자의 정보가 증가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불가능함. 결국 돌연변이에 의한 상향식 진화는 불가능하다.

4.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시 우주를 어떻게 펴시었다고 (stretching out heavens, expanding universe)증거 합니까?

1)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홉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3)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

을 펴시며 땅의 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5. 창세기 1장의 창조가사를 읽으십시오.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엔 무엇이 존재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Ex Nihilo)였다.

2)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물질(지구를 포함하여)을 지으신 후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류대로’ 지으심을 강조하신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며, 홍수 심판 때에도 종류대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심으로써 씨를 유전케 하셨다. 즉, 종류(min)대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으셨다.

3) 창세기 1장 26-27절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나열해 보세요.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어 만드셨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동물 중의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으며, 그 사실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 인격이 동물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며 문명을 이루며, 기술을 전수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사고하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언어를 사용하고, 기록을 하며, 교육을 하고, 종교를 갖는다. 반면 동물은 다만 본능에 의해 생활한다. 유전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동물의 유전자로부터 유전정보가 추가되어 만들어질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4) 누가복음 3장 38절(LIV)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됨.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6. 자연주의의 산물인 진화론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기독교 유신론)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화론의 세계관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실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모든 생물은 하나의 단세포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복잡한 생물로 발전

해 왔고, 그 과정의 끝에 인류가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정보공학에서 얘기 하듯이 정보는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우주의 모든 운행과 생물계의 놀라운 복잡성과 질서를 볼 때, 단세포 하나 조차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충만하게 동식물을 지으셨으며, 인간은 특별히 구별하여 동물 중의 하나가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실제 세계의 질서와 복잡성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진화론과 같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영,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생명이나 죽음이 모두 단지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물질적인 차원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삶을 보건대,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고,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윤리적인 삶을 인간의 역사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도덕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7. 사도행전 17장 16-34절에 나타난 바울의 이방인(헬라인)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증거합니까(24-26절)?

천지의 주재이시며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먼저 가르침으로서 잘못된 토대를 제거한다. 그 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고와 다신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 ● 토의 및 적용

### 1. 진화론적 세계관이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합니까?(믿어말어, 177)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창 1:27) 이 땅에서의 삶에 특별한 소명을 주셨으므로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적자생존의 결과로 동물로부터 진화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인 우월주의(KKK), 인종차별, 노예제도, 공산주의 등이 다 진화론적 세계관의 산물들이다.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히틀러도 진화론의 신봉자였다. 지금 사회의 모든 문제들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들도 다 진화론적 세계관의 결과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윤리기준인 성경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윤리와 상대적 가치기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서 “남이 하나도 한다”는 식의 가치관에 빠져 들게 된다. 더욱이 젊은 세대간에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나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에서 주창하는 “If you feel good, that is the good and if you feel bad, that is the evil.”식으로 윤리의 기준을 자기자신이 정할 수 있다(I can decide what is good and evil).는 식의, 사단이 처음 인류를 타락으로 이끈, 그러한 세계관으로 빠져들기 쉽다.

### 2. 어느 입장이 보다 성경적인가?(믿어말어, 220)

당신은 성경의 무오성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함 없는 계시(God's true revelation)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항상 바뀌고 패러다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학적 가설(man's fallable opinion)들을 더 신뢰합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 45:7).

다음 사항 중 믿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V체크하시고 왜 그런지 말해봅시다.

☐ 홍해가 갈라진 것

☐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신 것

- ☐ 동정녀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
- ☐ 물이 포도주로 한 순간에 바뀐 것
- ☐ 다니엘의 세 친구가 펠펫타는 가마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
- ☐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
- ☐ 예수님께서 완전히 닫혀진 방안으로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것
- ☐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
- ☐ 엘리사가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것
- ☐ 예수님께서 그 몸이 하늘로 들려 올려 지신 것
- ☐ 예수님의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위의 사항들 중 자연주의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확실히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만약 위에 적힌 기적들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왜 창조주에 의한 성경대로의 창조를 믿는 것은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대로 수십 억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만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가 단 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왜 6일 창조를 믿는 것은 어려울까요?

\*만일 과학적 법칙이나 방법으로 간단하게 부정할 수 있는 위의 모든 기적들을 믿는다면, 왜 입증할 수도 없고 단지 과학적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과 오래된 지구이론 때문에, 성경적 6일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할까요?

#### 4과 타락 : 죽음과 부패의 법칙 아래 - 교안

##### ● 함께 생각하기

1. 창세기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 인간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 한 후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나?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가득 해져 윤리적, 영적으로 퇴보하였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피조세계와의 관계



도 파괴되어 선하고 복된 것을 주고받았던 관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고통의 관계로 바뀌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깨지고 많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육체적 손실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육체적으로도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질병이 생겨났다. 가장 큰 변화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의 법칙 가운데 놓여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 2.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에 대한 어긋남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명령)에 대한 어긋남이다.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였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단 하나의 명령에 대해 부당한 제한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한 의도를 본질적으로 의심하고 위반하였다. 하와의 말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완전한 영광을 옹호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뢰하기보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와는 분명 하나님을 믿거나 마귀를 믿거나,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요했을 뿐 아니라 의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 반역하였고, 아담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기에 타락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우위에 두었기에 명백한 반역이다.

## 3. 성경(롬 5:12; 고전 15:22)은 세상에 죽음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죽음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죽음이 없던 처음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

## 4. 성경(롬 8:20-22)은 피조세계가 허무함과 썩어짐의 법칙 아래 놓여있다고 말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원래 계획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무능력함을 뜻이다. 땅이 저주를 받

아 썩음, 퇴보, 죽음을 포함한 죄의 부패한 영향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결과다. 인간의 타락은 죽음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고장 난 상태로 저주 아래 두게 하였다.

5. 이사야 59장 1-8절을 읽고, 죄의 결과를 나열해 보시오.

- 1)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음
- 2)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함
- 3) 인생의 길을 황폐와 파멸로 이끔
- 4) 평강과 정의가 사라짐

6.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계 12:10; 요 8:44; 눅 22:31; 겔 28:11-19; 사 14:12-15; 고후 11:3, 14; 창 3:1, 4-5)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동물로 가장한 것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탄은 위장을 잘 하는데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한다. 또한 형제를 참소하는 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사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처음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고 모든 길에 완전한 존재였으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타락한 천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사야 14장에는 그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다고 한다(계 12:4).

7. 범죄한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회개

#### ● 토론 및 적용

1. 인류가 죄로 물든 증거가 역사와 사회 및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2.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남아 있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 3.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 5과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인가? -- 교안

### ● 함께 생각하기

#### 1.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입니까? 국부적입니까?

(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34-237)

\*창세기 6장-9장을 정독하십시오.

\*창세기 7장 6절에 의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하였다. 므두셀라(Methuselah)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969세) 산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 이름의 뜻은 『죽으면 심판』이다. 창세기 5장 25-29절을 근거로 한다면 므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정확히 600세였다(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 782년 즉 총 969년을 살았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음. 그러므로 782-182=600, 즉 노아가 600세에 므두셀라가 죽었고 바로 그 때 심판이 임했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히 성취된다.

창세기의 내용 중 6일 창조와 더불어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 노아의 홍수이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으로 쓰였다고 결론짓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을 정도로 자세하고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11장의 총 299절 중 32%가 날, 주, 년 등 시간에 관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타협하려고 시도하는 국부적인 홍수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전 지구적 홍수(global flood)임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전 지구적 홍수(historical global flood)로 말씀하셨다(눅17:26-27; 마 24:37-39).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눅 17:26-27).

사십 주야의 강수량만으로 노아의 홍수에 기술된 것 같이 모든 땅을 덮을 수 있었을까?(창 7:19-20).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홍수를 일으켰던 물의 원천은 궁창 위의 물 뿐만 아니라, 지하의 깊은 샘들이 터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50일 동안 수위가 올랐으며 그 후 150일 동안 수위가 내려갔다. 그 후 땅이 마르기까지 70일이 더 소요되었다.

“노아 육 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12).

시편 104편 5-9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 104:6,8,9).

노아 홍수 당시 땅 속의 깊은 샘들이 터진 것과,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 홍수는 잔잔한 홍수가 아닌 조산, 화산 활동을 동반한 대격변의 지각운동과 대규모의 퇴적층의 형성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진화론자들이 흔히 ‘노아 홍수 때의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다 증발해 버렸나?’라는 질문을 하곤한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진화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를 국부적 홍수(local flood)로 주장하곤한다. 이 국부적 홍수이론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가? 만약 국부적 홍수였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국부적 홍수였다면 땅위의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까?(창 9:15)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 7:22).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눅 17:26-27).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 9:11).

노아의 홍수에 쓰인 히브리 원어 mabbul과 헬라어 kataklusmos는 딱 한번 노아의 홍수에만 쓰였고 다른 국부적 홍수를 나타내는 의미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지구의 어느 곳을 가든지 심지어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에서도 많은 해양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전 육지가 한번쯤은 모두 물 밑에 잠겼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또한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활엽수의 숲이나 아열대 식물의 잎과 나무줄기들의 흔적을 갖고 있는 화석들, 그리고 석탄이나 목탄, 공룡의 화석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극지방의 기후가 한 때 온대 또는 아열대였다고 생각된다.

## 2. 노아 홍수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35)

노아가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즉, 앞으로는 지구의 기후가 예전과 같지 아니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하셨다. 한편, 창세기 2장 5-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창 2:5-6).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홍수 이전의 기후는 홍수 이후의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헨리 모리스 박사 등 다수의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궁창 위의 물, 즉 수증기층(vapor canopy)이 지구를 두르고 있어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종류의 우주파를 막아주며 온실효과와 같은 작용 때문에 지구 전체가 극심한 기후 변화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아열대 기후 같았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실제로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공룡이나 아열대 식물화석, 거대한 생물체나 풍부한 식물, 나이테 없는 나무화석 등 많은 화석의 기록들이 이와 같은 추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홍수 이후의 하나님의 명령중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9

장 3절 말씀이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창 9:3-4). 즉, 처음으로 사람에게 홍수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다.

### 3. 방주에 동물들을 얼마나 실을 수 있었습니까?(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38)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라고 되어 있다. 잣나무로 번역된 gopher wood는 오로지 창세기 6장에서만 쓰여졌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면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창세기 6장 14-16절에 의하면 길이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규빗은 평균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 즉, 약 45-60cm 정도의 길이 단위를 말한다. 이 방주의 크기는 대략 미식축구 경기장 정도의 크기이며 최소한으로 잡아도 화물기차 522차량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그 속에 실어야 할까?

창조과학자인 우드모라페(John Woodmorappe)의 논문에 의하면, 성경에서 코로 기식하는 짐승들을 방주에 넣으라 하였는데 그 수는 대략 8,000정도의 육상척추동물에 해당된다. 이 원조의 종들로부터 현재와 같은 다양화(diversification)가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서 종이라 하면 성의 교합(inter breeding)으로 자손을 계속 번식시킬 수 있는 kinds를 말한다. 그 외의 동물들은 모두 수중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에 는 멸종되었을 종들도 추정해서 포한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의 여러 종류를 다 싣는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의 여러 종류의 개를 생산할 수 있는(이는 종 안에서의 breeding 과 genetic variation으로 얼마든지 가능함) 한 쌍의 개만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 수 한 쌍으로 약 16,0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방주는 이 모든 동물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일까? Woodmorappe의 논문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는 화물기차 522차량 정도에 해당되며, 각 차량은 240마리 정도의 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전과는 달리, 코로 기식하는 동물 중에서 단지 11% 정도만이 그 크기가 양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노아의 방주의 절반이하의 수용용량으로도 코로 기식하는 땅위의 모든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다.

4. 노아가 그 동물들을 어떻게 다 찾아서 방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2장 19절과 6장 20절을 자세히 읽어보고 어떠한 암시가 있는지 찾아보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 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창 6:20).

물론, 그것은 노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불러서 모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을 것이다(창 7:8-9). 만일 이 사실을 믿기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대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구리나 파리나 메뚜기 등을 불러 모으신 것, 요나가 바다에 던져 질 때 큰 물고기를 부르신 것,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게 하신 것, 그 모두를 믿지 못할 것이다.

1980년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은 놀랍게도 재앙이 올 것에 대한 감지를 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대이동을 하여서 화산폭발에 의한 폐죽음을 피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일은, 화산폭발의 대재앙 중에 동물들은 에너지를 최대한 저축하기 위해서 활동을 죽이고 그 기간 동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동물들은 이를 감지하고 대이동을 한다고 한다. 당신은 이러한 감각을 가진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인도하셨음에 아직도 의심하는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또는 각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다. 우리도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진화론에 세뇌된 친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시 29:10).

5. 공룡도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43-245)

파충류인 공룡은 포유류와는 달리 환경만 적합하면 아주 크게 계속 자랄 수 있다고 한다.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몇 쌍씩(정확히 몇 종류의 공룡이 들어갈 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뺀 모든 공룡들은 대홍수 때 다 몰사했다. 지금도 진화론 과학자들은 이 창조모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왜 공룡이 멸종했는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설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잠시 살아남았던 공룡들도 그 후의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했다. 공룡이 과연 방주 안에 몇 마리리나 들어 갈 수 있는냐는 질문은(가장 큰 공룡도 football 크기만 한 알에서 나온다)알이나 어린것들을 방주 안에 실음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대부분의 공룡들은 초식동물이다.

당신은 성경이 공룡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어떤 사람은 “만일 사자와 토끼가 같이 있었다면 사자가 다 잡아 먹어서 씨를 말렸을 텐데,” “그 많은 먹을 것과 배설물을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등등의 질문을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모든 동물들을 필요한대로 방주 안으로 넣으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았겠는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라고 쓰셨다. “권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zakar*는 “granting requests, protecting delivering, acting on behalf of ~” 의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보셨다는 것이다. 방주(Ark)의 히브리 원어 *tebah*는 성경전체를 통하여 노아의 홍수와 나일강에서 아기 모세를 싣고 가던 갈대상자(출 2:3)의 단지 두 경우에서만 쓰였다. 그것은 보통의 물리적인 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가 실린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인도했던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아래 있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그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동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것을 믿은 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임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섯 번째 재앙, 즉 가축에 심한 악질(plague)을 내리실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출 9:4).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안의 고센 땅에 거하였다. 주위의 모든 애굽에 속한 가축들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은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다. 펠펫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힘든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 18:14).

인간의 작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신학이다. 이 자유신학의 특징은 인간의 상식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사실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가는 길 중, 수심 1m 정도 되는 홍해의 얇은 늪지대가 있는데 아마도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1m 이하의 수심에 애굽의 온 군대가 수장되어 버린 것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자유신학적으로 인간의 상식 안에서 해석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계속 생겨난다. 성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대로 믿자!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 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욥 12:15).

6.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어떤 사건으로 취급하셨으며,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은 노아 홍수를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루고 계시며 그 사실성에 기초하여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하고 계신다.

## ● 토의 및 적용

1.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 (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50-251)

노아의 방주는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여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창 6:14-16).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 6:22).

1844년 영국의 부르넬에 의하여 설계된 Great Briton호는 길이 98m, 폭 15.5m, 높이 9.9m인데 신기하게도 노아의 방주와 거의 똑같은 장-폭-고 비율로 되어있다. 부르넬은 그것을 설계하는데 1천년동안 축적된 영국의 조선기술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디키가 설계한 가장 견고한 미 해군의 군함으로 평가받은 USS Oregon호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비율로 설계되어있다. 몇 년전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13척의 다른 장폭비를 갖는 방주형태의 배의 모형을 만들어 큰 파도에서의 안정성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방주의 무게 중심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가장 합리적인 두 개의 가정된 위치를 실험 전에 선정하여 모형들을 만들고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그 실험 결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선형의 모형이 큰 파도에서의 안정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창조과학자들을 다시 한 번 경탄케했다. 특히 노아의 방주모델은 30-40m의 큰 파도에서도(노아의 홍수는 급격한 지층운동과 화산운동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파랑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파도가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항구까지 전복됨이 없이 무사히 도착하리라. 할렐루야!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점토판(19세기 중엽에 니느웨에서 발견)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길가메쉬의 서사시 중에도 큰 홍수와 방주이야기가 나온다. 그리하여 성경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근동지방의 홍수나 방주이야기를 모세가 창세기에 인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길가메쉬는 아마도 성경의 니므롯(영웅, 대적하는 자, 구스의 아들, 노아의 손자)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론에 인본

주의 문명을 건설하려 했던 자이다. 그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홍수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찬양하도록 변개시켜줄 것이다. 그 서사시에 나오는 방주는 정육면체(cube)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주는 큰 파도와 거친 해상상태에서 견디지 못하고 금방 전복되고 만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고, 어느 것이 조작된 것인지 방주에 대한 조선공학적 고찰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2. 화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해주는가?(김무현, *창세기 믿어? 말어?*, 281-285)

3000 조각(piece) 이상의 퍼즐을 맞추어 본 사람이라면 퍼즐상자에 그려져 있는 전체그림 없이는 흩어져 있는 퍼즐조각들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화석도 마찬가지이다.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진화론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격변론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 1)당신은 화석이 생성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가?

평상시와 같은 보통 환경(normal environment)에서는 화석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식동물(carnivores), 시체를 먹는 동물(scavengers)이나 곰팡이나 분해 박테리아등에 의해 대체로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국부적 홍수(local flood)에 의해서 시체가 갑자기 덮인다 해도 땅속 깊이 묻히지 않으면, 토양의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분해 박테리아들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 분해되어 버린다. 지난 오랜 세월에 걸쳐 미 대륙에서만도 수 천만 이상의 버팔로들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UCLA의 지질학 교수 William Miller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유기체들 가운데 화석으로서 보존되기 좋은 상황 하에 퇴적되고 있는 유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엄청난 수효의 화석들이 암석층 속에 파묻혀 있는지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 2)그러면 어떻게 환경에서 화석들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는가?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의 환경이다.

첫째로, 물이 있어야 하고, 대상물이 빠르게 또 깊이 묻혀야 하고, 또한 때로는 적절한 온도와 압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룡발자국 화석 같은 것

들은 발자국 생성당시 급하게 묻힘과 동시에 주변에 적당히 높은 압력과 온도가 동반하여 그 자국을 토기(pottery)와 같이 만들어야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화산활동이 동시에 이런 환경을 만들 줄로 생각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진흙 위를 걸어 다니지만 그것이 평상시의 환경으로는 발자국 화석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화석이 생성되려면 몇 십만, 몇 백만 년의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한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실험실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적절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수일 내지 수 주 만에 화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가, 토탄(peat)과 진흙등 그 구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적당히 섞어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면 수일 내에도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Exxon 연구소와 아르곤 랩 등 여러 실험실에서 이미 증명하였다. 특히, Argonne National Lab의 하야수(Hayatus)박사 등을 중심으로 1984년 Organic Chemistry Vol. 6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lignin(major component of wood)과 물과 산성진흙(acid clay)을 밀봉한 용기(sealed container) 안에서 150℃까지 가열하여 2-8개월 안에 갈탄(brown coal)이 형성되며, 더 높은 400℃까지 가열하면 탄소(carbon)함유율이 매우 높은 고질의 흑탄(black coal)이 형성됨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석유의 경우에도, 만약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석유가 생성되었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그 압력과 유동하에서 석유가 어떻게 그 유정 속에 계속 보존될 수 있는냐가 문제가 된다. 진화론 일색인 학교교육이나 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은 가르쳐지지 않는다.

### 3) 화석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으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목록으로 정리된 것만 해도 약 2억5천 만 개 정도)의 95%정도는 산호나 조개등과 같은 기동성이 없는 해양생물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5%의 대부분 (95%)는 이끼나 식물 또는 곤충들이고, 단지 소수(5%)만이 등뼈가 있는 동물의 화석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화석의 약 0.25%정도만이 뼈가 한 개 이상인 척추동물의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 분포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밑에서부터 기동성 없는 해양동물→기동

성 있는 해양동물 → 파충류, 양서류→조류, 포유류의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경향일 뿐 그 예외는 수도 없이 많다. 즉, 조류나 포유류의 화석이 파충류인 공룡이 묻힌 지층보다 훨씬 밑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진화론자들을 아주 당혹하게 한다.

창조모델에서는 위와 같은 경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태분포(ecology distribution)와 운동성(mobility)의 결과라고 본다. 즉 노아의 홍수시 운동성 없는 해양 생물들이 제일 먼저 묻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동성 있는 해양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를 피해 높은 곳으로 이주하던 포유류 등의 순서의 경향을 보여 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격변의 환경을 고려하면 여러 종류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비순서화석(out of order fossil)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나 포유류 등은 끝까지 묻히지 않으려고 저항할 것이요, 물에서 죽고 나면 뜨게 되고 하는 등으로 화석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화석연구가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그 천이형태(transitional form)들이 화석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천이형태 즉 중간화석들의 증거가 수억의 화석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조모델에서는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진화론자들은 최근 들어 Harvard대학의 굴드(Stephen Gould) 교수를 중심으로 궁색한 신이론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화론 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단속평형/격변적 진화(Punctuation Equilibrium)이다. 즉 오랜 세월동안 아무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천이과정이 화석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화론을 맹신하고 있다. 이것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 차라리 종교에 가깝다.

3. 성경에 기록된 자세한 홍수 심판 기사 외에도 세계 대부분의 민족은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민족에게 홍수 설화가 남아 있는 것은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

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큰 홍수,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 배를 통한 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근원 이야기로부터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기록은 매우 조잡하거나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성경의 홍수 기록은 일지와 같은 형태로 매우 자세하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명확히 보여주며, 오직 성경의 기록된 방주의 기록만이 실제 홍수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지구적인 노아 홍수 기록이 다른 신화들로부터 인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사실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6과 역사적인 일곱 개의 C 사건들

### ● 함께 생각하기

1. 성경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토론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7C로 정리하도록 준비한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Stasia Mckeever의 책 제13장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조: [www.answersingenesis.org/infotheory](http://www.answersingenesis.org/infotheory)).

2. 창조(Creation)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조(Creation) -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heavens)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분이 완성하신 “창조”는 “매우 좋았으며” (창세기 1:31), 공룡을 포함한 최초의 모든 동물들과 최초의 두 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식물만을 먹었습니다(창세기 1:29-30). 그 당시 생명은 완벽하였고 아직 저주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폭력, 질병, 아픔, 가시, 그리고 두려움 등은 최초의 창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의 사건을 마치신 후, 하나님은 창조라는 수고로부터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골 1:17).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취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신 것으로, 우리는 현재 일주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한 분야인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은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 창조하시니라.”라는 내용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DNA는 유전이라는 정보의 기본을 이루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또한 가장 기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보다도 더욱 높은 정보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DNA 안에 들어 있는 정보는 더 큰 정보 (혹은 지능)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물질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종류의 근원은 그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야만 하며, 실제로 이것은 지적인 능력의 궁극적인 근원이며 모든 만물이 이 근원을 통해서 만들어 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시 147:5),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의 근원이시라는 말은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러한 주장은 실제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일치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스스로 재생산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종류(kinds)” 안에서 매우 다양한 변이(variation)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자들이 모여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진화론이 말하듯, 어떠한 한 종류(예를 들면 개, 고양이, 코끼리등등)도 다른 종류로 변해 가지는 않습니다.

(참조 : [www.answersingenesis.org/liger](http://www.answersingenesis.org/liger))

### 3. 타락(Corruption)이란 무엇입니까?

타락(Corruption) - 완벽한 창조를 마치신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열매를 제외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창 2:8).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 될 것이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창 2:17).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반역하기를 선택하고,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창 3:6).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희생시켜 아담과 이브를

위해 가릴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부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셨고, 그 둘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한 때 완벽했던 창조세계에 사망, 질병, 그리고 슬픔이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창 3:19; 롬 5:12).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창 3, 롬 8:20-22).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쇠퇴해 가는 유물에 불과합니다. 즉, 이 세상은 원래 아담과 이브가 집이라고 불렀던 아름다웠고, 의로웠던 세상으로부터 타락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락의 결과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육식동물, 돌연변이, 질병,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피조 세계를 절망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희망가운데 두셨습니다(참조: [www.answersingenesis.org/curse](http://www.answersingenesis.org/curse)). 기쁜 소식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다시 사들이게 될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창세기 3:15).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 4. 대격변(Catastrophe)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격변(Catastrophe) -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결혼하고 이 땅에 그들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의 사악함이 커져만 갔습니다(창 6:5).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치는 대 홍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 동물, 땅 위에서 살던 것들과 하늘의 새들을 멸하셨습니다(창 6:7).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공룡을 포함하여 육지에 거하는 동물왕국의 대표들이 이 대홍수 사건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에는 공룡을 포함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공룡의 평균 크기는 단지 양(sheep)의 크기였으며, 노아는 거대한 종류의 공룡일 경우 다 성장한 것을 방주에 태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단지 약 16,000마리 정도를 방주에 태우면 됐습니다(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실을 수 있는 큰 방주의 규모에 대한 분석은 Noah's Ark: A Feasibility Study by Woodmorappe를 참조). 이러



한 전 지구에 걸쳐 일어난 대홍수는 오늘날에도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수천 피트에 걸쳐 있는 퇴적암이 전세계에 걸쳐 발견되고 있으며, 암석층에 묻혀 있는 수십억의 죽은 생물들(화석)을 통해,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될 방법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창 9:13-15). 만약, 그 홍수가 규모 면에서 볼 때, 전 지구에 걸쳐 일어난 대홍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 어떤 한 지역에만 일어났던 작은 규모의 홍수였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지역적인 홍수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조:[www.answersingenesis.org/flood](http://www.answersingenesis.org/flood)).

##### 5. 혼란(Confusion)은 왜 생겼습니까?

혼란(Confusion) - 대홍수 이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생존한 인류인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살아남은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충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 8:17).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불순종하고 탑을 쌓게 됩니다. 그들은 이 탑이 자신들을 하나가 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창 11:3-4). 대홍수 이후 100년쯤 흘러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란(혹은 다양)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땅에 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창 10-11장)을 통해 갑자기 여러 다른 언어가 생기게 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언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져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몇 세기 후, 그들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수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비슷한 언어들을 묶는다면 단지 20개 이하의 언어군 (language families)만이 존재합니다(참조: [www.answersingenesis.org/linguistics](http://www.answersingenesis.org/linguistics)).

오늘날 모든 종족들과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외모의 차이들에 대해 더 신뢰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한 “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행 17:26). 우리는 모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보전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며, 따라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자녀를 낳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 또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그들은 어떤 특징(예를 들면, 키, 머리와 피부색깔을 결정하는 색소의 양)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정보의 양을 서로 달리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색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그 양이 많으나 적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인간 유전자(genome) 프로젝트의 결과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오직 한 인종만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리포트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단지 적은 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특성들이 소위 말하는 인종들에게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유전학의 기초적인 원리들은 단지 한 가지 피부색(다른 색들이 아니고)이 다양한 명암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메리칸 인디언과 호주 원주민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유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창조와 대홍수 전설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학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 6. 그리스도(Christ)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Christ) -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는 아담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망선고를 받아야만 하고 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롬 5:12).

앞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하지만 타락한 피조세계를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없애 주실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겔 18:4; 롬 6:23).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적어도 한 마리의 동물을 죽이셨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동물들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희생제물들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장차 오셔서 궁극적인 희생재물이 되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기준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롬 3:20).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그 율법의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약 2:10). 그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함 없는 자로 보이도록 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롬 5:9, 뱀전 3:18).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세주를 정확한 때에 보내 주셨습니다(갈 4:4).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무한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분은 완벽해야만 했고 무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요 1:1-3,14)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의 일부가 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 약속하신 그 분(창 3:15)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수 세기 전에 이미 예언된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50개 이상이나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이상을 보내시면서도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된다(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언급하시는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19장 3-6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창세기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 7. 십자가(Cross)란 무엇인가?

십자가(Cross) -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Last Adam)”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고전 15:21-22).

하나님께서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죄인 자신 혹은 대신 죄를 질자가 하나님의 분노를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담당하셨습니다(사 53:6).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 계 5:12)께서는 단 한번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희생당하셨고 (히 7:27) 이로 인해 그 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원한 형벌(하나님과 영원한)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망도 만물의 창조자(요 1:1-3; 골 1:15-1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 원수”(고전 15:26)인 사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기록한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5, 57).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 그 분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요 5:24).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계 13:8, 17:8)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장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옛세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은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어떤 사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과거를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사실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삼일 후 텅 비어 있었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고전 15:6)을 말해 주는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부활과 6일 간의 창조를 모두 남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 백 만년을 다루는 세속적인 역사는 사실이 아니며, 진화론적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그리고 천문학 등이 관찰에 의한 과학의 검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창세기 1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며, 성경적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 등은 관찰을 통한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참이라는 사실을 통해, 사람들은 이 역사에 근거한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만 합니다.

#### 8. 성취(Consummation)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취(Consummation) - 인류가 생긴 이후로 사망도 우리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온 피조 세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현재 심하게 고통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창조의 영원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죄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가져온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내리신 저주를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 22:3), 새 하늘과 새 땅을 (벧후 3:13)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는 더 이상의 죽음도 애통이나 고통도 없습니다(계 21:4).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멋진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밀려 들어온 타락을 없애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완벽한 곳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 토의 및 적용

1.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일곱 개의 C사건들(7 C's of History)”을 말할 수 있다.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개개인이 말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경을 통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대로의 적합한 이해에 근거한 세계관이야 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의 진화론적 선전과 맞서 싸울 때 필요한 세계관인 것 입니다.

## 7과 진리되신 예수그리스도 -- 교안

● 함께 생각하기

1. 구속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1절) - \*허물: 일반적인 행동의 잘못 \*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2)이 세상 풍속을 좇는 사람이다(2절) - 타락한 풍속, 타락한 도덕적 풍조, 부패하고 향락적인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다.

3)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다(2절) - 사단, 마귀,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사람이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4)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3절) - 육신 중심, 욕심 중심, 동물적 욕구 중심으로 살았다.

5)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3절) - 마귀를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

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은 모두 이런 모습이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 2.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속의 은총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사실을 예언했다.

1) 구약 성경의 예언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그”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나”로 바꾸어 읽도록 한다. 또한 쓰도록 한다.

2) 신약 성경의 기록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8-9).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읽도록 한다. 또한 쓰도록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고백하고, 쓰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그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피가 우리(나)를 구속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 구속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3. 구속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노예상태(억압상태)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2) 해방의 방법은 값(속전(贖錢), Ransom)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3)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4) 이 피를 믿으면 그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1) 죄 사함을 받는다(죄 용서 받음, 죄의 형벌에서 해방)

(2) 죄의 온갖 저주스런 결과에서 해방된다.

가. 정신적 자유(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얻는다.

나. 모든 병(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에서 놓여 자유를 얻는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마 8:16).

다. 풍성한 복을 얻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 모든 일에 형통과 평강과 행복을 얻는다. 이것이 천국이다.

4. 이사야 43장 1—7, 25절, 44장 24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구원자시라고 소개하신다. 오직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며 창조주이신 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만약 구원자보다 더 큰 이가 있다면, 그는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계시하신다.

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의 은혜는 역사를 통해 이 루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의 성취)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수백 구절에 달한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300개 이상의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 사해사본과 헬라어 번역 칠십인역 및 수많은 다른 사본들을 통하여 그 기록들이 성취된 후대에 변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생지(미 5:2), 출생 집안(사 11:1-2, 10), 출생방법(사 7:14), 죽음(사 53:5-11; 신 21:23; 시 22:1-18), 은 삼십에 팔릴 것(눅 11:12-13) 등이 모두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5:39).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4-48)

#### 6.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집니까?

죄사함을 받음, 자녀됨, 영생을 얻음, 성령이 내주하심, 상속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감 (엡 1:7, 13; 요 1:12; 요 5:24; 고후 5:17; 롬 8:29)

#### ● 토의 및 적용

##### 1.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본문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한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지 아니 하셨다면 누가 그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끼는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절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다. “내 몸 어느 부분이 너무 아프다”, “제자들이 나를 다 배신했다”고 울부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통증), 정신

적인 고통(수치감)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겠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고통과 피로움에 철저히 등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예수님은 경험하셨던 것이다.

3.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에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원래 상업적인 언어 표현으로써,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그 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음을 믿는가? 아직 우리 중에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만약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서 아버지가 내 몸을 다 씻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몸을 더 씻어 달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죄하신 것을 못 믿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씻어 달라는 어리석은 아이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

4. 대속과 관련된 성구를 가지고 고백 나누기.

레위기 17장 11절 -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과 구약 모두 구원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도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10장 1절 -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4 - 해마다 드리는 제물인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지 못했다. 11 - 매일 드리는 제사도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불

완전한 구약 제사를 하나님은 왜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완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그림자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했는가? 10절 - 단번에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12 -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4-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18-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셨다. 한 마디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는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요, 그 용서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이다. 만약 이 엄청난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겠는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 사죄의 확신을 갖는다. 용서가 보장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믿는가? 본문의 우리라는 말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읽어 보라. 특별히 확증하셨다는 말에 힘을 주어 읽어 보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여기심을 믿는가?

당신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메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그 때의 일을 회상하여 보라.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설교의 왕자인 스펔전이 어느날 서재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들어와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펔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질 않아.” 우리는 항상 울어야 한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든지 십자가를 보고도 울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 그 감격이 내면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어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던 때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일으킨 변화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변화시킨다.

## 8과 포스트모더니즘 부수기 -교안

### ● 함께 생각하기

#### 1.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김무현, *세속적세계관부수기*, 16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비록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고 또한 어렵풋이나마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측해 보았을 것이다. 이 용어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철학이나 예술,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더 많은 논의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되었다. 현 시대의 정신 내지 문화의 변화를 규정하는 용어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우리 삶의 전 영역의 - 문학, 예술, 건축, 철학, 사회 이론, 대중매체, 교육, 종교 등 - 다양한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미(beauty)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옳고 그른 것은 또는 아름답거나 추한 것은 관찰하는 바로 그 사람의 보는 관점(perspective)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미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world view)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

정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의 진리이고,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도덕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거부하고 그것의 상대성을 내세운다. 현재의 시대정신과 문화 속의 이러한 상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설득력 있는 합리적 논리는 하나의 의견(opinion)으로만 받아들여지며,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진리 주장은 자유로운 시대정신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방향성이 상실된 오늘날의 시대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많은 사람들을 객관적인 진리와 확실한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믿게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힘과 사회적 추세는 전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갖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려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그리고 맞서야 할 가장 큰 사회 문화적 경향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든 정신이 반성경적이라고 또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 산업주의의 규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건축이나 예술 양식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사탄적이라고 볼 수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현대 정신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문화 명령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승천 이전 주님께서 당부하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사람의 꾀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엡 4:14)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확히 아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2.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p170)

(1)모더니즘의 배경과 이해 - 시대적으로 볼 때, 근대(modern)이후의 사상적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은 후근대(postmodern), 반근대(antimodern), 또는 신근대(neomoder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형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전 역사로서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 근대주의

(modernism)사상은 중세 교회와 교령의 인간 이성에 대한 남용적 지배와 위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속적/인본주의적 정신과 세력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시대였고, 그 정신도 신적 계시가 진리의 최종 척도였던 중세의 관습에서 벗어나 이성 및 진화론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을 내세우는 때였다. 근대는 14-15세기의 르네상스(문예부흥)에서 시작되어, 그 뒤 종교 개혁 그리고 데카르트(R. Descartes)와 칸트(I. Kant)로 대표되는 17세기 계몽주의에 의한 거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 산업 혁명과 불란서 대혁명까지 이르게 된다.

\*이성주의 - 인간이 가진 기능 가운데 이성에 의한 판단과 사고를 중시하였다. 생각하는 자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강조되었고, 이런 인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이 참이며 확실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이성의 능력을 신뢰했으며, 인간 이성이 지식 체계의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리주의 - 중세의 신앙의 진리 주장을 신뢰할 만한 지식의 영역에서 제외시켰고, 인간 이성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앙과 지식, 그리고 계시와 이성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두었다. 중세의 종교적 절대성이 근대에는 인간 이성의 절대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과학주의 -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진 진리만이 가장 확고한 기초 위에 정립된다고 믿었다.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1473-1543), 갈릴레오(galileo, 1564-1642), 뉴턴(Newton, 1643-1727) 등에 의한 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우주관,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더욱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계의 정설로 자리잡혀 가며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진화의 최고봉에 선 인간의 이성에 의한 과학과 기술과 제도의 발전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이 인류에게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과학 지상주의를 지향하게 만들었다.

\*낙관적 진보주의 - 고대/중세와 비교해서 근세에는 이성에 의한 신념, 합리성에 의존하였으며 과학과 기술에 의해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헤겔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이성은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의

과정을 통하여 끝없이 진보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하여 역사의 진행을 발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낙관적 진보론이 팽배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와 보다 편리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관주의적 전망을 더욱 확산시켰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5:21).

## (2)모더니즘의 종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이성위에 합리적인 법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를 세우고, 근대 과학 기술로 보다 편하고 점점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는 근대의 낙관주의적 전망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성취되지 않았고 실패로 끝나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이성의 영역 안에서는 우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계만이 남게 됨을 보았고, 이성 위의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 몸부림쳐 보았으나, 결국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임도 감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절과 허무 속에서 탄생한 시대정신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이러한 근대의 종말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의 전환에 이르게 되는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낙관론적 역사관이 지니는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함.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어 자기 완결적인 이성주의, 19세기 산업 혁명, 다윈(Darwin)의 진화론,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정점에 달했던 진보주의적 역사관은 20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스탈린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의 재발견 등으로 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역사가 자신들이 가정한 대로 무한히 진보하며, 또한 기대하던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집단 그리고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본능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합리성

자체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대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었다.

둘째,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산물들

먼저 산업화로 치달던 문명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자원고갈, 오존층의 감소, 빈부의 격차, 인간 소외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기계화로 인해 인간의 물질화와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났다. 지식과 학문은 선을 위한 도구라고 행각했던 낙관적 근대 사상은 핵무기 등 전쟁을 위한 살상 무기, 환경 파괴, 유전 공학의 남용 등으로 조각나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의 제공.

사람들은 산업화, 기계화의 근대주의가 산출한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실망을 느끼고, 새로운 것과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서민층 의식의 향상과 함께 소수 상류층 사람들의 향유물이었던 중세 봉건 시대의 예술이나 문화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위 다양한 대중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근대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대 사상 내지 근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이 포스트모더니즘 태동의 주원인이 되었고, 진보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인간에 대한 무력감 등의 심리 변화가 사회 현상의 변환에 부차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세에서는 교의적인 타율로 인생관이 제시되었고, 근세에는 이성과 합리적인 자아가 득세한데 비해, 이 시대에는 감성적이고 냉소주의적이며 비합리적인 자아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고 이루어 보려던 근대 사상의 근본적인 한계의 결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 3. 포스트모더니즘의 4가지 대표적 성격은 무엇입니까?(174)

포스트모더니즘 발생의 역사적 배경 즉, 근대의 인간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과학/이성주의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발생 배경의 역사적 특성상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특



성을 계속 지니면서도 다분히 그것과 대립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즉 어떤 한 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전(prior)역사로서의 모더니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다른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작용으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적 절대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또한, 합리적 자아보다 욕망적 자아가 이 세상 정신과 문화를 지배한다고 보는 관점 등은 성경적 시각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진리의 상대성 및 다원화 등 그 대부분의 정신은 또한 반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고 또한 그 본질상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다음에 그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 (1)절대적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진리의 상대성을 내세운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그것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와 보편주의, 형이상학 전통에 대한 반성이며 반작용이다. 포스트모던 정신은 진리를 합리적 영역으로 제한하거나 인간 지성을 진리의 전결자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객관적 진리는 접근 불가능하고 실재나 본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석자 안에 있다고 믿는다. 한 가지 의미만 찾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찾고 부여하며, 또 의미의 절대화를 거부하고 그것의 상대성을 내세운다. 학문에서도 참된 지식은 없고 칼 포퍼(Karl Popper)가 말한 것처럼 ‘견해’(opinion)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어 혼돈(chaos)과 통제 상실(anarchy)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하버마스 같은 사상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비합리주의와 상대주의의 그늘로 숨어버린 유약자들”이라 평하기도 했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소위 ‘구성주의(constructivism-모든 지식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보급되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사상이 어떤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 낸 것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법원장이었던 프레데릭 빈슨(Frederick Vinson)의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는 없다’는 원칙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와 같은 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주관적 경험이나 의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더욱 모순인 것은 허용되는 유일한 절대는, 절대가 없다는 절대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예술에서도 단순한 의미를 지닌 분명한 작품보다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애매 모호한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실재에 의거하는 전통적인 예술의 틀을 거부하고 예술 형식간의 경계를 철폐한다. 특히 건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드러나는데, 건물을 과거처럼 합리적이고 기하학적인 피타고라스적 황금비인 균형미(symmetric)에 따라서 세우지 않고, 그런 균형비에 다양한 양식을 가미하여 소위 양식복수주의 내지 양식절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근대적 특성이 보이는 단일 형식의 건축물, 또 오늘날의 실용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국제 양식의 단순함이 배격되고 구조의 복잡성, 양식의 다가적(multi-value)코드화 등으로 역사적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할리우드에 의해 대변되는 상업 영화의 잘 짜여진 이야기와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벌이는 긴장 어린 사건들 대신에, 사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주인공이 누구인지 스토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장면들을 연속해서 보여준다. 따라서 이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프레더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이 말한 것처럼 ‘혼란과 정신 분열’이란 용어로 특징지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술가들은 이성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욕구, 의지, 감성의 원초적 본능이 때로는 정신 분열적으로, 때로는 장난기 어린 유희로, 또는 도발적인 예술 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그런 예술에는 궁극적인 메시지도 보편적인 의미도 없다. 또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분명한 동기나 의도도 없다. 있는 것은 그저 해프닝뿐이다.

## (2)해체주의 :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를 표방한다.

전통적인 로고스 중심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실존주의의 실존이나 구조주의의 구조도 달한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비판한다. 데리다(Derrida)는 “해체한다라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개념들의 계보를 면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규명은 사상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감추어지고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주는 지배적이고 일의적

인, 그리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고 또 그것을 해체시켜 다양한 구조들을 풀어 꺼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기독교내에서도 침투하여 탈성경화, 탈교리화의 입장을 취하며 체험이나 신비,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는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리오타르(J. F. Lyotard)는 비구상을 예술의 포스트모던한 특징들 중 하나로 이야기한다. 더 이상 절대적이고 온전한 예술 개념의 의미에서 작품을 만들지 않고, 그려진 것의 독립적 요소들, 예술 개념들이 구조 종합 현상으로서의 예술의 부준들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포스트모던 예술은 대상, 상태, 구조, 위치, 종류 등의 해체 작업을 통해 성격 지워진다고 말한다.

### (3) 탈 인간중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탈 인간중심주의 내지 주체의 상실을 표방한다. 코슬로프스키(P. Koslowski)는 “포스트모던이란 시대는 인간이 몰락하기 위해 고귀해지게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즉, “진정한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의식 없는 욕망 아래서 의미 없는 세월만 정신 없이 보내는 개별자들만 우글거리는 시대”라고 비판하였다. 현시대의 모습에 날카로운 지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모더니즘이 중요시 해오던 자아의 주관성과 개인주의보다는 오히려 자아의 분산이나 자아 상실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합리적 자아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마저도 더 이상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 철학(Ecological Philosophy)내지 생태 윤리학(Ecological Ethics)은 이러한 사상의 영역 안에 드는데, 그것의 주창자인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자연의 주체성과 생존권을 주장한다. 자연은 인간의 연구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주체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또한 요즘의 뉴에이지 이념이나 힌두교 계통 종판르의 사상에서도 보인다. 이런 것에서는 인간이 우주 속에, 우주의 힘과 질서 속에 함몰되어진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역사에서의 주체가 상실되고, 진보성을 부인하므로 개혁 의지가 약해짐은 물론 삶의 합리적 변화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4) 전통적 계급 질서의 붕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통적 계급 질서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계급이 출

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소수 민족의 부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히피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년 문화로 더욱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모더니즘 시대에 저급 문화로 취급되던 대중 문화가 이전시대의 고급 문화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 문제와 동성 연애가 성의 혁명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초문화적 절대적 진리는 없고, 다양성/상대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또한 모든 문화와 종교 속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함으로 교육도 그러한 이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점점 학교 캠퍼스 내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새대를 해석하는 설명자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인간을 그릇되게 이끌어 가는 거짓 안내자일지도 모른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시대정신을 너무 무시하지도 또 그렇다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의 활동 영역과 대상인 이 시대의 사회와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 모습이라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대안들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바른 교리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신비체험 등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그릇된 시대정신 속에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윤리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절대적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존중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 4.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인 객관적 이성애 근거한 일원화된 체계와 합리성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등장한 사조이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은 연극, 무용, 음악, 예술, 건축, 문학, 철학, 심리학, 자연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그 특징은 불확실성, 과편성, 표준의 해체, 자아 상실, 기반 상실, 명시할 수 없는 다양함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에서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 문화의 전반적 분위기가 어느 종교의 유일성, 배타성을 거부하고, 종교의 다원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게 되었다. 이를테면 오늘날은 노방 전도를 해도 시비 거는 이가 없고 무관심적 방임의 자세를 취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배경에는 인간의 개별적 세계관과 사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배경에는 인간의 개별적 세계관과 사상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정과 자기 중심적 태도가 있다. 중세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외치고, 근세의 합리주의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데 비해, 작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정신 속에서는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그저 자유로운 개인적 견해와 쾌락주의적 삶이 방종인지 자유인지도 모른 채 불분명하게 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리오타르(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신의 장례식”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세는 타자를 인정하고 열린 시각과 자세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복수성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 아래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수용적인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3-15)

(1) 왜 최근 들어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가?

첫째, 급속한 세계의 변화와 세속화 경향 -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이전에 지역을 가르던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서로가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체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발전해 감에 따라서 지구촌은 피할 수 없이 점차 개방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존 나이스빗은 『메가트렌즈』에서 지적하기를 “전통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받아들이는 믿음이나, 감상하는 예술품은 모두 한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이용 가능하다. 힌두교의 만트라, 탄트라 경전의 만다라, 일본의 프린트 문양, 아프리카의 조각, 라틴음악과 인도의 라가 등, 이 모두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실시간’에 서로 어울려 있다.” 이러한 사상과 종교의 개방, 공존, 흐름가운데서 한 종

교의 배타성을 주장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둘째, 기독교 내부로부터 오는 도전 - 현대 신학으로부터의 도전이다. 현대 사회에서 신학자들은 타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교 신학의 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에 전통적인 신학 방법론의 틀을 깨뜨리는 현대적 신학 방법론이 가미되었다. 오늘날 선교 신학에서 타종교에 대한 종교 신학적 태도는 크게 종교다원주의와 포괄주의, 배타주의(근본주의)의 세 부류로 나눈다. 즉 기독교 신학자들 내부에서도 타종교에 대해서 구원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기독교론 자체를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의 배타주의를 독선적이고 서구제국주의적 선교의 산물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기독교 내부의 종교다원주의나 포괄주의적 입장이 다른 어떠한 외부적 도전보다도, 보수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더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참고- 뵤후 3:17-18; 고후 11:3-4)

셋째, 타종교로부터 오는 도전 - 현대 세계에서 여러 종교인들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배타적 주장이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의 종교 다원화 세계 속에서 서로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깨뜨리는 비윤리적인 독선이라고 공격한다. 특히 동양권 전통 종교들의 특징이 포용성과 범신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구 제국주의적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 통치의 아픔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 입장이 더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포용성으로 위장된 도전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어 많은 지지를 얻어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자살 테러가 급증하면서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 (2)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딤후 3:10-11).

첫째, 종교다원주의 - 모든 종교의 구원 진리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현대적 인본주의 및 자유 신약 성서학의 영향, 역사적 상대성에 대한 현대의 문화적 경험, 그리고 보다 넓어진 다른 종교들에 대한 지식 등에 근거하여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존 힉은 “모든 종교의 배후에 하나의 실재가 존재하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종교가 생겼다.”고 보며, 레이몬드 파니카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며 “범 우주적인 신인 양성적 실재로서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신되었으나 그것은 모든 역사적 형태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모든 종교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마르타는 역사적 상대성에 기초하여 “어떤 종교나 종교 인물도 신의 전적인 신비 앞에서 자신을 궁극적인 말, 충만한 의미로 말할 수 없기에 하나의 종교는 자신의 추종자에게 결정적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느 종교인에게도 결정적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해방 신학 혹은 정치 신학은 윤리적 실천을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전통적 그리스도론이 세계의 역사에서 비도덕적 태도, 우월성, 불관용, 물지각한 판단을 유발시켰음으로 그것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존 힉의 신 중심적 다원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참고 - 마 7:15; 고후 11:14).

둘째, 포괄주의 - 성서만을 유일한 규범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신앙 전통을 용납하는 카톨릭이나 정교회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와 포괄주의는 신학적 주장에 서는 차이가 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제 알갱이가 거의 같은 주장으로 보인다.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Ⅱ보고서라든지 칼 러너 같은 사람들의 ‘익명의 그리스도’ 주장을 보면 교회 밖의 타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미치는데 이 말은 타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즉 교회밖에도 구원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개념인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와 분리되어진 그리스도의 개념이다. 이 견해는 신학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적 배타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학자들의 개념적 주장이고 실제로 ‘익명의 그리스도론’에 따르면, 타종교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종교다원주의와 실천적인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들은 타종교 안에 있는 자연 계시를 인정해 주고 강조한다. 일괄하면 백두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마지막 접근로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올려 놓은 모양이 된

다. 카톨릭 안에서 한스 쾅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아예 기독교밖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자고 한다. 한국 내에서도 일부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기독교 밖의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부 제3세계 신학자들도 이 포괄주의의 입장에서 타종교들 안에 존재한 보편적 구원 가능성을 인정한다. (참조 - 잠 14:12; 고전 1:23-24).

셋째, 배타주의 -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수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성경 계시의 절대성과 모오성에 근거하고 있다. (참조 - 갈 1:8-9; 행 4:12).

성경은 타종교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자신의 수련으로 득고함이 아닌, 창조주의 전적인 계시와 은혜에 의한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믿는 자의 회심/영접에 의한 구원이다. 이 대속과 회심을 중심으로 한 속죄론은 타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구원 요구이다. 또한 피터 베이어하우스는 우리가 복음을 타종교인에게 전하고 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즉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내세와 영혼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감히 타종교에게 우리의 구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크레머는 타종교 내에 일반 계시(일반 진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특별 계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불연속(discontinuity)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참고 - 요 11:25-26).

보수 기독교인은 실제 이 배타주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타종교에 일반 진리조차도 없다는 편협한 배타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종교에 일반적인 진리가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구원의 진리까지를 받아준다는 것은 보수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대의 사회와 문화가 다원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를 양보한다면 기독교는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던 테레사 수녀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종교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카톨릭 교황청의 방침도 대체로 테레사 수녀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구원론의 입장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이미지로 비쳐져서 불신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인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에 반해서 오직 예수/오직 성경의 개혁주의/보수주의적 입장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포용력이 없다는 반감을 주게 된다. 때로는 흑백 논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진리는 흑백을 가리는 것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떨 수밖에 없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다. 즉 진리와 복음은 타협하지 말고 사수하여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며, 관계에 있어서는 수용적/포용적이어야 한다. 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적/사회적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경이 창조주께서 주신 절대적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여 영생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이사야 41장 1-29절에서 하나님은 참 신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합니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구원관이나 진리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의 조건에 대해 4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1) 역사를 주관함 2) 태초부터 끝날까지 존재함 3) 장래 일을 예언함 4) 지난 일들을 정확히 서술함.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변론하고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 분은 입법자인 동시에 심판자

이시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입법자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가르치는 바이며 또한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는 바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외에 다른 진리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앞에 아무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그 분의 선하심에 미치지 못하고 타락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 자신뿐 이시다. 인간이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 6.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지혜에 대해 어떠하다고 표현합니까?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에레미야 17장 9-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1,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 ● 토의 및 적용

##### 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포스트크리스천

회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이 세대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무엇일까?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철저한 상대주의적 입장은 성경의 절대성과 충돌한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므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며 교회를 공격했다. 이것이 모더니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진리를 주장할 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오, 당신은 틀렸소.”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그건 당신의 진리지요. 나의 진리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진리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지난 40년 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주류 교회는 영적인 쇠퇴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이렇게 의심에 밀려 떠내려가는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들이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진리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현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 조류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볼 때, 이러한 시대 정신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도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근대주의, 자연주의에 젖은 사람들과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에 젖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방식을 분석해 보고 각 경우에 어떠한 전도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 것인가를 토의해 보자.

포스트모던 시대에 나타나지 쉬운 교회의 현상은 포스트크리스천들의 증가일 것이다. 교회는 다니고 개인적으로 신앙은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계시와 진리이므로 모든 윤리, 학문, 생활, 문화, 그리고 사회 제도의 전 분야에 걸쳐 그 사상적, 윤리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즉 세상에서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따로 신앙의 모습이다. 이러한 포스트크리스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자.

## 2. 포스트모더니즘 - 소견에 옳은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왕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만이 처음으로 이러한 상대적인 옳고 그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자의 의견이나 기호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였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 간 이스라엘 족속은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 그들이 믿고 의지할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다. 그분은 바로 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했던 참 진리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 유일의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를 상대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참 진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지이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진정한 회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제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 진리는 한 인격으로 말미암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시오”(딤후 6:15).

질문 : 당신은 하나님의 참 계시인 성경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 3. 다원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자연주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종교들이 서로 모순되는 중심 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상 그 모두가 참이 될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오직 하나만이 참일 것이다. 그 외의 경우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뉴에이지와 포스트모던 시대는 절대적 진리란 없으며 모든 종교가 하나의 공통 진리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사랑과 화해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위장 전술을 내세우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세속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심지어 소위 지성인 사회에서는 “성경을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믿는 것은 지성의 자살 행위(intellectual suicide)”라 하는 이들도 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유대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다. “저희가 여호와와 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 창조주가 계신 것. 둘째, 창조주가 계시하여 주신 참 진리는 오직 하나일 것이며, 셋째,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며, 넷째, 그 결론은 우리가 조금만 더 애착과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 4.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동성애와 음란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48참조)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베드로후서 2장 6-8절 /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 이신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논문 3장, 이신론 참조

6. 자연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논문 3장, 자연주의 참조

7. 허무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논문 3장, 허무주의 참조

8. 뉴에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논문 3장, 뉴에이지 참조

## 참고 문헌

### 1. 국문 서적

-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서울: IVP, 2007.
- \_\_\_\_\_. *십계명이 열어 보인 삶의 길, 자유의 길*. 서울: IVP, 2009.
- 김무현.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서울: 말씀과 만남, 2004.
- \_\_\_\_\_.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 \_\_\_\_\_. *창세기 믿어? 말어?: 성경적 창조관 세우기*. 서울: 말씀과 만나, 2005.
- 김성곤. *독수리처럼 날다*. 서울: 두날개, 2007.
- \_\_\_\_\_.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두날개, 2011.
- \_\_\_\_\_.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핸드북 카드*. 서울: 두날개, 2010.
- 김성복. *영적제자훈련*.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 김승년.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만든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류영모.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 민경설. *전도동력리포트*. 서울: 선교햇불, 1999.
-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 신국원. *니고테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_\_\_\_\_.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IVP, 2002.
- \_\_\_\_\_.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IVP, 1999.
- 안점식. *세계관과 영적전쟁*. 서울: 조이선교회, 2001.
- \_\_\_\_\_. *세계관과 종교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2008.
- \_\_\_\_\_.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2001.
-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서울: 흥성사, 2009.

-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 \_\_\_\_\_.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2005.
-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 이연길. *소그룹 성경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이은일. *한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서울: 두란노, 2008.
- 이재만. *노아홍수 콘서트*. 서울: 두란노, 2009.
- 임정빈. *풀어쓴 현대물리학과 기독교*. 서울: 고람미디어, 2010.
- 임택진. *모범 구역장*. 서울: 소망사, 1981.
-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 채이석.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 \_\_\_\_\_.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 \_\_\_\_\_.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08.

## 2. 번역 서적

- Bloesch, Donald G. *기도의 신학 (The Struggle of Prayer)*. 오성춘, 권승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 Boice, James M. *성경의 무오설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Carlson, David E. *자존감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서울: 두란노, 1995.
- Clinton, Robert. *영적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6.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Com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 So People Want to Come Back)*. NCD 출판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Donahue, Bill.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Leading Life: Changing Small Group)*.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Donahue, Bill,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월로크릭 소그룹이다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A Place Where Nobody Stands Alone)*.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Eims, LeRoy.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영적 지도력의 성서적인 원리 (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What the Bible Says About Leadership)*. 한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3.
- Ford, Leighton.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비전을 심고 가치관을 세워 주며, 변화의 능력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지도 방법 (Transforming Leadership)*.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Ham, Kenneth A.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 (The Lie Evolution)*. 정동수, 유상수 역. 서울: 두루마리, 1999.
- Henrick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네비게이트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0.
- Henry, Cloud, and Townsend John.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소그룹 인도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Making Small Groups Work: What Every Small Group Leader Needs to Know)*.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Icenogle, Gareth W.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 Johnson, Phillip E. *심판대의 다윈 : 지적설계논쟁 (Darwin on Trial)*. 이승엽, 이수현 역. 서울: 까치, 2006.

- Long, Jimmy. *소그룹 리더 핸드북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IVF 자료개발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MacArthur, John.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Why Believe the Bible?)*. 유자화 역. 고양: NCD, 2008.
- \_\_\_\_\_. *우주와 인간의 시작: 창세기 1-3장을 통해 본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The Battle for the Beginning)*. 이심주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_\_\_\_\_. *진리전쟁: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 (The Truth War: Fighting for Certainty in an Age of Deception)*.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xwell, John C.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 Mcbride, Neal F.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How to Have Great Small-Group Meetings: Dozens of Ideas You can Use Right Now)*.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1.
- \_\_\_\_\_.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Small Groups)*.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7.
- McGrath, Alister.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A Passion for Truth: the Intellectual Coherence of Evangelicalism)*. 김선일 역. 서울: IVP, 2001.
- Miller, Darrow. *하나님 나라 가치 (Kingdom of God)*.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2.
- Morris, Henry M. *기독교 교육 개요 (Education for a Real World)*. 이갑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_\_\_\_\_. *창세기 상 (Genesis Record)*. 정병은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94.
- \_\_\_\_\_. *창세기의 대 사건들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희숙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the*

- Dynamics of Good Group Life*).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5.
- Pearcey, Nancy R. *완전한 진리 (Total Truth)*.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Scarborough, L. R.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 Sikora, Pat J.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Small Group Bible Studies)*.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3.
- Sire, James W.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서울: IVP, 2007.
- \_\_\_\_\_. *지성의 제자도: 기독교적 지성의 개발과 적용 (Discipleship of the Mind)*. 정옥배 역. 서울: IVP, 1994.
- Snyder, Howard A. *그리스도의 공동체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Steinbron, Melvin J. *평신도 목회자를 깨워라 (The Lay-Driven Church)*. 홍용표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 \_\_\_\_\_.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 (Can the Pastor Do It Alone?)*. 서병채, 김종태 역. 서울: LPM, 2002.
- Walsh, Brian J., and J. Richard Middleton. *그리스도인의 비전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황영철 역. 서울: IVP, 1987.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 Growth without Compromising Your Message & Mission)*.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9.
- Webber, Robert E.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Blended Worship)*. 김세광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Wells, David F. *윤리 실종: 세속화된 복음주의를 구하라 (Losing Our Virtue: Why the Church Must Recover Its Moral Vision)*.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 Whitcomb, John C. *성경적 창조론 (The Early Earth)*.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Wiersbe, Warren W.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So That's What a Christian Is)*.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Wolters, Albert M. *창조 타락 구속: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홍병룡 역. 서울: IVP, 2011.

### 3. 영문서적

- Arnold, Jeffery.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2.
- Cartwright, D. and A. Zander, eds. *Group Dynamics: Research and Theory*.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86.
- Comiskey, Joel. *Home Call Group Explosion: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Youth Publications, 1998.
- Donahue, Bill.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 Changing Small Group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 Co., 1996.
- George, Carl F.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Mansfield: Kingdom, 1997.
- Griffin, Em. *Getting Together: A Guide for Good Groups*.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2.
- Hansen, Bradley. *Christian Spiritual and Theology*. New York: Dialogue 21, 1982.
-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 Hunter, George G. *The Contagious: Frontiers in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Nashville: Abingdon, 1979.
- Icenogle, Gareth Weldon.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 \_\_\_\_\_. *The Church in Ministry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Johnson, David W. and Frank P.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82.
- Long, Jimmy.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the Next Gener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5.
- Mallison, John. *Growing Christians in Small Groups*. Sydney: Scripture Union, 1988.
- Maxwell, John.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Nashville: T. Nelson, 1995.
- McBride, Neal F.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0.
-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 Sanders, J. O.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94.
- Slocum, Robert E. *Maximize Your Ministry*.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0.
- Smith, Oswald J. *The Man God Uses*. Ontario: Welch Publishing Company Inc., 1984.
- Snyder, Howard A. *The Radical Wesley and Patterns For Church Renewal*.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0.
- Wagner, C. Pet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 Harvest*. Ventura: Regal, 1990.
- Webber, E. Robert. *Worship is A Verb*. Texas: Word Book, 1985.

Vita of  
Young Ju Yang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LA, USA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20 1971  
 Marital Satus: Married to Hwee Sung Rho in October 27,  
 2001 with 2 sons David, Daniel.  
 Home Address: 415 S.Gramercy Pl. LA. CA, 90020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18, 2001

Education:

Th. B. Honam Theological Seminary, KwangJu, 1996  
 M. Div. Honam Theological Seminary, KwangJu, 1999  
 Th. M. Honam Theological Seminary, KwangJu, 2001  
 M. SW. InHa University, Incheon, 2004  
 Th D in M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iece:

8/2013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LA. CA.  
 11/2007 to 6/2010: Assistant Pastor  
 of Gaw Cheon Church, Gaw Cheon  
 12/2000 to 11/2007: Assistant Pastor  
 of In Cheon Sin Kwang Church, In Cheon